

좋은
()
삶 Eu
()
Zên

(서울 (Seoul
Mediacity

미-디-어-시-티

비엔날레

Biennale
2018))

(
(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은 '좋은 삶'을 주제로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과 서울로미디어캔버스에서 2018년 9월 6일부터 11월 18일까지 개최됩니다. 10회를 맞이하는 이번 비엔날레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콜렉티브와 약 16개국에서 초청된 68명(팀)의 참여자들과 함께 '좋은 삶'의 의미와 가능성을 살펴보는 시민을 위한 공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with the theme of "good life (*eu zên*)" will be held in Seoul Museum of Art (SeMA, Soseomun Main Building) and SEOULLO MEDIA CANVAS from 6 September until 18 November 2018. Celebrating its 10th anniversary this year, the Biennale will become a platform for the citizens to share the meaning of "good life" and its possibilities, with a collective formed by professionals of various fields, and 68 participants/teams invited from about 16 countries.

옛날 그리스의 아테네 사람들은 '좋은 삶(eu zên)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발견했습니다. '좋은 삶'이야말로 누구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지만, 또 놀랄게도 생각하거나 이야기하기를 가장 꺼리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닷가의 조그만 마을이었다가 불과 몇백 년 사이에 내란과 혁명과 전쟁 등 오만 가지 고통을 거쳐 지중해 한쪽을 지배하는 해양 제국으로 변모한 아테네 사람들은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서로 원수가 되고, 순박하던 마을 사람들이 먼 곳의 금은보화에 눈이 멀어 전쟁과 대량 학살을 서슴지 않는 살인마가 되고, 신께서 정하신 도리라고 믿어왔던 모든 전통과 법률은 누구나 비웃는 휴지조각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우리의 삶에 기초가 되었던 모든 것들이 변하고 흔들리고, 그래서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가 없고, 그래서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게 된 이들은 잃어버린 길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나침반으로 이 '좋은 삶'이라는 질문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좋은 삶'이라는 나침반은 절실하게 소중합니다. 21세기 특히 2010년대에 들어선 이후 우리의 세상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혁명의 물결이 우리의 물질적·정신적 생활 방식을 밀동부터 바꾸어 나가고 있으며, 아이와 청년과 중년과 노년 모두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새로운 상황에 부닥치고 있으며, 그 와중에서 기후 변화와 생물들의 멸종 등으로 지구 전체의 생명 영역 자체에 파국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신주단지처럼 모시던 수많은 것들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으며, 그 와중에서 인간 자체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 나가는 진화의 과정을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후좌우와 아래위조차 구별할 수 없는 총체적인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길을 되찾기 위해 매달릴 질문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낼 수 있는 것은 신과 짐승뿐이며, 인간은 서로 모여 생각과 마음을 모으고 나누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도시 한복판에 '아고라(agora)'라는 광장을 만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치나 전쟁처럼 거창하고 공적인 이야기도 좋습니다. 자신의 욕망이나 꿈과 같은 개인의 내밀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그 모든 커다랗고 또 자잘한 이야기들이 섞이고 엮이는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좋은 삶'에 대해 서서히 자기 스스로의 생각과 모습을 잡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토론은 무수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덧없이 무섭게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지 또 변할 수 있고 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간의 직감은 말과 글과 그림과 동상과 춤과 노래 등 무수한 방식으로 포착될 수 있고 또 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준비한 이 '좋은 삶'을 토론할 '아고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이 곳은 지금 변하고 있고, 또 이미

변해 버린 세상을, 그 속에서 함께 변해 나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좋은 삶'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단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 이미 우리의 상상과 직감 속에서 언뜻언뜻 보이기 시작한 미래의 '좋은 삶'의 못자락을 잡아 그 파편을 펼쳐놓을 뿐입니다. 그 파편 조각들을 모아서 여러분 스스로의 '좋은 삶'의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희들은 그 파편들 그리고 그 파편들을 이어 붙일 수 있는 작업장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 '좋은 삶'의 질문 앞에서는 더 많이 아는 이도, 덜 아는 이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 함께 저희가 준비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에 와서 마음과 머리를 맞대보기를 감히 청합니다.

디렉토리얼 콜렉티브

The ancient Greeks of Athens had asked themselves, “what is a good life (*eu zên*)?” “Good life” is the ultimate and precious goal pursued by all in our lives, but surprisingly enough, it is one of the topics people tend to avoid thinking or talking about. Athenians had been living in a small seaside village but had to live through all kinds of turbulent events such as civil conflicts, revolutions, and wars over centuries, until they could claim their Mediterranean territory. After they had finally achieved their status of marine empire, the Athenians could not help thinking of what a good life is for them. Over the difficult times, the wealthy and the poor became archenemies, once modest villagers became murderers blinded by gold and money, while mass killings and waging wars became the norm, and all the tradition and law once believed to be the duty conferred by God became worthless as a piece of paper.... As such, the fundamentals of life had met severe bouleversements, hence nothing could be predicted. For the people at a loss for how to live their lives thereafter, the only compass for regaining the lost path was to ask themselves what a “good life” is.

Even today, the compass of “good life” is such a desperately cherished value as well. In the 21st century, especially well into the 2010s, our world has seen fundamental changes. New industrial revolutionary flow has changed our material and mental lifestyle from the very roots. Young and old generations all face new situations or calamities that cannot be coped at all with hitherto manners of living. Not to mention the livelihood of Earth itself facing imminent collapse due to climate change and extinction of living beings. As of now, numerous things which we had cherished as being the utmost precious to us are being ruined in vain. In the midst of all this, we are witnessing the process of human evolution, a transition of becoming some sort of a new being, mentally and physically speaking. In this era of overall transformation where all your bearings are lost, there is a sole question left which we cling on to in order to regain our path: “what is a good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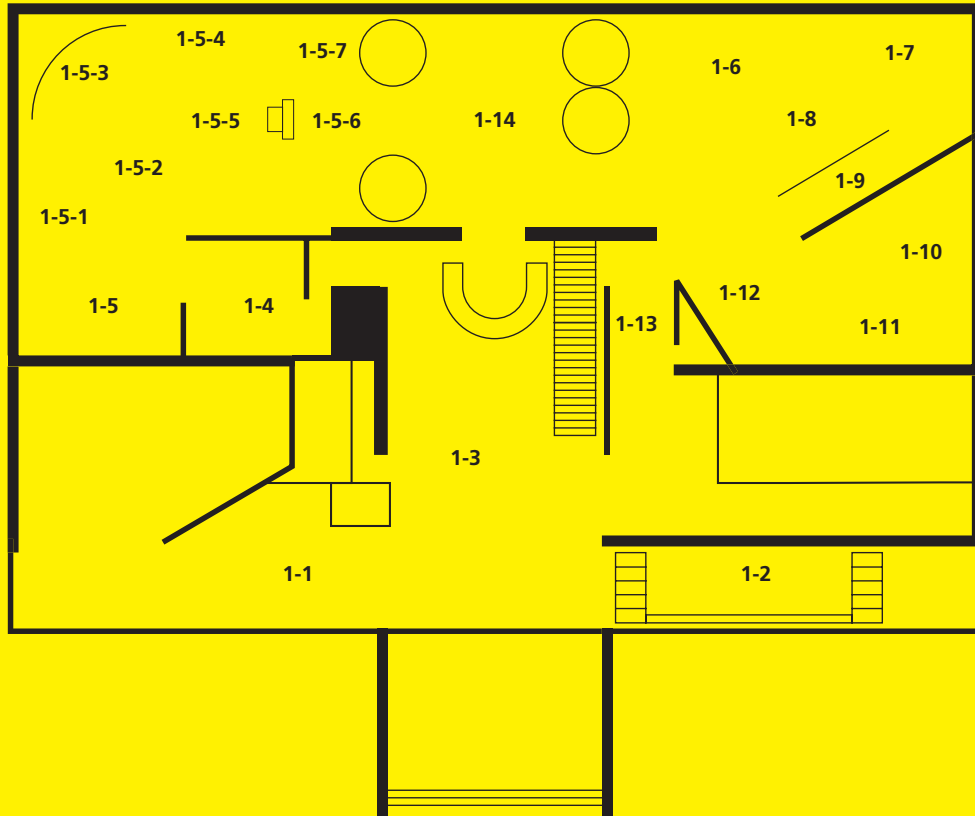
Only God and animals could answer this question by themselves, and we humans should gather and share our thoughts and minds. Therefore Athenians had made their “agora” in the middle of their city and shared endless stories there. Politics or war, such big-scale public issues are fine topics. Talking about one’s desire or dream, such personal intimate stories are welcome, as well. During the time all such grandiose or trivial stories mingle with each other, we gradually learn to cultivate our own ideas of what a “good life” is, how it would look like. Such discussions could take all kinds of forms. In this futile world where everything changes at a scary speed, our intuition on how we are changing or how we can change or how we should change can all be captured and expressed through countless forms via speech,

writing, drawing, sculpture, dance and song.

We invite you to the “agora” where we will be discussing the “good life” theme which we have prepared as an exhibition. This place we are living in is changing as of now, and the discussions will lead us to understand how the world has changed already and how we have evolved accordingly. We have no intention of presenting what an ultimate “good life” should look like nor are we capable to. We are simply unveiling the mysterious pieces of “good life” or Eudaimonia in the future bit by bit, which appear vaguely only in our imagination and intuition, once in a while. It is your role to create a picture of your own “good life” by collecting such bits and pieces. We are willing to provide you with the platform where you can link together and patch up the fragments. Upon the question of what a “good life” is, there cannot be a more knowledgeable or less so person. We hereupon daringly invite you all to convene in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to bring each other’s mind and heart together.

Directorial Collec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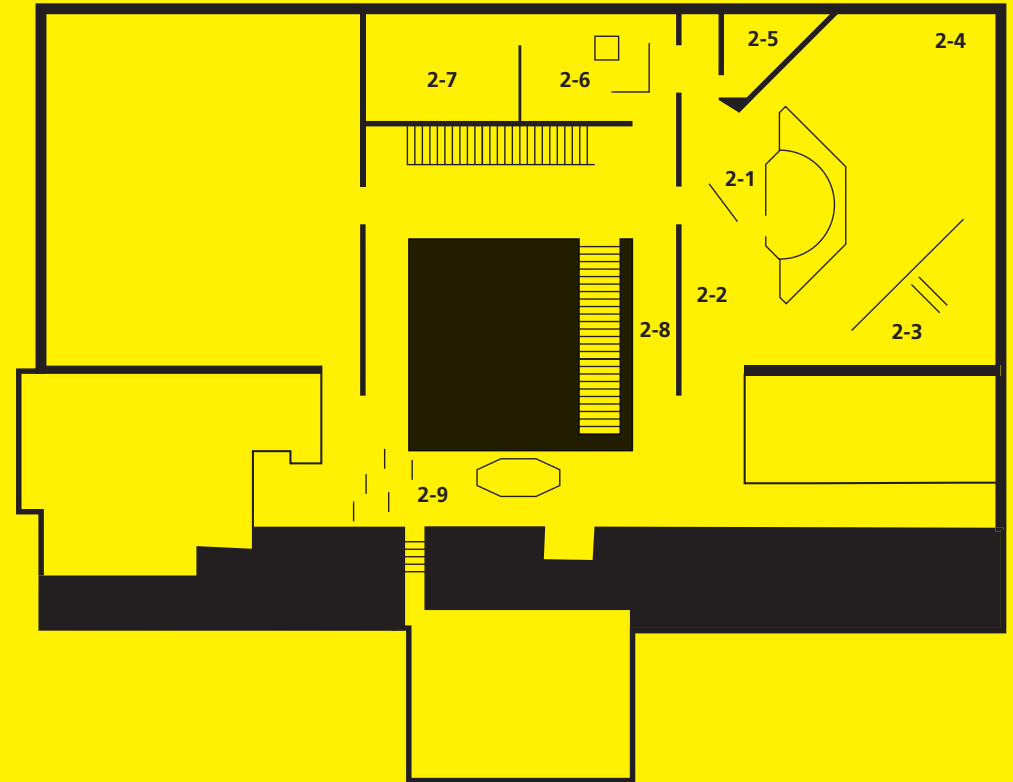
(1F)



권병준	1-1	ByungJun Kwon
kook+	1-2	kook+
김상돈	1-3	Sangdon Kim
이소영	1-4	Soyung Lee
민세희	1-5	Sey Min
진 코건	1-5-1	Gene Kogan
마이크 타이카	1-5-2	Mike Tyka
신승백 김용훈	1-5-3	Shinseungback Kimyonghun
오스카 샤프 & 로스 구드윈	1-5-4	Oscar Sharp & Ross Goodwin
데이비드 하	1-5-5	David Ha
마리오 클링게만	1-5-6	Mario Klingemann
스캇 켈리 & 벤 폴킹호른	1-5-7	Scott Kelly & Ben Polkinghorne
로렌 맥카시	1-5-8	Lauren McCarthy
루바 엘리엇	1-5-9	Luba Elliott
모두의연구소 (김승일)	1-5-10	MODULABS (Seungil Kim)
정지훈	1-5-11	Jihoon Jeong
최승준	1-5-12	Seung Joon Cho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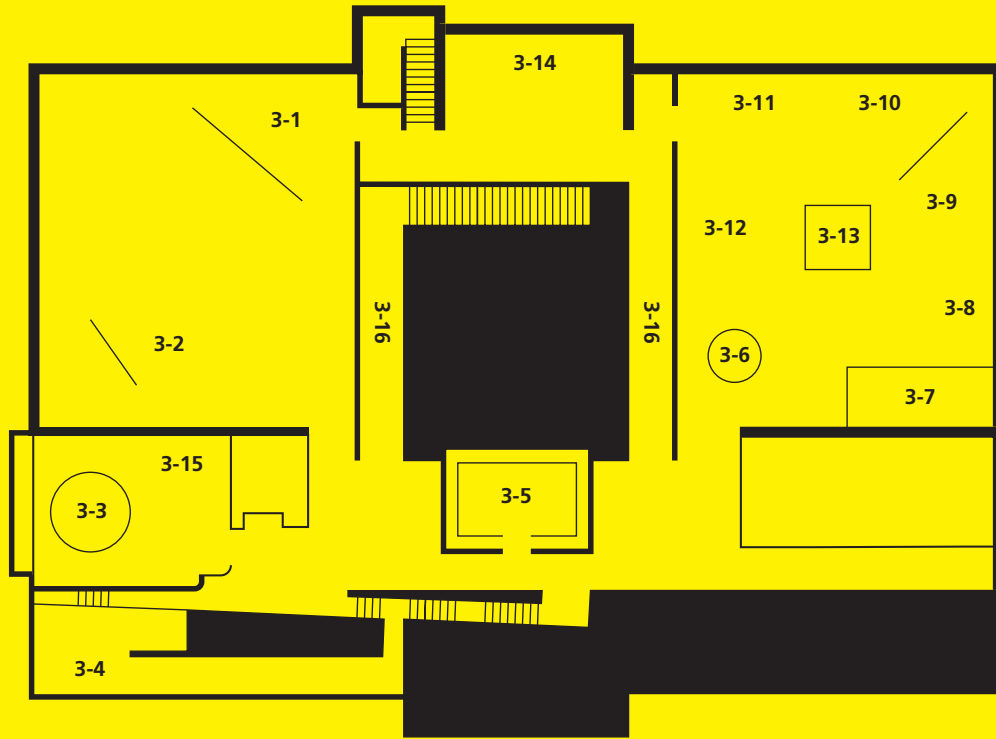
정기현	1-6	Ki-Hyun Jung
김현탁	1-7	Hyun Tak Kim
은정태	1-8	Jungtae Eun
장애여성공감 극단 〈춤추는 허리〉	1-9	Women with Disabilities Empathy, Disable Women's Theatre Group 〈Dancing Waist〉
팩토리 콜렉티브	1-10	factory collective
정재철	1-11	Jeoung Jae Choul
리슨투더시티	1-12	Listen to the City
허윤경	1-13	Yunkyung Hur
노경애	1-14-1	Kyung Ae RO
고연옥 & 잣 프로젝트	1-14-2	Yeon Ock Ko and JAT Project
박형준	1-14-3	Hyeng Joon Park
케이트 라워스	1-14-4	Kate Raworth
미셸 보웬스	1-14-5	Michel Bauwens
리처드 윌킨슨	1-14-6	Richard G. Wilkinson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1-14-7	Greenpeace East Asia Seoul Office
이그니토	1-14-8	Ignito

(2F)



인민의 아카이브	2-1	Archive of the People
언매핑 유라시아	2-2	Unmapping Eurasia
안건형	2-3	Kearn-Hyung Ahn
보물섬 콜렉티브	2-4	Treasure Island Collective
류한길	2-5	Ryu Hankil
양아치	2-6	Yangachi
믹스라이스	2-7	mixrice
구민자	2-8	Minja Gu
김월식+	2-9	Wol Sik KIM+
무늬만 커뮤니티		Seems Like Community

(3F)



탁영환 · 이경남	3-1	Tak Young Hwan · Lee Kyung Nam	신도시	3-5	seendosi
배남우	3-2	Namwoo Bae	디렉 플라이쉬만	3-6	Dirk Fleischmann
최성일 · 리케 글라저	3-2-1	Seongil Choi · Rike Glaser	미팅룸	3-7	meetingroom
에바/프랑코 마테스	3-2-2	Eva and Franco Mattes	싸워드	3-8	SEAWEED
제레미 베일리	3-2-3	Jeremy Bailey	윤원화, 윤지원	3-9	Wonhwa Yoon, Jeewon Yoon
아람 바톨, 나자 부텐도르프	3-2-4	Aram Bartholl, Nadja Buttendorf	디스플레이 디스트리뷰트 (쿤치, 리드인 공동 편집)	3-10	Display Distribute (co-edited with Kunci and Read-in)
에디 바겐넥트	3-2-5	Addie Wagenknecht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 무중력지대 양천	3-11	Welfare State Youth Network · Youthzone Yangcheon
프로젝트 코버	3-2-6	Project KOVR		3-12	Critical Art Ensemble (CAE)
에드 브라운	3-2-7	Ed Brown	크리티컬 아트 앙상블	3-13	Dušan Barok and Monoskop
댄 첸	3-2-8	Dan Chen	두산 바록과 모노스콥	3-14	Adbusters Media Foundation
샘 라빈	3-2-9	Sam Lavigne	에드버스터즈 미디어 재단	3-15	Soyung Lee
엘리사 지아디나 파파	3-2-10	Elisa Giardina Papa	이소영	3-16	Minja Gu
아담 하비	3-2-11	Adam Harvey			
스털링 크리스핀	3-2-12	Sterling Crispin			
최하늘	3-3	Choi Haneyl			
000간	3-4	Zero Space			

(^존인)
(^살Eu)
(^존Zên)

(^아직)
(^아직)
(^아직) (Not Yet
아니다)
(이미
Realized)

(But 보이다) A
Visible) I
r
e
a
d
y

1971년 생. 서울에서 활동.

〈오묘한 진리의 숲 2〉, 2018, 위치인식시스템(Local positioning system), 헤드폰 8개, 가변 크기, SFX Seoul 20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에디션

권병준은 네덜란드 왕립음악원에서 소리학(Sonology)과 예술공학(Art and Science)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의 실험적 전자악기 연구기관 스타임(STEIM)에서 하드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였으며, 아시아문화전당 인터랙션 사운드랩 펠로우를 거쳐 현재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그룹전과 공연은 〈혁명엔 TV에 방송되지 않는다〉(아르코미술관, 서울, 2017), 〈불협화음의 하모니〉(대만 관두 미술관, 타이페이, 2016), 〈순간의 밤 2016〉(랑슈극장, 마르세이유, 2016) 등이 있다.

〈오묘한 진리의 숲2〉는 위치인식시스템(LPS)을 이용하여 장소 특정적 사운드를 헤드폰을 통해 관람객에게 전달한다. 관람객은 미술관 주변의 광장과 정원을 헤드폰을 쓰고 거닐며 공간에 조응하여 배치된 소리와 함께 휴식과 사색의 시간을 갖는다. 헤드폰에서는 녹음된 자연의 소리, 음악과 공연 상황, 디자인된 음향과 더불어 난민과 이주민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고향의 노래와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이렇게 각기 다른 기억과 삶의 이야기를 담은 사운드는 미술관 광장과 그 주변 곳곳에서 헤드폰을 통해 울려 퍼지고, 비워져 있는 공간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채워질 수 있게 한다.

b. 1971. Lives and works in Seoul.

Forest of Subtle Truth 2, 2018. Local positioning system, 8 headphones. Dimensions variable. SFX Seoul 2017, Arts Council Korea,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Edition

ByungJun Kwon majored in Sonology and Art and Science at the Royal Conservatoire in the Hague, Netherlands and worked at the STEIM (Studio for Electro-Instrumental Music) as a hardware engineer. He was a fellow of the Interaction Sound Lab of the Asia Culture Center and is currently an adjunct professor at the Seo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Media. Selected group exhibitions and performances include *The Revolution Will Not Be Televised* (Arts Council Korea, Seoul, 2017), *Discordant Harmony* (Kuandu Museum of Fine Arts, Taipei, 2016), and *La Nuit de l'Instant 2016* (Théâtre de Lenche, Marseille, 2016).

Forest of Subtle Truth 2 conveys site-specific sounds to the audience through headphones by using the LPS (Local Positioning System). Audiences wear the headphones and stroll around the outdoor area of the museum and the plaza. While interacting with the sounds arranged throughout the outdoor spaces, they can experience a moment of rest and meditation. At the same time, the audience can hear recorded sounds of nature, music, live concerts, and sound arrangements along with old songs and the stories of refugees and immigrants through the headphones. The sounds and stories of such different memories and lives resound in the museum plaza and surrounding areas, filling the empty spaces with the stories of many people.



강봉형 사진

Photo by Kang BongHyoung

2017년 결성. 서울에서 활동.

〈영토해킹 *Hacking territory*〉, 2018, 스튜디오형 공간 설치, 22 × 5 × 6 m,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kook+는 물리적 영토와 (국가와 같은) 운영 시스템, 도시의 공간 조건에 대해 다른 상상과 실천을 모색해 보자는 작가 박찬국의 제안으로 2017년 12월부터 모임을 갖기 시작한 임시 그룹이다. 동대문옥상낙원 DRP를 비롯하여 건축가, IT회사 운영자, 작가, 기획자, 게임메이커, 블록체인 연구자가 참여한다. 강제력이 없는 비고정 멤버구성이며 필요에 따라 메이커 그룹과 자산운영 컨설턴트가 결합하고 있다.

〈영토해킹 *Hacking territory*〉는 쇠퇴하는 도시라는 기반 위에서 기존의 국가 정책이나 시스템에 구매 받지 않고 새로운 영토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소말이 진행되고 있는 두 곳의 지방 소도시 리서치와 투어, 빈집의 장기 임대와 구매 등의 계획을 갖고 있다. 참가자들은 스스로의 노력과 연구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황에 맞게 개별화된 실험실을 구성하고 작동시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유동적이며 노마딕한 삶의 조건을 반영하는 유연한 커뮤니티를 구성하고자 한다. 비엔날레에 보여지는 것은 프로젝트의 과정을 구성하는 또 다른 과정이며, 스튜디오, 투어, 랩, 설계사무소, 투자 오피스, 인포센터 등을 겸하게 된다.

Founded in 2017. Lives and works in Seoul.

Hacking territory, 2018. Installation. 22 × 5 × 6 m.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kook+ is a temporary collective group that was organized in December 2017 under the initiative of an artist named Chankook Park with the intention of exploring the members' different imaginaries and thoughts about physical territories (e.g. nation), the operational system of such territories, and other conditions of the urban space, and putting those ideas into practice. kook+ is comprised of the DRP (Dongdaemun Rooftop Paradise), architects, managers of IT companies, artists, curators, game makers (programmers), and researchers of blockchain. The membership is so flexible that groups within maker culture or asset management consultants collaborate with the group when necessary.

The purpose of the project titled *Hacking territory* is to create a new notion of territory on the conditions of a declining urban space, free from any existing national urban policies or operational systems. The specific practices within this project include the research and tour of two small cities of provinces that are in the process of decaying and the long-term rent or purchasing of vacant unused houses. The participants pursue research and implement other practices independently; they set up and operate individual labs that fit the research situations in order to establish a flexible community that reflects fluid and nomadic living conditions. The presentation at the biennale encapsulates an additional aspect of the entire project. kook+ provides the audience with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ir project in progress by representing the studio processes, the tour programs, the lab, the architecture design studio, the investment office, and the information center.



〈이렇게 멋지고 놀기 좋은 땅에서 사람들이 적어도 천 년 동안 일만 열심히 하다가 나갔다. 그럼 이제부터 여기 남아 있는 못 생명들과 10년쯤 놀아도 괜찮겠지. 앗싸 ㅎ〉, 작가 제공

On this amazing land, a hot spot to chill out, people have only worked their butts off and gone by at least for 1,000 years. So I guess from now on, I can enjoy myself with all these remaining living beings for about 10 years to come. Isn't this great?. Courtesy of the artist

1973년 생. 서울에서 활동.

〈바다도 없이〉, 2018, 설치, 혼합 매체, 가변 크기,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김상돈은 베를린 국립예술대학교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순수미술 마이스터실러 과정을 마쳤다. 〈약수〉(아트선재센터, 2012), 부산비엔날레 〈배움의 정원〉(부산시립미술관, 2012) 등의 전시에 참여했으며, 제3회 두산연강예술상(두산연강재단, 2012), 제12회 에르메스재단 미술상(에르메스재단, 2011) 등을 수상했다.

김상돈은 조각, 회화,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시공간을 달리하는 요소들의 중첩과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감을 조형적으로 시각화하는 작업을 해왔다. 이번 비엔날레에서 작가는 예술가로서 '좋은 삶'의 주제의식을 이해하는 태도를 〈바다도 없이〉를 통해 보여준다. 서소문본관의 로비에 놓인 작품은 과거-현재-미래의 연속적인 시간대에 놓인 모두가 현실 속에서 과거와 미래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예술적 상상력을 공유하도록 한다. 김상돈의 신작 〈바다도 없이〉는 파편적인 인간 삶이 아닌 인간 삶의 본질적인 부분을 함께 논의하는 지표로 관람자를 맞이하고 배울 것이다.

b. 1973. Lives and works in Seoul.

Without the Sea, 2018. Installation,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Sangdon Kim received a BFA and completed the Meisterschüler Program in the graduate school of the Universität der Künste Berlin. Selected group exhibitions include *Healing Water* (Art Sonje Center, 2012) and Busan Biennale (*Garden of Learning*, Busan Museum of Art, 2012). He was awarded the DOOSAN Artist Award (DOOSAN Yonkang Foundation, 2012) and the 12th Hermès Foundation Missulsang (Hermès Foundation, 2011).

Kim crosses the boundaries that divide diverse media, such as sculpture, painting, installation, and performance, to represent the confluences of different elements in different times and spaces and the tension created between these conflicts visually. In this biennale, the artist illustrates the way people understand the concept of a "good life" through the work titled *Without the Sea*. The work displayed in the lobby of the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encourages the audience, who is located in the serial time of the past-present-future, to share artistic imaginations about the past and the future. Sangdon Kim's new work *Without the Sea* functions as a platform upon which we can discuss the essence of human lives, as opposed to their fragmentary elements. Undertaking this role of symbolic measurement, the work at the entrance of the museum meets the audiences both inside and outside of the biennial.



〈바다도 없이〉, 2018, 작가 제공
Without the Sea, 2018.
Courtesy of the artist

1974년 생. 서울에서 활동.

〈구즈베리〉, 2017–2018, 2채널 HD비디오, 컬러,
사운드, 13분 33초,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제작 지원
〈너의영역〉, 2014/2018, 싱글 채널 HD비디오,
컬러, 39분

이소영은 한 지역의 문화와 생활방식이 개인의 역사와 갈등, 감수성과 관계하는 단면에 관심을 두고 작업한다. 2011년부터 리서치를 기반으로 진행했던 중앙아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 프로젝트 〈THE FUTURE IS COMING FROM ALL DIRECTIONS〉 이후, 이주와 정주, 상주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개인이 경험하는 일상의 딜레마에서 찾고자 한다. 개인전 〈Doubtful Nest〉(보안여관, 서울, 2015)와 〈Displaced〉(Videotage, 홍콩, 2016)는 이를 주제로 다루었다.

〈구즈베리〉의 1편 〈털 없는 이들의 나라〉는 '털 없는 이들의 나라'라는 가상의 시공간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자신의 몸에 털 한 가닥이 돌아나자 스스로가 인류의 퇴화를 상징한다고 믿는 우화 같은 내용을 토대로 동물, 인간, 진화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다룬다. 2편 〈포식자〉는 수평적으로 공생하기 어려운 관계로 얽힌 존재들의 이야기이다.

길거리를 배회하는 개들이 있다. 사람이 키우지 않은 개들은 순종적이지도 공격적이지도 않다. 도시 내 한쪽 코너가 주거지가 되고, 두어 블록 정도를 맴돌며 생활권을 유지한다. 자유로워 보이지만 이 영역을 쉽게 벗어나지 않는다. 사람이 도시를 장악하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게 되고 나머지 동식물들은 그 안에서 생존해야 한다. 〈너의영역〉은 인간이 동물, 혹은 사물과 함께하는 것, 공간을 공유하는 것, 서로 위험이 되지 않는 것,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한다. 〈너의영역〉은 서울로미디어캔버스에도 전시된다.

b. 1974. Lives and works in Seoul.

Gooseberry, 2017–2018. 2 channel HD video,
color, sound. 13 min. 33 sec. With the support of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Your Territory, 2014/2018. Single channel HD video,
color. 39 min.

Soyung Lee is interested in the ways in which a regional culture and its way of living relate to individuals' history, internal conflicts, and sensibilities. Since 2011, she has worked on a research-based project titled *THE FUTURE IS COMING FROM ALL DIRECTIONS*, a Eurasia Korean Diaspora project. Through this work, the artist attempts to explore the issues of immigration, settlement, and residence in the daily dilemmas that individuals experience. Her solo exhibitions *Doubtful Nest* (BOAN1942, Seoul, 2015) and *Displaced* (Videotage, Hong Kong, 2016) have dealt with this subject.

In *Gooseberry*, the first chapter, *A Nation of the Hairless* is the story of a person who was convinced of the atrophy of civilization once he saw the presence of a single hair growing from his body. Based on this fable-like story, the work explores issues that involve the relationships between animals, human beings, and evolution. The second chapter, *Edibles* is a story of beings who find themselves interlaced in a relationship that does not allow horizontal coexistence.

There are street dogs that wander around the city. Lacking an owner, these dogs are neither obedient nor aggressive. For them, one corner of the city is their residence and they maintain their living realm by circling around a couple of blocks. They look free but hardly leave these boundaries. However, once human beings conquer a city, all other life forms seem to exist for human beings; plants and animals have to survive within the particular boundaries created by human lives. *Your Territory* considers the co-existence of human beings with animals or with objects through the communal use of spaces, not becoming threats to other species, and symbiotic living. *Your Territory* is also exhibited at SEOULLO MEDIA CANVAS.



〈털 없는 이들의 나라〉, 비디오 스틸, 작가 제공
A Nation of the Hairless.
Video still. Courtesy of the artist

1975년 생. 서울에서 활동.

데이터 시각화 아티스트인 민세희는 데이터를 통해 우리 자신과 사회를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에너지 소모량에 따라 변하는 건축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인식, 그리고 기계 학습을 통해 우리를 반추하고 있는 인공지능 환경을 시각화함으로써 기술환경에서 보여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려 한다. 작가의 작업은 테드 글로벌 2012(TED global 2012), 테드 2011(TED 2011), 리프트 아시아(Lift Asia), 국립현대미술관 등에서 소개 되었다.

〈모두의 인공지능, A.I, *entirely on us*〉프로젝트, 2018, 참여작가 13인 공동 작업,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모두의”란 어떤 범위에 드는 대상의 제외함이 없는 전체를 말한다.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과 함께 한다. 영화를 추천하고, 대화를 나누며, 지금까지 경험했던 기술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이 기계 환경은 우리 생활 곳곳에 영향을 주기도, 받기도, 그렇게 드러나기도, 가려지기도 하면서 모두에게 친절한 도움이 되고자 진화하고 있지만 과연 그 ‘모두’는 누구인가. 이 기계환경이 과연 ‘모두를 위한’ 기술이 될 수 있는 것일까. 〈모두의 인공지능, A.I, *entirely on us*〉는 인공지능의 생활적 편리함에 익숙해지기 전에,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다. 인공지능(A.I)이 인공(Artificial)이 아닌 증강된(Augmented) 지능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과연 누구의 지능이 증강 되고 있는 것인가. 어쩌면 특정한 사람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기술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서 말하는 ‘모두’의 범위에 나는 속하는가. 나의 지능은 인공지능과 함께 증강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모두’는 누구인가. 이 전시에 초대된 사람들은 그 ‘모두’에 속하는 사람들인가. ‘모두는’ 도달할 수 없는 이상적 지점이며 그 누구도 만족 시킬 수 없는 불완전한 조건이다. 인공지능은 과연 ‘모두의’가 될 수 있는가.



b. 1975. Lives and works in Seoul.

Sey Min, an artist who is specialized in the visualization of data, attempts to understand our own selves and our society from diverse perspectives, particularly through data. Her works are an effort to recognize the aspect of our existence in a technology-driven environment by way of several visualization projects: the visualization of architecture that changes its form depending on the amount of energy consumption, the visualization of the public's awareness of certain subjects based on publicly shared data, and the visualization of the environ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obtained by mechanical training) through which we reflect ourselves. Min's works have been introduced in TED global 2012, TED 2011, Lift Asia, and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A.I, *entirely on us*, 2018. Collaborative work of 13 participating artists.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Artificial Intelligence is a part of our lives. A.I speakers that are able to suggest movies don't surprise me anymore, and recommendation systems are getting so smart that they catch my preferences quicker than ever. As always, our lives are being influenced by and are influencing to the advanced technologies. As always, we hope this most radical technology, A.I, that benefits our lives, to be entirely on us. However, what we are experiencing now is slightly different from our expectations. Instead of sensing mind blowing moments of A.I every single day, we now face an imbalance system: lack of minority groups data, diversity issues, and unbalanced accessibility. Some people say that A.I stands for not only Artificial Intelligence, but also for Augmented Intelligence. In this point of view, who's intelligence can be augmented by A.I? Can this technology enhance the abilities of all of us? If not, who can be in the group of "all"? Are you one of the "all"? This project, A.I, *entirely on us* reveals questions, problems, and issues in the age of A.I. that came up to our minds. Entirely beneficial state might be ideal. It cannot turn into a reality under any circumstances, and it cannot be achieved in any society. Can A.I be for "all"? Is it entirely on us?

A.I, *entirely on us*, 2018. Data visualization. Web-based artwork.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A.I, *entirely on us*, visualizes stories about the AI environment of the present, which the participating artists of A.I, *entirely on us* project, researchers, and panelists had explored. Before commencing work on the art, the artist held discussions with the participants on the AI environment, diversity, fairness, the potential expansion of AI and so forth, and analyzed the ideas that emerged from the conversations before finally visualizing the whole processes for the audiences to experience them visually.

1985년 생. 베를린과 뉴욕에서 활동.

〈신경 합성〉, 2017, 비디오, 픽셀에 그라디언트,
2분 40초, 작가 제공

진 코건은 생성 구조, 컴퓨터 과학, 창조적 작업과 자기 표현을 위한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깊은 작가 겸 프로그래머이다. 코건은 수 많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하였고, 프로그래밍과 예술이 교차하는 지점을 주제로 하는 워크숍을 이끌고 강연을 해왔다. 그는 또한 작가, 활동가, 일반인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계 학습에 관한 무료 학습서인 ml4a 배포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했고, 각 주제들에 관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디오 강연, 글쓰기, 교육을 정기적으로 해오고 있다.

이 비디오는 ‘딥 드림(deep dream)’이라고 잘 알려진 기술을 확장하고 탐색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미 학습된 컨볼루션 네트워크(CNN: 합성곱 신경망) 구조에서 원하는 활성화 상태(activation state)에서 최적화 되고 있는 이미지 픽셀들을 보여주고 있다. 피드백으로 작동하는 딥 드림 비디오 역학을 주로 실험하는 것으로, 각 프레임은 이전 프레임에서 시작된다. 다채널 픽셀 그라디언트(변화도)를 동기화(마스킹)하고 미리 결정된 마스킹 패턴들과 믹싱함과 동시에 인풋 캔버스를 왜곡함으로써 새로운 미를 창조할 수 있다. 코건의 작업 방법들은 주로 마이크 타이카가 구글의 초기 딥 드림 프로젝트에서 최초로 실험했던 피드백, 캔버스 왜곡, 다채널의 그라디언트 믹싱 등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 작업의 생성 워크플로우는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의 작업은 더 일반화된 캔버스 왜곡 기능과 오리지널 이미지들을 마스킹하는 방법의 향상을 시도할 생각이다.

b. 1985. Lives and works in Berlin and New York.

Neural synthesis, 2017. Video, gradients on pixels.
2 min. 40 sec. Courtesy of the artist

Gene Kogan is an artist and a programmer who is interested in generative systems, computer science, and software for creativity and self-expression. He is a collaborator within numerous open-source software projects, and gives workshops and lectures on topics at the intersection of code and art. Gene initiated ml4a, a free book about machine learning for artists, activists, and citizen scientists, and regularly publishes video lectures, writings, and tutorials to facilitate a greater public understanding of the subject.

This video explores and expands upon the technique popularly known as “deep dream,” an iterative process for optimizing the pixels of an image so as to obtain a desired activation state in a trained convolutional network. It primarily experiments with the dynamics of feedback-generated deep dream videos, wherein each frame is initialized by the previous one. By gating (or “masking”) the pixel gradients of multiple channels and mixing them via pre-determined masking patterns, while simultaneously distorting the input canvas, one can achieve novel aesthetics. A number of strategies are directly inspired by the initial work of Google’s Deep Dream implementation, particularly the work of Mike Tyka who first experimented with feedback, canvas distortion (zooming), and mixing gradients of multiple channels. The trained network used is Google’s Inceptionism network. The workflow for generating these is under continuous development, and future improvements include a more generalized canvas distortion function and improved masking from source images.



작가 제공
Courtesy of the
artist

1982년 생. 시애틀에서 활동.

〈비현실 초상화〉, 2017,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
이미지 프린트, 가변 크기, 작가 제공
〈우리, 그리고 그들〉 2018, 프린터,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 의자, 가변 크기,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마이크 타이카는 브리스톨 대학에서 생화학 및 생명공학을 전공한 후 워싱턴 대학에서 단백질 분자의 구조와 다이내믹을 연구해왔다. 2009년 타이카와 미술가 그룹이 팀을 이루어 그루빅의 큐브(Groovik’s Cube)라고 하는 35피트 높이의 기능적이면서 다용도로 활용되는 루빅 큐브 조각을 만들었다. 그 후로 타이카는 단백질 분자나 DNA와 같은 다양한 생물 분자 형태의 금속, 유리 조각들을 제작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딥 드림 외 생성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정적인 작업과 동적인 작업을 통해 인공 신경 네트워크의 창조적인 가능성과 함의를 탐구하고 있다.



〈비현실 초상화〉는 신경 네트워크를 훈련시키는 방식으로 인간 얼굴에 내재하는 공간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초상을 상상하고 묘사한다. 이를 위해 플리커에서 수천 점의 얼굴 사진을 수집하여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라고 하는 일종의 기계-학습 프로그램에 입력시켰다. 생성적 적대 신경망은 적대적 게임을 플레이 하는 두 개의 신경 네트워크로 작동한다. 그 중 하나는 점차 설득력 있는 아웃풋을 생성하려는 ‘생성기’(the Generator)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사진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사진을 구분하는 ‘식별기’(the Discriminator)이다.

〈우리, 그리고 그들〉은 초기작 〈비현실 초상화〉를 신경망 텍스트 생성 및 키네틱 조각과 결합한 다중 모드(multi-modal) 인스톨레이션이다. 이 작업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봇(bot: 챗봇, 트윗봇 같은)으로 판명된 계정에 최근에 올라온 20만 개의 트윗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이 트위터 계정들은 〈비현실 초상화〉에서 보여진 상상 속 인물들의 계정이며, AI에 의해서 생성되는 정치적 트윗을 기계-학습으로 작동되는 20개의 프린터를 통해 끊임없이 분출해낸다. 커튼처럼 아래로 흘러내리는 프린터의 종이와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두 개의 의자가 중앙 공간을 구성하고 있고, 이를 둘러싸고 기계-생성 정치적 프로파간다가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는 대화와 관계적 연결이 만들어진다. 〈우리, 그리고 그들〉은 관람객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둘러싼 기계와의 관계를 다시금 면밀히 살펴보고 상호간의 진정한 관계를 모색하도록 한다.

〈비현실 초상화〉, 작가 제공
Portraits of Imaginary People.
Courtesy of the artist

b. 1982. Lives and works in Seattle.

Portraits of Imaginary People, 2017. Generative Neural Networks, image printed. Dimension variable. Courtesy of the artist

Us and Them, 2018. Printers, Generative Neural Networks, chairs. Dimensions variable.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Mike Tyka studied Biochemistry and Bio-technology at the University of Bristol and went on to work as a research fellow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studying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protein molecules. In 2009, Mike and a team of artists created Groovik's Cube, a 35 feet tall, functional, multi-player Rubik's cube sculpture. Since then, he has been creating metal and glass sculptures of various biomolecules, such as protein molecules and DNA. More recently, Mike's work has explored the creative possibilities and implications of artificial neural networks, using Deep Dream and other generative machine learning algorithms to create static and kinetic art.

Portraits of Imaginary People explores the latent space of human faces by training a neural network to imagine and then depict portraits of people who do not exist. To do so, many thousands of photographs of faces taken from Flickr were fed to a type of machine-learning program called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 GANs work by using two neural networks that play an adversarial game: one (the "Generator") tries to generate an increasingly convincing output, while the second (the "Discriminator") tries to learn to distinguish real photos from the artificially generated ones.

Us and Them is a multi-modal installation that combines the earlier *Portraits of Imaginary people* work with neural-net text generation and kinetic sculpture. Trained on a recently-released set of 200,000 tweets from accounts identified as bots after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this piece features 20 machine-learning-driven printers which endlessly spew AI-generated political tweets by imaginary, generated people. The descending curtain of printer paper creates a central space with a pair of chairs for two people to sit, converse and connect, despite the torrent of machine-generated political propaganda that surrounds them. *Us and Them* invites the viewer to reexamine their relationship with the machine we live inside and to seek true connection with one another.

신승백 1979년 생. 김용훈 1980년 생. 서울에서 활동.

〈넌페이셜 포트레이트〉, 2018,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카메라, 컴퓨터, 모니터, 캔버스, 스마트폰, 테이블, 가변 설치,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신승백 김용훈은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 그룹이다. 컴퓨터 과학을 전공한 신승백과 시각예술을 공부한 김용훈이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만나, 2012년 졸업 후 팀을 결성하고 현재까지 함께 작업을 해오고 있다. 두 사람은 협업을 통해 기술이 인간 삶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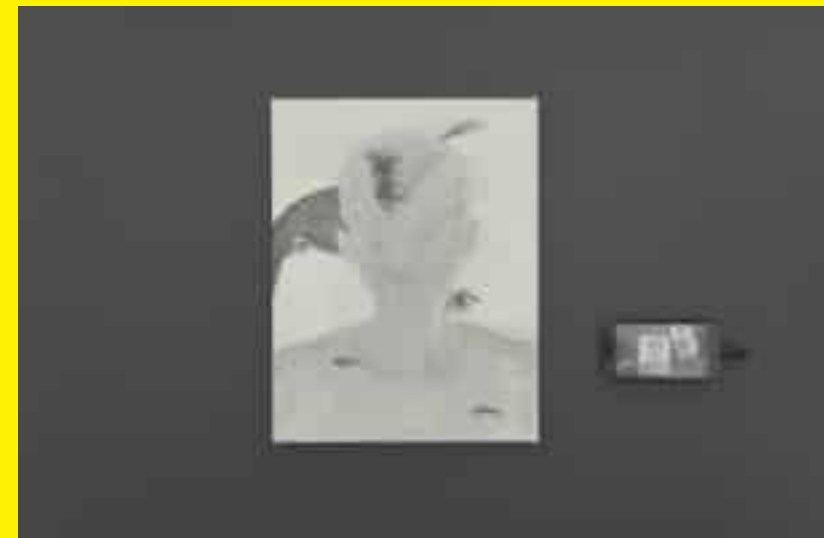
화가들을 초대하여 한 인물의 초상화를 그리게 하였다. 화가들은 다음의 조건을 따라야 했다. "인공지능은 완성된 초상화에서 얼굴을 찾을 수 없어야 한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카메라는 그림을 지켜보고 모니터에 얼굴 검출 여부를 표시한다. 화가는 이를 참고로 인공지능에 의해 얼굴인식이 되지 않는 초상화를 그려 나간다. 이것은 쉽지 않다. 인물과 가깝게 그리면 쉽게 얼굴인식이 될 것이고, 얼굴인식이 되지 않게 할수록 그림은 대상에서 멀어져 초상화라고 하기 어려워질 테니까. 인공지능은 얼굴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인간은 그 대상이라고 여길 수 있는, 인간만의 시각적 영역을 찾아야 한다. 화가들이 저마다의 방법으로 완성한 초상화와 그 과정이 기록된 영상이 함께 전시된다.

Shin Seung Back b. 1979. Kim Yong Hun b. 1980. Live and work in Seoul.

Nonfacial Portrait, 2018. Face detection software, camera, computer, monitor, canvas, smartphone, table. Variable dimensions.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Shinseungback Kimyonghun is an artist group based in Seoul. Shin Seung Back studied Computer Science and Kim Yong Hun completed a Bachelor of Visual Arts. They met while studying at the Graduate School of Culture Technology in the KAIST and after completing Masters in Science and Engineering, they started to work as Shinseungback Kimyonghun in 2012. Their collaborative practice explores impact of technology.

In this project, they invited several painters and asked them to paint portraits of a person. The painters had to follow one rule: "AI should not be able to detect a face in the completed portrait." While painters were working, cameras watched the canvases to determine if AI could find any face in the paintings and the results were shown on the monitors. The painters would refer the results and make portraits which AI could not find a face from. This is tricky. If a portrait is made to resemble the human subject, the AI would easily see a face. And if a portrait is rendered in a form that is inordinately far from the subject, it would fail to be a portrait. In this exhibition, the artists present diverse forms of portraits completed in different approaches along with videos of the painting processes.



작가 제공
Courtesy of the
artist

오스카 샤프 1979년 생, 로스 구드윈 1986년 생,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

〈선스프링〉, 2016, 비디오, 9분, 작가 제공

오스카 샤프는 영국 영화 텔레비전 예술 아카데미(BAFTA) 어워드에 노미네이트된 영국 출신의 영화제작자이다. 그는 뉴욕대에서 영화를 전공했다. 같은 대학에서 시와 미디어 아트를 전공한 로스 구드윈과 팀을 결성하여, 인공지능이 작성한 대본으로 만든 〈선스프링〉으로, 2016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SF 48시간 영화제'(Sci-Fi-London film festival's 48hr Challenge) 10위 안에 들었다.

〈선스프링〉은 '벤자민(Benjamin)'이라는 인공지능이 쓴 대본으로 만든 9분짜리 단편 영화이다. 오스카 샤프와 로스 구드윈은 2016년 초, 인공지능 '벤자민'을 개발했다. 벤자민은 장단기 기억 순환신경망(LSTM-RNN)이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대본을 쓰는데, 이 알고리즘은 딥러닝 기술의 한 부분이다. 벤자민에게 여러 SF 드라마, SF 애니메이션 등의 작품 대본을 학습시켰고, 딥러닝 학습의 결과 〈선스프링〉의 대본을 만들어냈다. 벤자민이 쓴 대본은 대중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든 문장들이 많았는데, 감독인 오스카 샤프는 이를 어두운 미래 세계에서 일어날 살인과 로맨스로 이해하며 영화를 제작했다. 그리고 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 세 명은 대본을 읽고 감정과 몸짓을 떠올려 연기했다.

Oscar Sharp b. 1979. Ross Goodwin b. 1986.
Live and work in LA.

Sunspring, 2016. Video. 9 min. Courtesy of
the artist

Oscar Sharp is a British film director who was nominated for the British Academy of Film and Television Arts. After studying Film & Media Studies at New York University (NYU), Sharp teamed up with Ross Goodwin, who studied at NYU's Interactive Telecommunications Program (ITP), where he focused on creative ap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duo produced *Sunspring* based on a screenplay written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film was selected as one of the top ten films in the Sci-Fi-London film festival's 48hr Challenge (2016).

Sunspring is a short nine-minute film based on a screenplay written by an AI that named itself "Benjamin," which Ross Goodwin developed in consultation with Oscar Sharp in early 2016. Benjamin writes film screenplays based on a LSTM-RNN (Long Short-term Memory-Recurrent Neural Network) statistical model, which is a type of deep learning algorithm. The duo taught Benjamin a diverse variety of screenplays in the science fiction genre. As a result of its training, Benjamin created the screenplay for *Sunspring*. The screenplay has many difficult or abstruse sentences that audiences have difficulty understanding. Sharp and the film's actors interpreted the text of the screenplay as a possible instance of a love triangle occurring in a dark future and represented it in their film. After reading the script, the film's three actors imbued the robot's words with meaning through their emotions, gestures, and movement.



〈선스프링〉 비디오
스틸, 작가 제공

Sunspring, Video
still. Courtesy of
the artist

1981년 생. 도쿄에서 활동.

〈기계에게 그림 가르치기〉, 2017, 디지털 인터랙티브
설치, 작가 제공

인공지능 연구소인 구글 브레인팀의 데이비드 하는 순환 신경망(RNN), 창조적 인공지능, 진화적 컴퓨팅(Evolutionary Computing)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하는 토론토 대학에서 공학 및 응용수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구글 연구원으로 일하기 전에는 골드만 삭스에서 매니징 디렉터로, 일본의 정액수익 무역거래 부문을 공동으로 운영했다.

우리는 일반적인 사물을 스케치할 수 있는 순환 신경망(RNN)을 통해 기계가 인간이 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추상적인 개념들을 일반화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손으로 그린 스케치로 채워진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우리가 만든 모델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각 스케치는 펜을 조정, 통제하는 일련의 모터 액션으로 재현된다. 다시 말해 펜을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언제 펜을 들고 언제 드로잉을 멈출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미술가의 창조적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학생들에게 드로잉을 가르치는 일까지, 다양한 응용력을 갖춘 모델을 만들어냈다.

b. 1981. Lives and works in Tokyo.

Teaching Machines to Draw, 2017. Digital
interactive installation. Courtesy of the artist

David is a Research Scientist at Google Brain.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Recurrent Neural Networks, Creative AI, and Evolutionary Computing. Prior to joining Google, He worked at Goldman Sachs as a Managing Director, where he co-ran the fixed-income trading business in Japan. He obtained undergraduate and graduate degrees in Engineering Science and Applied Math from the University of Toronto.

We present a generative recurrent neural network (sketch-rnn) capable of producing sketches of common objects, with the goal of training a machine to draw and generalize abstract concepts in a manner similar to humans. We train our model on a dataset of hand-drawn sketches, each represented as a sequence of motor actions controlling a pen: which direction to move, when to lift the pen up, and when to stop drawing. In doing so, we created a model that potentially has many applications, from assisting the creative process of an artist, to helping teach students how to draw.



작가 제공
Courtesy of the
artist

(마리오 클링게만) 1—5—6 (Mario Klingemann)

1970년 생. 뮌헨에서 활동.

〈언캐니 미러〉, 2018, 컴퓨터/카메라/스크린이 있는
리얼타임 설치, 작가 제공,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마리오 클링게만은 프로그래밍, 데이터, 기계 지능으로
작업하는 작가이다. 그는 창조성, 문화, 그리고 우리의
인식을 이해함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스스로 창작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이다.

이 인스톨레이션은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을 활용하여,
기계가 감지하는 생체 측정 표시를 통해 관찰자의
얼굴들을 재구성한다. 이 작업을 보고 참여하는 모든
관람자들은 기계를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데이터가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얼굴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지식(정보)을 향상시키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b. 1970. Lives and works in Munich.

Uncanny Mirror, 2018. Realtime installation with
computer/camera/screen. Courtesy of the artist.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Mario Klingemann is an artist working with code,
data and machine intelligence. He investigates
the possibilitie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offers
in understanding how creativity, culture and
their perception work. One of his long term goals
is to create fully autonomous artistic machines.

The installation uses generative adversarial
neural networks to reconstruct the faces of its
observers from their biometric face markers
that it detects. At the same time it attempts to
improve its knowledge about how human faces
look like by making every spectator part of its
training data.



작가 제공
Courtesy of the
artist

(스캇 켈리 & 벤 폴킹호른) 1—5—7 (Scott Kelly & Ben Polkinghorne)

스캇 켈리 1990년 생. 벤 폴킹호른 1987년 생.
런던에서 활동.

〈찰나의 표지판〉, 2018, 나무 보드에 디지털
프린트, 빌보드 3점, 1500 × 750 mm, 작가 제공,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뉴질랜드 출신의 스캇 켈리와 벤 폴킹호른은 런던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팀이다. 이들의 조각 작품은 공원에서,
꽃잎 형태의 프린트는 갤러리에서, 수상작 소시지들은
냉장칸에서, 트럼프 모양의 얼굴은 냉동칸에서,
깃발은 깃대에서, 화장실 낙서에 대한 분석이나 그 밖에
다른 프로젝트들은 온라인(scottandbenorbenand
scott.com)에서 만나볼 수 있다. 켈리와 폴킹호른의
프로젝트는 바이스(Vice), BBC, 가디언(The Guardian),
스미소니언(Smithsonian), 론리 플래닛(Lonely Planet),
디자인붐(Designboom), 허핑턴포스트(Huffington
Post), 패스트컴퍼니(Fast Company), 잇츠 나이스
댓(It's Nice That) 등의 매체와 메종 & 오브제(Maison
& Object)에 선보인 바 있다.

“이 물건을 구입한 사람은 …. (이러이러한) 다른 물건도
함께 구입했다”는 제안을 하는 추천 알고리즘은 온라인
세계 곳곳에 산재하며 우리가 보고, 구입하고, 좋아하는
것들까지 규정한다. 작가들은 이러한 알고리즘이 우리를
위한 우리의 결정을 본질적으로 만든다는 결과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해보기를 원했다.

Scott Kelly b. 1990. Ben Polkinghorne b. 1987.
Live and work in London.

Signs of the Times, 2018. Digital print on wood
board, 3 billboards. 1500 × 750 mm. Courtesy
of the artist.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Scott Kelly and Ben Polkinghorne are a New
Zealand born, London based creative duo. You'll
find petal imprints in galleries, sculptures in a park,
award-winning sausages in fridges, Trump ice-
cubes in freezers, flags on poles and their analysis
on bathroom graffiti—along with many other
projects—online at scottandbenorbenandscott.
com. Or featured in Vice, BBC, The Guardian,
Smithsonian, Lonely Planet, Designboom, The
Huffington Post, Fast Company, It's Nice That and
featured at Maison & Objet.

The “Customers who bought this item also bought...”
suggestions have become ubiquitous in the online
world, determining what we look at, buy and like.
As our lives increasingly move online, the artists
wanted people to think about the consequences of
an algorithm essentially making our decisions for us.



작가 제공
Courtesy of the
artist

1987년 생.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

로렌 맥카시는 로스앤젤레스와 브루클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로, 감시, 자동화, 네트워크 문화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를 작품의 주요 관심 주제로 다룬다. 맥카시는 프로세싱에서 파생되어 나온 자바스크립트 기반 오픈소스형 스케치 플랫폼인 p5.js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아르스 일렉트로니카(Ars Electronica), 컨플럭스 페스티벌(Conflux Festival), 시그라프(SIGGRAPH), 라크마(LACMA), 오나시스 문화 센터(Onassis Cultural Center), 암스테르담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닥랩(IDFA DocLab), 일본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등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맥카시는 MIT에서 컴퓨터공학 및 미술 디자인을 전공하고 UCLA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UCLA 디자인 미디어 아트 학과의 조교수로 재직중이고, 선댄스 인스티튜트(Sundance Institute)의 펠로우로 활동 중이다. 카네기멜론대학교(CMU) 창조 연구 스튜디오, 아이빔(Eyebcam), 오토데스크(Autodesk), 뉴욕대학교 인터랙티브 텔레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ITP),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퀸즈랜드 기술대학 트랜스미트3(QUT TRANSMIT³)에서 레지던스 아티스트로 연구 및 작업을 했다. <http://lauren-mccarthy.com>

b. 1987. Lives and works in LA.

Lauren McCarthy is an artist based in Los Angeles and Brooklyn whose work examines social relationships amidst surveillance, automation, and network culture. She is the creator of p5.js, an open source platform for sketching with software online. Lauren has exhibited at Ars Electronica, Conflux Festival, SIGGRAPH, LACMA, Onassis Cultural Center, IDFA DocLab, and the Japan Media Arts Festival. She holds an MFA from UCLA and a BS Computer Science and BS Art and Design from MIT. She is an Assistant Professor at UCLA Design Media Arts. She is a Sundance Institute Fellow and was previously a resident at CMU STUDIO for Creative Inquiry, Eyebcam, Autodesk, NYU ITP, and Ars Electronica / QUT TRANSMIT³. <http://lauren-mccarthy.com>

1988년 생. 런던에서 활동.

루바 엘리엇은 큐레이터, 작가, 연구자로서, 창조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가지는 의미를 전문적으로 다룬다. 현재는 폭넓은 대중을 대상으로 최근 창조적 인공지능의 발전에 관해 교육하고 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다. 포토그래퍼스 갤러리(Photographers' Gallery, 영국), MIT 테크놀로지 리뷰(MIT Technology Review, 미국), 레버홀 미래 지식 센터(Leverhulme Centre for the Future of Intelligence, 영국), 임팩트 페스티벌(Impakt Festival, 네덜란드) 등지에서 매월 미팅과 토크, 워크숍, 전시 등을 열고 있다. 엘리엇은 영국 인터랙티브 미디어 협회의 인공지능 싱크탱크의 멤버이고, 세계경제포럼, 시티 유니버시티 등의 기관에 자문을 맡고 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현대 언어, 하소-플래트너-인스티튜트(Hasso-Plattner-Institute)에서 디자인 사고를 전공했다.

b. 1988. Lives and works in London.

Luba Elliott is a curator, artist and researcher specialising in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creative industries. She is currently working to educate and engage the broader public about the latest developments in creative AI through monthly meetups, talks, workshops and exhibitions at venues including The Photographers' Gallery (UK), MIT Technology Review (US), Leverhulme Centre for the Future of Intelligence (UK) and Impakt Festival (Netherlands). She is part of the AI Think Tank of the British Interactive Media Association and has advised organisations including the World Economic Forum and City University. She studied Modern Languages at Cambridge University and Design Thinking at the Hasso-Plattner-Institute.

1975년 생. 서울에서 활동.

현재, 김승일 연구 소장이 대표로 있는 모두의연구소는 20대 대학생에서 40대 직장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연구 리더와 함께 각자 자유롭게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논문 발표·개발 등 각자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누구에게나 열린 연구소이다. 과학에 대한 꿈이 남아 있다면 누구든지 모두의연구소에 와서 원하는 연구실을 만들고, 재미있어 보이는 연구에 참여하면서 어릴 적 꿈에 가까워지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김승일 소장은 서울시 더깊은변화위원회 위원(2018–2021), 제주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2018–2020), (전) LG전자기술원 책임연구원을 역임했다.

b. 1975. Lives and works in Seoul

MODULABS, led by the director, Seungil Kim, is an open laboratory in which diverse age groups (mostly composed of people in their 20s and 40s) can take a subject of interest and initiate co-research led by a research leader and execute their own assignments, including publishing theses or exploring program development. Anyone with scientific curiosity can go to the MODULABS, create his/her own sub-lab and participate in the group research. By doing so, they build a space where they can come closer to the dream that they had been envisioning. The director Seungil Kim was a member of the Council of Deeper Change (Seoul Metropolitan City, 2018-2021) and the former senior researcher at the LG Electronics Advanced Research Institute, and currently is a committee member on the Council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of Jeju City (2018-2020).

1970년 생. 서울에서 활동.

정지훈은 한양대학교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비터비 스쿨 오브 엔지니어링에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일반의, 과학연구자, 저술가, 교수, 창업자, 엔젤 투자자 등 다양한 역할을 통해 기술과 사회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가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선임 강의 교수, 빅뱅 엔젤스의 매니징 파트너,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의 공동 설립자로서 파트너직을 맡고 있으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텔레콤, 네이버 등에 자문을 맡은 바 있다. 정지훈은 한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엔젤 투자자 중 한 사람으로, 루닛(Lunit: CB 인사이트가 선정한 100 인공지능 기업들), 오비스AI(OrbisAI), 모두의연구소(MODULABS), 모바일 닥터(Mobile Doctor) 등의 인공지능 창업 기업을 포함하여 40여 개 창업 기업들에 투자해왔다.

b. 1970. Lives and works in Seoul.

Dr. Jihoon Jeong received his MD from Hanyang University and PhD in Biomedical Engineering from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 Viterbi School of Engineering. His main interests are intersections of technology and society by serving in various roles including general physician, research scientist, book writer, professor, startup advisor and angel investor. He is currently senior teaching fellow of Kyung Hee Cyber University and Managing Partner of BigBang Angels. He also co-founded and has been acting as a partner of Digital Healthcare Partners. He advised Samsung Electronics, Hyundai Motor Company, SK Telecom and Naver. He is one of the well-known angels investors in South Korea. He invested more than 40 start-up companies including several AI start-ups such as Lunit (100 AI companies selected by CBInsight), OrbisAI, ModuLabs, and Mobile Doctor.

1974년 생. 서울에서 활동.

과학의 배경을 가지고 예술을 실천하는 방향에서 미디어아티스트로 활동해 왔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의 시각디자인 전공에서 인터랙션 디자인을 가르치다가 현재는 유치원에서 구성주의 교육에 머신러닝을 접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인간에게서 배우는 기계의 학습과 기계의 학습에서 배우는 인간의 학습에 관심이 많다. 주요 참여 전시로는 <2017 서울 포커스 [25.7]>(북서울시립미술관, 2017), <아직도 인간이 필요한 이유: AI와 휴머니티>(아트센터 나비, 서울, 2016), <레디, 액션!>(제주도립미술관, 2014) 등이 있다.

b. 1974. Lives and works in Seoul.

Seung Joon Choi is a media artist who has a science background. Based on this transdisciplinary experience, he used to teach Interaction Design in the department of Visual Communication. Now, he is working in a kindergarten and trying to find ways to adopt the Machine Learning technology for the constructivist approach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He believes there are chances that human beings can learn from machine's learning, like machines learn from human's intelligence. Selected group exhibitions include *2017 Seoul Focus* [25.7] (Buk Seoul Museum of Art, 2017), *Why the Future Still Needs Us: AI and Humanity* (Art Center Nabi, Seoul, 2016), and *Ready, Action!* (Jeju Provincial Art Museum, 2014).

1964년 생. 한국 경기도에서 활동.

<실험실-예외점 +4°C>, 2018, 수족관, 현미경, 식생, 양모, 머리, 영상 설치, 6,000 × 2,500 cm,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정기현은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UdK)에서 조형미술을 전공하고 베를린 영화학교(DffA)에서 수료했다. <검은머리/Schwarzkopf>(베를린, 1997)를 시작으로 <당기세요/Open your mind>(서울, 2017)까지 독일과 한국에서 12회의 개인전과 <트렌스미션>(서울, 2010), <아트닭장 프로젝트>(경기도 일대, 2013), <황금산 프로젝트>(안산, 2015) <알 수 없는 그 무엇>(옥과, 2015) <선감이야기길 프로젝트>(안산, 2016) 등을 기획했다. 주요 그룹 전시로는 <Looking abroad>(코월코란 갤러리, 워싱턴 D. C., 1997), <Und ab die Post>(베를린, 2000), 광주비엔날레(광주, 2006) 등이 있다.

모든 액체들은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서 일정하게 밀도가 증가하지만 물만이 예외적으로 섭씨 +4°C(화씨 39.2°F)에서 최대 밀도를 보여준다. 이 온도를 우리는 예외점(anomaly point)이라고 부르며 이 온도에서 물이 지닌 잠재력은 최고조에 달하며 최대 영향력을 행사한다. 물이 중력에 의해 떨어지고 흐르면서 보여지는 순간의 수평의지-시각적 착시현상, 그 과정에서 다양한 유기질로 미생물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먹이로 식물이 자라고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게 한다. 양모와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진 2036년의 지구는 지금 산업화 되어 가는 속도를 제어하지 못했을 때 사라져 가는 대륙을 상상하여 만들어 진다. 이는 공중에서 회전하며 그 위에 현재의 생태를 보여주는 숲 속의 바람, 공기를 영상으로 투사한다. 물을 매개로 자연현상 저 너머에서 일어나는 “여전히 알 수 없는 그 무엇”을 탐구하고, 궁극적으로 자연계의 초지능 현상과 자가발전을 통한 아름다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b. 1964. Lives and works in Gyeonggi-do, Korea.

laboratory-anomaly point +4°C, 2018. Aquarium, microscope, wool, hair, video installation. 6,000 × 2,500 cm.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Ki-Hyun Jung majored in fine arts at Universität der Künste Berlin and studied at Deutsche Film- und Fernsehakademie Berlin. He held 12 solo exhibitions in Germany and Korea, including his first solo show titled *Schwarzkopf* (Berlin, 1997) and his most recent show *Open Your Mind* (Seoul, 2017). He curated diverse projects in Korea, including *Transmission* (Seoul, 2010), *Art Coop Project* (Gyeonggi-do area, 2013), *Golden Mountain Project* (Ansan, 2015), *Something Unknown* (Okgwa, 2015), and *Sungam-gil: A Road of Sungam Stories* (Ansan, 2016). Selected group exhibitions are *Looking Abroad* (Corcoran Gallery, Washington D.C., 1997), *Und ab die Post* (Berlin, 2000), and the Gwangju Biennale (Gwangju, 2006).

All liquids increase in density as the temperature decreases. However, water is the exception; its maximum density appears at 4°C (39.2°F). We call this temperature the anomaly point at which the potential and impact of water reach their peak. When water falls or flows by the force of gravity, it creates a momentary horizontal force and optical illusion. This work enables the audience to observe how microorganisms are created based on organic substances, and marine plants and fish grow by eating those microorganisms in the process. The earth in the year 2036, shaped with wool and hair, represents an imaginary of a future in which human beings cannot control the speed of ongoing industrialization, resulting in the disappearance of the earth's continents. While rotating in the air, this object projects images of the wind blowing through a forest and of the air showing the present-day environment. By using water as a medium, this project examines “something unknown” occurring beyond natural phenomena, and ultimately aims to find a way to pursue a way to a beautiful life through self-improvement.



<실험실-예외점 +4°C> 부분, 2018, 양모, 머리, 영상 12분

laboratory-anomaly point +4°C detail, 2018. Wool, hair, video 12 min.

1968년 생. 서울에서 활동.

〈자전거 *Bye Cycle*〉, 2018, 전기 동력 자전거,
영사기와 필름, 7 × 2 m, 작가제공,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자전거 *By Cycle*〉, 렉처 퍼포먼스, 10/20(토)
17:00,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동시대 한국 연극의 경향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드라마에 충실한 재현연극, 그리고 개념적인 작업에
초점을 맞춘 퍼포먼스. 그러나 연출가 김현탁은 이 둘 사이,
곧 연극과 연극 바깥 사이의 경계 위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실험을 수행한다. 고전의 해체 및 재구성 작업에서
시작, 이제는 신작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창안 작업을
진행하며 자유로운 실험적 탐색을 계속해나가고 있다.

〈자전거 *Bye Cycle*〉에서 김현탁은 세 명의 관람객이
동시에 자전거 페달을 밟아야만 영사기가 돌아가도록
장치했다. 김현탁에게 자전거와 영사기는 굴러야
작동한다는 점, 그리고 스쳐 지나가버린 순간을 끊임없이
대면시킨다는 점에서 등치된다. 등가의 의미로 나란히
놓인 두 사물은 관람객이 자전거에 올라타 페달을 밟는
순간, 동력을 받아 상영되는 영상과 함께 과거의 기억을
대면시키는 도구가 되고, 페달을 굴리는 관람객은
과거를 재현하는 행위자로 변모된다. 시간의 교환수
같은 역할. 작품명에서 볼 수 있듯, 김현탁은 〈자전거
Bye Cycle〉을 통해 반복되는 역사의 사이클, 그
사이클마다 바뀌에 의해 출현하는 ‘구르는 곡선’으로서의
사이클로이드(Cycloid) 그리고 이를 반복 재현하는
연극의 사이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 해당작품은 10월 8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전시됩니다.

b. 1968. Lives and works in Seoul.

Bye Cycle, 2018. Electrically powered bike,
motion picture projector, film. 7 × 2 m. Courtesy
of the artist.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By Cycle. Lecture performance. 10/20 (Saturday),
17:00.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Contemporary Korean theater can be divided
into two formats: a representation play that
focuses on the drama and a performance that
emphasizes the conceptual practice. The
director Hyun Tak Kim, beyond this dichotomous
division, performs an extreme form of theater
in between the two, or on the border of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theater. He began with the
deconstruction or reconstruction of classics,
which itself almost develops into a new work.
Based on this method, he now practices creative
plays that are regarded as completely new works,
exploring free experimental practices in theater.

In *Bye Cycle*, Hyun Tak Kim set up a projector
that operates only when three members of the
audience pedal a bicycle together. For the
artist, the bicycle and the film projector have
the audience members' and players' constant
confrontation of a roving past in common.
The two objects are analogous to each other in
their operational meaning. At the moment
when the audience members step on the pedals,
the bicycle turns into a device that summons
past memories along with the projected film
images, and the audience members become
performers who represent the past. The work
functions as a medium of time. As the title of the
work *Bye Cycle* implies, Kim attempts to
explore the meaning of the cycle of history, the
Cycloid as a “rolling curve” that appears at every
cycle and the theatrical cycle that repeats and
represents all of these notions.

☆ This artwork will be exhibited from October 8
to October 21.

1968년 생. 서울에서 활동.

〈길은 뚫린 골목_공간구획의 논리와 경험〉, 2018,
퍼포먼스, 2시간,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길은 뚫린 골목_공간구획의 논리와 경험〉, 2018,
2채널 HD비디오, 29분 57초,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은정태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역사학자이자 북촌문화연구소 소장으로
활동 중이다. 북촌의 골목과 동네를 답사하며 여러
미시적 역사의 울과 무늬로서의 인간적 결을 드러내는
독특한 서울역사답사여행을 오랫동안 진행해왔다.
저서로는 『쟁점 한국사: 근대편』(공저, 2017),
『청일전쟁기 한중일 삼국의 상호 전략』(공저, 2009),
『베스트셀러의 저자들』(공저, 2007), 『기억에 비춰진
사실, 그러나 사실은 향기롭다』(2000), 『대한제국기
'간도문제'의 추이와 '식민화'』(2007), 『을사조약 이후
청국 정부의 한국 인식』(2007) 등이 있다.

은정태는 〈길은 뚫린 골목_공간구획의 논리와 경험〉에서
북촌을 비롯한 서울의 오래된 길을 지금의 변화된 장소
밀실에서 읽어내고자 한다. 신작로 밀 대지의 굴곡을
타고 걸으며 도로명주소에 묻혀버린 지번을 읽고 숨은
사연을 드러냄으로써 길 속에서 길을 열어가고자 한다.
역사적 격랑에 휩쓸린 다양한 인간군상들이 펼쳐놓는
구체적인 사연으로 참여자들이 걸어 들어가 몸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험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역사와 욕망과 운명 사이의 삼각관계’를 들려주는
그 특유의 ‘구슬리는 말법’과 무의식적 몸짓은, 역사
지층을 ‘이야기의 가상현실화’하여 재출현시키고,
말로 할 수 없는 현재의 리얼리티를 표출시킬 것이다.



b. 1968. Lives and works in Seoul.

*The Way is inter-opened Alley_The Logic and
Experience of Space*, 2018. Performance.
2 hours.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The Way is inter-opened Alley_The Logic and
Experience of Space*, 2018. 2 Channel HD video.
29 min. 57 sec.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Jungtae Eun is a historian and the current
director of the Bukchon Cultural Center. He is
a PhD candidate of Korean Histor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Eun has conducted a project
that involves unique historical visits of Seoul
and field-work in the alleys and villages of
Bukchon, Seoul to reveal the fabric of Seoul's
web of micro histories and the patterns of a
history experienced by human beings. Selected
publications are *The Korean History in Dispute:
the Modern Era* (co-authored, 2017), *The
Mutual Strategies of Korea, China, and Japan
during the Sino-Japanese War* (co-authored,
2009), *The Authors of Bestsellers* (co-authored,
2007), “The Facts Reflected on Memories: The
Fragrant Facts” (2000), “The ‘Gando region
problem’ of the Daehan Empire period and the
issue of ‘Colonization’” (2007) and “The Qing
dynasty government's view of Korea after the
1905 Convention” (2007).

Through the work *The Way is inter-opened
Alley_The Logic and Experience of Space*,
Jungtae Eun attempts to read the old streets of
Seoul, including those of Bukchon, which have
transformed into places with new forms.
Walking along the winding road covered with
new streets, he reveals the old addresses and
stories of the sites, attempting to open up a
(old but new) road on the (present) road.
Considering people's participatory experiences
of the site, he let the audiences walk into the
specific stories of the places created by diverse
groups of human beings and express their own
thoughts about the historical incidents. Eun
speaks of the “triangular relationship among
history, desire, and destiny” with a unique, “enticing
way of talking” and unconscious gestures. This
work re-presents the layers of history through
“virtualized stories” and unravels the indescribable
reality of the present.

〈북촌역사답사여행 - 삼청동 편〉, 작가 제공
*Historical field trip of Bukchon -
Samcheong-dong*. Courtesy of the artist

(장애여성공감 극단 〈춤추는 허리〉) 1—9

서지원 1980년생. 이소윤 1981년생. 조화영 1990년생.
김미진 1967년생. 김상미 1983년생. 최혜미 1985년생.
서울에서 활동.

〈불화不和〉, 2018, 영상 프로젝트, 15분,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일평단심2, 一平丹心2〉, 2018, 혼합 매체, 가변 설치,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마침, 좋은 삶〉, 2018, 퍼포먼스, 8시간,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장애여성공감 극단 〈춤추는 허리〉는 2003년에
활동을 시작했다. 장애여성의 삶과 인권을 예술로
표현하기 위해 무대 안팎을 넘나들며 세상과 소통하고
비판하며 참여하는 공연을 만든다. 장애여성의
몸과 경험으로 남다른 몸짓과 언어를 만들며, 또 다른
소수자들과의 만남을 모색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움직임을 형성하고자 한다.
〈춤추는 허리〉는 공동으로 교육, 연극, 퍼포먼스 등을
진행한다. 주요 작업으로는 〈갑자기〉(2003),
〈손가락열개 발가락열개〉(2010), 〈거북이라디오〉(2011),
〈튀움:독립의싹〉(2014), 〈거북이라디오3〉(2015),
〈불만폭주라디오〉(2017) 등이 있다.

프로젝트 〈마침, 좋은 삶〉은 완성을 향한 것이 아니라
과정의 하나다. 장애여성에게 공적 공간은 허락되지
않거나 제한적이고, 그 공간에서 독립적이거나
주체적이기 어렵다. 〈춤추는 허리〉는 이번 비엔날레에서
전시되는 장애여성의 몸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말과
몸과 공간을 보여주고자 한다. 〈마침, 좋은 삶〉은
몸과 정상성, 예술, 전문성을 질문하는 퍼포먼스다.
〈불화不和〉는 진입, 침입, 점거, 소풍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공적 공간을 찾아 나선다. 〈일평단심2,
一平丹心2〉 장애인 거주시설, 독립의 장소, 무대라는
세 개의 공간을 장애여성의 관점으로 재해석한다.

(Women with Disabilities Empathy, 1—9 Disable Women's Theatre Group 〈Dancing Waist〉)

Jiwon Seo b. 1980. Soyoon Lee b. 1981.
Hwayoung Jo b. 1990. Mijin Kim b. 1967.
Sangmi Kim b. 1983. Hyemi Choi b. 1985.
Live and work in Seoul.

Discord, 2018. Video projection. 15 min.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Singleness of heart 2, 2018.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In the end, a good life, 2018. Performance.
8 hours.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Women with Disabilities Empathy, Disable
Women's Theatre Group 〈Dancing Waist〉
established in 2003, aims to express the lives
and human rights of such women with
Disabilities. Through critical and participatory
dramas, often crossing the border between the
stage and the audience, 〈Dancing Waist〉
attempts to communicate with and criticize the
world. Through the disabled women's bodily
experiences, they create their own unique
movements and body language. Through these
creative projects, they try to meet other social
minorities. Ultimately, through these practices,
they suggest a movement that may change the
world. 〈Dancing Waist〉 has organized educational,
theatrical, and performative programs. Selected
projects are *Suddenly* (2003), *Ten Fingers Ten
Toes* (2010), *Turtle Radio* (2011), *Germination: the
Bud of Independence* (2014), *Turtle Radio 3*
(2015) and *Radio of Flooding Complaints* (2017).

In the end, a good life is a project in progress; the
work itself consists of the processes involved,
not striving for completion. Women with disabilities
are permitted access to a limited extent in public
spaces. In these spaces, it is difficult for them to
attain independence or autonomy. In this biennale,
〈Dancing Waist〉 rejects the exhibition of the bodies
of the disabled women and demonstrates their
voices, bodies and spaces. *In the end, a good
life* is a performance that raises questions on the
body and normality, art and specialty. *Discord*
attempts to illustrate public spaces through diverse
conceptual gestures like penetration, invasion,
occupation, and picnics. *A Singleness of heart 2*
reinterprets the residenc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space of independence, and the
stag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isabled women.



작가 제공
Courtesy of the
artist

2018년 결성. 서울에서 활동.

〈발 밑의 미래〉, 2018, 혼합 매체, 23 m²,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팩토리 콜렉티브는 서새롬, 안아라, 여혜진, 이경희로 구성된 그룹으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팩토리 투(FACTORY 2)를 (공간적) 거점 삼아, 서로 지지하고 함께 배우는 예술기획 모델을 실험한다. 요가 마스터, 요리사, 그래픽 디자이너, 문화예술 기획자의 협업체인 팩토리 콜렉티브는 '배움이 일어나는 예술공동체'로, 동료, 친구, 협업자를 끊임없이 확장해나간다.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전방위 제작자 손정민, 예술가 안데스, 헬싱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 뚝오마스 알렉산더 라이피넨과 HIAP의 큐레이터 옌니 누르멘니에미와 협업하고 있다.

〈발 밑의 미래〉프로젝트는 크게 연구, 전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발효'의 작동체인 균과 인간을 구성하는 유기생명체 관찰기로서의 연구 및 전시이다. 두 번째는 관객들과 함께 현장에서 다양한 버섯이나 효모와 같은 균을 관찰하고 먹어봄으로써 경계를 붕괴시키는 행위를 실행하는 퍼포먼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트 & 에콜로지' 프로젝트를 지속해온 옌니 누르멘니에미 큐레이터와 뚝오마스 알렉산더 라이피넨이 조직한 마이리아곤(Myriagon)을 초청하여 '다양한 종의 좋은 삶'에 대해 살펴보는 랙터 퍼포먼스 <마이리아곤 1: 낱말의 여러 세계>를 통해, 인간을 포함한 주변 환경 속 다양한 유무기체의 다층적인 삶에 대해 질문하고 복잡하게 얽혀 공존하는 삶의 방식을 탐구한다.

Founded in 2018. Lives and works in Seoul.

The future beneath, 2018. Mixed media.
23 m².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factory collective consists of the artists Saerom Suh, Ara Ahn, Hyejin Yeo, and Kyounghee Lee. Based in the space of "FACTORY 2" located in Jongno-gu, Seoul, factory collective experiments with the curatorial models of mutual support and education. factory collective is an "art community where learning transpires" and a collaboration group comprised of a yoga master, a chef, a graphic designer, and a curator of art and culture bands together. It is constantly expanding its boundaries to include the members' colleagues, friends, and other collaborators. In this biennale, factory collective collaborates with the omnidirectional maker Jung-min Son, the artist Andeath, the Helsinki based artist Tuomas Aleksander Laitinen, and the curator of HIAP Jenni Nurmenniemi.

The future beneath is largely comprised of research, exhibition, and programs. The first is a research and exhibition; it is a record of observations of the organic lives of germs (the source of "fermentation") and human beings. The second is a performance that involves observing and eating cultured mushrooms or germs such as yeast that were grown on-site together with the audiences, ultimately collapsing the border between the organic and the inorganic. And finally, the collective has invited Myriagon, organized by curator Jenni Nurmenniemi and artist Tuomas Aleksander Laitinen who has constantly worked on "art & ecology" projects, to hold a lecture performance on "the good lives of diverse species" titled *Myriagon 1: Word Worlds*. Through this lecture performance, participants can inquire into the diverse layers of the organic and inorganic lives in our environment, including human life, and explore different manners of symbiotic living amid its interlaced complexity.



〈발 밑의 미래〉, 버섯 재배 하우스 스케치,
2018, 작가 제공

The future beneath, sketch of
mushroom cultivation house, 2018.
Courtesy of the artist

1959년 생. 서울에서 활동.

〈실크로드 프로젝트 - 기록 2018〉, 2018, 작가 제공,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에디션

〈1차 실크로드 프로젝트 - 루트맵 드로잉 1〉, 2006,
장지에 연필, 채색, 450 × 210 cm
〈실크로드 프로젝트 - 기록 2018 - 1, 2, 3, 4〉,
2018, 디지털 프린트, 각 74 × 50 cm

정재철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와 동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1992년 서울 문예진흥원 미술화관에서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국내외에서 22회의 개인전과 200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그는 2004년부터 〈실크로드 프로젝트(Silk Road Project)〉를 진행했으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해양 오염과 바다 쓰레기에 관한 리서치와 참여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간과 장소의 기억을 발굴하고, 문화적 전이와 혼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서울에서부터 런던까지 실크로드를 작가가 답사하면서 여행 과정에서 만나는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협업하는 프로젝트이다. 그는 서울에서 폐기된 현수막을 수집하고 재가공하여, 실크로드 여행을 통해 만난 현지 주민들에게 나누어준다. 만남 이후, 작가는 다시 그 곳을 방문해 재활용된 그 물건들의 흔적을 수집한다. 이 프로젝트는 미술의 생산과 소비(창작과 감상) 방식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차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서울에서 중국 신장위구르를 거쳐 카라코람 하이웨이를 타고 파키스탄 펀자브의 라호르를 지나 북부 인도를 가로질러 네팔 카트만두에 이르는 구간에서 이루어졌다. 약 2천 장의 폐현수막이 첫 번째 여행에서 22곳에 전달되었고, 두 번째 여행을 통해서 재활용된 그 물건들의 70%가 여전히 사용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비엔날레에 보여지는 작업은 작가의 프로젝트를 지도 형식으로 담은 드로잉이자 평면작업이다. 그리고 그 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함께 보여준다.



b. 1959. Lives and works in Seoul.

Silk Road Project - Documentation 2018, 2018.
Courtesy of the artist.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Edition

1st Silk Road Project - Route Map Drawing 1,
2006. Pencil on paper, paint in colors.
450 × 210 cm
Silk Road Project - Documentation 2018 - 1, 2,
3, 4, 2018. Digital print. 74 × 50 cm (each)

Jeoung Jae Choul received a BFA and MFA in sculp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his first solo exhibition in 1992 at the art gallery of the Arts Council Korea, he has presented works in 22 solo exhibitions and over 200 group shows. From 2004, Jeoung worked on the *Silk Road Project* for several years. Since 2013, he has been working on research-based participatory work on marine pollution and waste in the ocean. This project endeavors to excavate memories buried in particular spaces or places and to explore the issues of cultural transference and hybridity.

For the *Silk Road Project*, Jeoung crossed the Eurasian continent from Seoul to London. While visiting specific sites along the Silk Road, the artist communicated and collaborated with the community members of each region on the route. Before embarking on the journey, he had collected and reprocessed discarded banners to bring with him and give to the people of regional communities that he encountered during his travels. Then, he later revisited the regions and collected vestiges of how the people were using the banners. This project was initiated from a query into the methods of art production and consumption (creation and appreciation). In the first Silk Road Project, Jeoung embarked from Seoul, visited Xinjiang Uygur of China first, reached the city of Lahore in Punjab, Pakistan via the Karakoram Highway, crossed northern India and arrived in Katmandu, Nepal. During this journey, he gave out approximately 2,000 discarded banners to 22 regional communities; in the second project, he discovered that 70 percent of the banners were still being used. In this Biennale, the artist presents a two-dimensional drawing of a map illustrating his performative project along with photographs that he took during his journey.

작가 제공
Courtesy of the
artist

2009년 결성. 서울에서 활동.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 2018, 영상(30분),
재난대비워크숍, 드로잉 출력물 설치,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내성천〉, 2012, 영상, 5분 7초

리슨투더시티는 디자인 예술 도시 콜렉티브로 현재 네 명의 멤버가 있으며 도시 개발, 강 개발 등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며 도시와 도시 외부 공간의 공통성(the commons)에 대해 고민해왔다. 2009년 결성되어 현 멤버 외에도 많은 외부 협업자와 작업을 함께 해왔으며 주로 도시의 기록되지 않는 역사들, 존재들을 가시화해왔다. 독립잡지 『어반드로잉스』를 출판하고 있으며, 서울투어, 내성천 활동, 도시영화제, 옥바라지 골목 보존 운동 등 직접 행동을 하고 강과 생명에 관하여 담론을 만드는 독립공간 스페이스 모래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발생한 포항 지진은 한국에서 지진을 관측한 1905년 이래로 가장 큰 피해를 끼친 지진이었다. 포항의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고, 사람들이 다쳤다. 그러나 지진 당시 아예 대피를 못해서 갇혀 있거나, 가족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대피한 장애인들이 있었다. 리슨투더시티는 영상 작품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2018)를 통해 지진 당시 지진을 겪은 포항 지역의 아동이 불편한 장애인들, 주변 사람들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재난에 노출되는지를 그려내고 공동체는 재난을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지 묻는다. 또 장애 포괄 재난 대피 워크숍을 진행하여 결과물을 전시하고, 미술관 재난 대피 지도 워크숍을 미술관 직원들과 진행하여 결과물을 영상으로 전시한다. 원탁 테이블에서 관객들이 스스로 재난 대피 지도를 그려본다.

〈내성천〉은 서울로미디어캔버스에서 전시된다.

Founded in 2009. Lives and works in Seoul.

No One Left Behind, 2018. Film (30 min.),
workshops, installation of drawings.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Naeseong River, 2012. Video. 5 min. 7 sec.

Listen to the City is a collective that engages with the issues of design, art, and the city. The four members of the collective are involved with matters of urban and river development, essentially considering the commons of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ity. Since its foundation in 2009, the collective has collaborated with numerous people outside the group. They have mainly worked on visualizing the unrecorded histories and invisible existences of the city. The collective publishes the independent magazine *Urban Drawings*, engages with Seoul Tour and the ecological issues of Naeseong River, and founded the Urban Film Festival. On the one hand, Listen to the City implements a series of direct action on urban issues (e.g. a movement for the preservation of the historical street called Okbaraji Alley—the street where the families and friends of the imprisoned political criminals stayed during the dictatorial regimes). On the other hand, the collective operates The Project Space Morae where related people discuss and explore new discourses on the environmental issues affecting the river and life.

The earthquake of Pohang, which occurred on November 15, 2017 (2:29 pm), caused the worst damage to the region since 1905 when Korea first started measuring the scale of earthquakes. Some buildings damaged and people were injured. At the time of the earthquake, there were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were not able to evacuate the building and people who had barely escaped harm with the help of family members. Listen to the City's film titled *No One Left Behind* (2018) portrays the lives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Pohang region that the earthquake had damaged, shows how social minorities are exposed to natural or man-made disasters, and then, investigates how the community acknowledges and handles disasters. Also, the collective initiated a workshop for emergency preparedness train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disaster preparedness training for museum employees; through film, it presents the results of these efforts in the exhibition. In the exhibition site, audiences themselves can draw a disaster preparedness map on a roundtable.

Naeseong River is exhibited at SEOULLO MEDIA CANVAS.



작가 제공
Courtesy of the
artist

1986년 생. 서울에서 활동.

〈은근어디든〉, 2018, 퍼포먼스, 20분,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허윤경은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창작과 전문사 과정을 마쳤다. 몸 대 몸으로 공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무대 언어가 지닐 수 있는 다양함을 발견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안무가이자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안무작으로는 〈스페이스-쉽(Space-ship)〉(2017), 〈Stand up〉(2015), 〈숨은 시선 찾기〉(2015) 등이 있고, 출연자로서 참여한 작품으로는 〈미소서식지 몸〉(2017), 〈트랜스픽셀 움직임 워크숍〉(2017), 〈시체옷〉(2016), 〈숨의 자리〉(2016) 등이 있다.

〈은근어디든〉은 관객들이 이동하면서 관람하는 공연과 공연에 대한 텍스트 형태의 단서들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텍스트들은 미술관 주변의 자연과 도시로부터 수집된 풍경과 순간들을 포착한, 그러나 어떤 것을 묘사하는지는 숨겨져 있는 문장들로서, 이를 바탕으로 퍼포머의 움직임이 안무된다. 본래 텍스트에 지시된 내용을 재현하는 것이 아닌, 문장에 담긴 스코어가 미술관이라는 공간의 맥락에서도 새롭게 성립될 수 있도록 움직임의 공간과 동작을 선택하는 것이다. 텍스트가 쓰여진 유인물은 퍼포먼스의 흔적으로서 전시 기간 동안 미술관 내부, 곳곳의 경로들에 남겨진다.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미술관과 투입하는 퍼포머의 몸, 퍼포머를 따라 이동하며 그에게 시선을 주고 감각을 여는 관람자의 몸이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의 유기적인/비유기적인 현상을 만들어낸다.



b. 1986. Lives and works in Seoul.

Implicitly Anywhere, 2018. Performance.
20 min.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Yunkyoung Hur graduated Department of Media Communication, Yonsei University, School of Social Sciences, and M.F.A at Department of Choreograph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chool of Dance. As a choreographer and dancer, Hur is interested in discovering diverse languages for the stage based on the idea that we can share commonality by means of communication with the human body. Selected choreographies include *Space-ship* (2017), *Stand-up* (2015), and *Hidden Gaze* (2015). Recent works as performer are *Microhabitat body* (2017), *Trans Pixel Movement Workshop* (2017), *Si-che-ot* (2016) and *Place of Breath* (2016).

Implicitly Anywhere consists of a performance that the audience members appreciate while moving through space according to diverse hints provided in the form of text. The texts describe sceneries and moments collected from the nature and urban space around the museum, but the sentences hide exactly what the artist illustrates. The performer choreographs the movements based on these texts. The choreography is not meant to represent what the texts indicate, but to designate the spaces and motions so that the scores of the sentences can be restructured according to the spatial context of the museum. The printed materials of the text will remain as traces of the performance in many areas of the museum during the biennale. The museum as a specific physical space, the performer's body that permeates the museum, and the bodies of the audience members who move along with the performer while gazing at the performer's body and opening the senses. These three elements closely relate to one another, creating an organic and inorganic phenomenon.

작가 및 분홍공장 제공
Courtesy of the artist and
PINK FACTORY

1971년 생. 서울에서 활동.

〈움직이는 표준〉, 2018, 퍼포먼스, 20분,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노경애는 네덜란드의 EDDC(European Dance Development Centre)에서 안무를 전공하고, 2005년 유럽 안무가들과 함께 vzwCABRA를 창단하여 현재까지 협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2010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 댄스 컬렉션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2012년 광주 아시아예술극장 국제공모, 서울문화재단 유망예술육성지원사업(NArT) 등에 선정된 바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불특정한 언어〉(서울국제공연예술제, 독일 포츠담 탄츠타게 페스티벌, 포르투갈 이미지나리우스 페스티벌, 2010–2011), 〈Two Aspect〉(서울-요코하마 댄스 커넥션, 2011–2012), 〈MARS〉(페스티벌 봄, 2013), 〈줄자-/정류장〉(백남준아트센터, 2015), 〈더하기 놓기+〉(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2016) 등이 있다.

〈움직이는 표준〉은 종착지를 알 수 없는 새로운 문명의 루트를 설계하는 질서와 개념 체계에 대한 탐구에서 시작한다. '표준'은 움직임으로써 그 질서와 개념 체계를 추인하지만, 그 추인 과정에서 배제되는 표준 이외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는가. 움직임은 안무의 기동이자 삶의 기동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렇게 움직여지는 축, 움직여지는 규칙, 나아가 움직여지는 표준에 대한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노경애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작가 자신이 바라보는 이 시대를 향한 표준의 움직임에 대해 새로운 안무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b. 1971. Lives and works in Seoul.

Shifting standard, 2018. Performance. 20 min.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Kyung Ae RO majored in choreography at EDDC (European Dance Development Centre) in the Netherlands. In 2005, RO co-established vzwCABRA in collaboration with European choreographers and has worked with this group to this day. In 2010, she was awarded the Grand Prize at the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SPAF) and selected as the performing director for the 2012 Asia Culture Center and the New Art Trend of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FAC). The selected projects are *Unspecific Language*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Tanztage Festival of Potsdam, Germany; Imaginarius Festival, Portugal, 2010–2011), *Two Aspect* (Seoul-Yokohama Dance Connection, 2011–2012), *MARS* (Festival Bo:m, 2013), *Tape Measure-/Station* (Nam June Paik Art Center, 2015), and *Combining Placing +*, (Platform-L Contemporary Art Center, 2016).

Shifting standard began with the concept that we can design a new route for civilization with an unknown destination. The "standard" drives the existing order and the conceptual system by changing itself. During the changing process, however, what happens to excluded movements (elements) that are peripheral to the standard? Movement is the driving force not only of choreography but also of life. This project is about the axis, the rules, and the standard of motion. Through this piece, RO, as an individual who lives a life in the real world, proposes an alternative choreographic standard for the new era based on her own perspective on the world.

〈더하기 놓기+〉, 퍼포먼스, 이운식 사진
Combining Placing +, Performance.
Photo by woon-shik Lee

고연옥 1971년 생. 서울에서 활동.

잣 프로젝트 2013년 결성.

마광현 1984년 생. 서재영 1984년 생. 원채리 1987년 생.

이도경 1985년 생. 이신실 1984년 생. 이재민 1985년 생.

최정현 1981년 생. 서울에서 활동.

〈우리는 적당히 말했다〉, 2018, 공연예술, 40분,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극작가 고연옥은 1996년 부산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였으며, 주요 작품으로는 〈웃어라 무덤아〉(2003), 〈발자국 안에서〉(2007), 〈주인이 오셨다〉(2011), 〈나는 형제다〉(2015), 〈손님들〉(2017), 〈처의 감각〉(2017) 등이 있다. 실화와 신화를 결합시켜 인간본성을 탐구하는 작품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2013년 설립된 잣 프로젝트는 8명의 젊은 아티스트들로 구성되었고, 공연예술을 통하여 삶의 사이를 찾아 시대의 사회적 몸과 언어를 관찰하고 고찰하여 이에 따른 다양한 언어와 질문을 발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예술 창작 집단이다. 주요 작품으로는 〈시여, 침을 뱉어라〉(스튜디오 76, 2014), 〈골목을 돌아서〉(남산예술센터, 2017) 등이 있다.

〈우리는 적당히 말했다〉는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의 고찰로 시작되었다. 너무나 먼 곳에서부터 쌓여져 온 '사회적'인 것들 속의 개인의 존재성을 들여다보고 인간보다는 현 사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어떠한 선택과 시선들 속에 개인을 내놓았는지 관찰하고자 했다. 소위 '개인의 탄생'을 통해 이미 관계된 집단의 기억을 들여다보고 그 이후의 또 다른 관계를 상상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 작업은 지금, 여기 자리하게 된 지극히 개인적이면서 사회적인 '몸'의 몸타준다. 수많은 질문 속에 놓여 있는 몸들의 관찰은 이미 관계된 '힘'을 발견하고 이것들을 연결해 앞으로 관계될 '힘'에 관해 질문한다. 배우들의 반복적이거나 파편화되어 흩어지거나 부유하거나 모이며 다시 깨지는 지속적인 움직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언어'들을 찾기 위한 하나의 풍경이 되고자 한다. 이 풍경을 통해 하나의 서사가 아닌 각자의 체험과 기억에 따른 개인의 오래된 서사를 발견하고 또다시 새로운 서사를 꿈꿔보기를 바란다.

Yeon Ock Ko b. 1971. Lives and works in Seoul.

JAT Project Founded in 2013.

Kwang Hyun Ma b. 1984. Jae Young Seo b. 1984.

Chae Ri Won b. 1987. Do Kyung Lee b. 1985.

Sin Sil Lee b. 1984. Jae Min Lee b. 1985.

Jung Hyun Choi b. 1981.

Live and work in Seoul.

We talked briefly, 2018. Performing arts.

40 min.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Yeon Ock Ko is a play writer who debuted in 1996 at the Spring Literary Contest hosted by *The Busan-Ilbo* (The Busan Daily Newspaper). Selected works include *Laugh. The Tombs* (2003), *Inside the Footprints* (2007), *The Lord Has Come* (2011), *I am Your Brother* (2015), *The Guests* (2017), and *The Sense of My Wife* (2017). Ko's works are significant in their examination of the human instinct by way of combining non-fiction stories with mythical ones. JAT Project, an art-creation group founded in 2013, is comprised of eight young artists. Through the medium of performance, they roam through human lives, observing and considering the implications of our social bodies and the languages of our times, thereby exploring new languages and raising questions on human subjects. Selected works of the group are *Poetry, Spit Out* (Studio 76, 2014), and *Through an alley* (Namsan Arts Center, 2017).

We talked briefly began with a consideration of the "me too movement" that had occurred in the field of art and culture in South Korea. The artists intended to look into the individual existence positioned in "the social" that has accumulated for such a long time, and to observe what kind of choices they make, putting themselves under certain gazes in order to live as an individual being rather than as a human being in a general sense. The group project attempts to investigate the collective memories among related people and imagine possible relations that the existing connections could create through "the birth of an individual," or the way in which an individual is born. This project is also a montage of the individual and social "body." By observing bodies that are situated within a variety of relations, the artists have discovered existing relational "forces" and inquire into the possible relational "forces" based on these present relations. The repetitive, fragmented, dispersed, floating, converging and destructing body movements of the performers make a scene that represents the effort to search for possible future "languages." They hope that this scene enables the audiences not to discover one (grand) narrative, but to uncover the old narratives of numerous individuals and to dream about the new narratives of themselves.



〈골목을 돌아서〉, 퍼포먼스,
남산예술센터 제공

Through an alley,
Performance. Courtesy of
the Namsan Arts Center

1969년 생. 서울에서 활동.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진화: 공유인간의 부활〉, 2018, 강연 시리즈,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캐나다 요크 대학교에서 국제정치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연구원을 거쳐 현재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부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재벌, 한국을 지배하는 초국적 자본』을 썼고, 『경제성장과 사회보장 사이에서(Mellan tillvaxt och trygghet)』, 『GDP를 틀렸다(Mismeasuring our lives)』, 『스티글리츠 보고서(The Stiglitz Report: Reforming the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s in the Wake of the Global Crisis)』, 『불경한 삼위일체(Unholy Trinity: The IMF, World Bank and WTO)』(공역)를 옮겼다.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진화: 공유 인간의 부활’이라는 제목의 본 강연은 총 3차에 걸친 포럼으로 구성된다.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맞아 이전 산업 시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경제생활의 원리와 주체를 찾아보기 위한 핵심 주제들을 논의한다. 나아가 성장주의가 가져온 생태적, 자연적, 사회적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산업사회에서 만들어진 이기적 존재로서의 호모-이코노미쿠스적 인간의 한계를 파악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21세기 새로운 물질적 조건에 적합한 새로운 인간 유형으로의 진화 가능성을 모색한다. 그것은 적자생존의 경쟁적 인간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유 인간으로의 진화이다. 본 강연은 성장제일주의를 추구해 온 우리 사회가 현재 당면한 한계를 파악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여러 담론을 함께 논의하는 소통의 공간을 열고자 한다.

b. 1969. Lives and works in Seoul.

The Evolution of Homo Economicus: the Resurrection of Commoners, 2018. Lecture series.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Hyeng Joon Park received a BA in Civil Engineering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 PhD i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from York University, Canada. He was a researcher at the Korea Institute for a New Society, and is currently a vice-director of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Institute. He is the author of *Chaebol, the Dominant Transnational Capital of South Korea*. He has also translated (Korean) *Mellan tillvaxt och trygghet, Mismeasuring Our Lives*, and *The Stiglitz Report: Reforming the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s in the Wake of the Global Crisis*, and co-translated *Unholy Trinity: The IMF, World Bank and WTO*.

The lecture *The Evolution of Homo Economicus: the Resurrection of Commoners* consists of three forums. At the times of the great turn, the researchers and panels discuss major issues to seek a principle and human subject complete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revious industrial era. They also encourage the acknowledgement of the seriousness of the ecological, natural, and social crises brought about by developmentalism and the limits of homo-economicus, a human-centered selfish existence that was created during the capitalist industrial society. Their position, thereby, explores the potential evolution of human beings that would be appropriate to the new material conditions of the 21st century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that is, this evolution should be one from competitive human beings in a world of the survival of the fittest to a human species, based on commons, that live together with others. This lecture aims to recognize the limits of our society, which has exclusively pursued material/ economic development, and to open a field for communication so that participants can suggest new ways of living and can discuss diverse discourses related to new living conditions.

영국 출생.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진화: 공유인간의 부활〉강연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개발 경제 및 국제 개발 전공으로 석사를 취득하였고 현재 국제비정부기구 옥스팜(Oxfam)의 선임연구원이다. 라워스는 또한 옥스퍼드 대학의 환경변화연구소와 케임브리지 대학 지속가능성 리더십 연구소에서도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구적 차원에서 사회적 형평성과 인권을 성취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개발 패러다임을 고민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의 도전(State of the World 2013: Is Sustainability Still Possible?)』 공동 저자이며 『도넛 이코노믹스(Doughnut Economics: Seven Ways to Think Like a 21st Century Economist)』(가제)가 곧 국내 출간 예정이다.

케이트 라워스는 대표 저서 『도넛 이코노믹스』에서 성장만을 강조하고 불평등이 만연한 기존 경제 체제에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도넛 경제는 국제 개발, 정부 정책, 기업 전략 등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라워스가 제시하는 도넛은 인간의 삶에 있어 필요한 부분을 충족하면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체계이다. 도넛은 생태계 천장과 사회적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워스에 따르면, 우리는 사회적 기반을 갖추면서 생태계 천장을 넘지 않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영역에 있어야 한다. 도넛 경제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정하지만 그에 도달하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지는 않으며 이것이 함께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b. England.

Speaker, *The Evolution of Homo Economicus: the Resurrection of Commoners*

Kate Raworth received an MSC in Economics for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from Oxford University. She is now the senior researcher of the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Oxfam. Also working as the senior researcher at the Environmental Change Institute of Oxford University and the Cambridge Institute for Sustainability Leadership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Raworth conducts research on the new economic development paradigm to achieve social equilibrium and the issue of human rights on a planetary level. She is the co-author of *State of the World 2013: Is Sustainability Still Possible?* and the publication of her book *Doughnut Economics: Seven Ways to Think Like a 21st Century Economist* is forthcoming in Korea.

In her representative book *Doughnut Economics*, Kate Raworth asserts that the existing economic system exclusively focuses on development and has resulted in widespread social inequity. Doughnut Economics, a new economic paradigm, suggests new direction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government strategies, and entrepreneurial strategies. The doughnut to which Raworth refers is the proposal for a system that satisfies the necessities of human lives without imposing any bad influences on the environment. The doughnut consists of an ecological ceiling and a social ground. According to Raworth, we need to stay within a realm of security and justice, a realm that does not go over the border of the ecological ceiling. Doughnut economics establishes the foundation for a fair and sustainable future, and Raworth emphasizes that we need to discuss specific methods to reach the goal together.

1958년 벨기에 출생.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진화: 공유인간의 부활〉강연자

P2P 파운데이션의 창립자 겸 디렉터이며, 공유지(Commons) 및 경제 분야의 주요 국제 컨퍼런스를 주최한 커먼즈전략그룹(Commons Strategies Group)의 공동 창립자이다. 동료생산(Peer Production), 거버넌스 및 자본 탐구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협력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2014년 에콰도르 정부에서 '사회 지식 경제'를 만들고자 설립한 'FLOKsociety.org'의 리서치 디렉터로서 '공유지 이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보웬스는 대표 저서 『협력 경제를 위한 네트워크 사회와 미래 시나리오(Network Society and Future Scenarios for a Collaborative Economy)』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 자본주의 건설을 위한 현재진행형의 대화에 기여하고, 다른 세계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책의 공동저자들은 P2P(Peer-to-Peer) 인프라가 점차 노동, 경제, 사회의 일반적 조건이 되고 있다고 여기며, 동료생산이 자본주의 내에서 보호, 집행, 자금을 필요로 하는 포스트 자본주의적 양상의 사회 발전으로 간주한다. 네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저자들은 있음직한 결과들을 단순화하고, 현재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궤적을 자본주의 내에서 그리고 그 너머에서 탐구하려고 시도한다.

b. 1958, Belgium.

Speaker, *The Evolution of Homo Economicus: the Resurrection of Commons*

Michel Bauwens is the founder and director of P2P (Peer-to-Peer) and co-founder of the Commons Strategies Group that hosted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 the fields of commons and economy. He has co-researched internationally on Peer Production, governance and capital. As a research director of FLOKsociety.org—established by the Ecuadorian government for “social knowledge economy”—Bauwens set up the “Commons Implementation Plan.”

In his well-known book *Network Society and Future Scenarios for a Collaborative Economy*, Bauwens does not merely criticize the capitalist system, but also attempts to discuss a possible alternative form for the world, which may contribute to the dialog in progress to construct the post-capitalism environment. The co-authors of the book regard the P2P infrastructure as a forthcoming condition for labor, economy and the society in general, and conceive it as a social development toward post-capitalism, which requires protection, implementation, and stimulation within the capitalist system. Through four scenarios, the authors simplify the possible results and attempt to inquire into the trajectory of the existing technological-economic paradigm within and beyond capitalism.

1943년 영국 출생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진화: 공유인간의 부활〉강연자

노팅엄 대학교의 사회 역학 전공 명예 교수이자 런던 대학교(University College London)의 명예 교수 및 요크 대학교의 객원 교수이다. 그의 저서와 논문들은 빈부 격차가 큰 사회에서 건강과 사회 문제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경향에 주목해 왔다. 그는 전세계 24개 언어로 번역 출간된 베스트셀러 『평등이 답이다: 왜 평등한 사회는 늘 바람직한가』(The Spirit Level: Why Equality is Better for Everyone)의 공동 저자이다.

윌킨슨은 대표 저서 『평등이 답이다: 왜 평등한 사회는 늘 바람직한가』에서 통계지수와 그래프들,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통해 불평등이 사회문제에 끼치는 영향을 파헤치면서 선진국 중 소득 격차가 작은 사회가 큰 사회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윌킨슨에 따르면 사회의 신뢰 수준, 폭력과 살인 등의 강력 범죄율, 심대 출산 등 대부분의 사회문제는 지금까지 사회의 경제수준, 예를 들면 1인당 소득에 의해 좌지우지된다고 여겨왔지만 사실은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한지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말한다. 불평등한 사회는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이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충분한 자료를 통해 불평등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치는지에 대해 논한다.

b. 1943, England.

Speaker, *The Evolution of Homo Economicus: the Resurrection of Commons*

Richard G. Wilkinson is the emeritus professor of Social Epidemiology at the University of Nottingham, honorary professor at University College London, and visiting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York. His publications and research articles have examined the tendency for the increase in problems of the public in societies with a widened class gap. He is the co-author of *The Spirit Level: Why Equality is Better for Everyone*, which has been published in 24 languages worldwide.

In *The Spirit Level: Why Equality is Better for Everyone*, Wilkinson investigates the influences of social inequality on other social issues by using objective research methods represented in the forms of statistical results and graphs, which help to testify to the fact that, at least within advanced countries, the level of happiness and health is higher in societies with a smaller class gap. Unlike the existing research that has argued that the most decisive condition of most social problems (e.g. the level of social credibility, violence, homicide, rate of violent crime) is the national income per capita, he asserts that the degree of social inequality most strongly influences these social issues. That is, economic inequality causes other social problems, which, in result, increases social expense. He discusses the extent to which social inequality damages a society based on sufficient resources.

2011년 설립. 베이징, 홍콩, 타이페이, 서울에서 활동.

〈좋은 삶을 만드는 활동가 되기 ABC〉, 2018, 퍼포먼스,
3시간,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제공
〈티핑포인트 뮤직비디오〉, 2018, 사운드, 영상,
애니메이션,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이그니토
제공,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는 1971년에 설립된
독립적인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동아시아 지부의
서울사무소이다. 동아시아 지부는 1997년 홍콩 사무소를
시작으로, 2002년 중국 베이징 사무소, 2010년 대만
타이페이 사무소, 2011년 서울 사무소가 설립되었다.
기후변화를 막고, 동아시아의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전환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린피스는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47년간 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다. 〈좋은 삶을 만드는 활동가 되기 ABC〉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그린피스가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각각 2박 3일의 '캠페인의
기본(Basic Campaign)' 트레이닝과 비폭력직접행동
(Non-Violent Direction Action) 트레이닝을 합쳐서,
세 시간의 짧은 프로그램으로 압축시킨 것이다. 시민들이
더 좋은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일상의 부정의한 문제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지,
다른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는지를 배우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티핑포인트 뮤직비디오〉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의 커미션으로 래퍼 이그니토가 제작한 신곡
〈티핑포인트〉의 뮤직비디오 영상이다. 기후변화는 현재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글로벌 환경 위기이다.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혁명 이후 이미 1°C 이상 상승했다.
인류가 2015년 파리협약에서 합의한대로 이번
세기말까지 상승폭을 산업화 이후 1.5°C 내로 막지
못하면 빙하가 급격히 감소하고, 폭염, 흑한, 가뭄,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증가하며 인류의 삶에 파국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인류에게는
재앙적인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과 복잡성을 서사적으로 풀어낸 이그니토의
신곡 〈티핑포인트〉의 메시지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영상작품이다. 〈티핑포인트 뮤직비디오〉는
서울로미디어캔버스에서 전시된다.

Founded in 2011. Works in Beijing, Hong Kong,
Taipei, and Seoul.

Be an Activist for a Good Life ABC, 2018.
Performance. 3 hours. Courtesy of Greenpeace
East Asia Seoul Office
Tipping Point M/V, 2018. Sound, video, animation.
Courtesy of Greenpeace East Asia Seoul Office
and Ignito.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Greenpeace East Asia (GPEA) Seoul Office is a
part of the East Asian regional office of a global
environmental NGO, Greenpeace, founded in
1971. Greenpeace East Asia firstly opened an office
in Hong Kong in 1997, followed by the opening
of the office in Beijing in 2002, Taipei in 2010, and
Seoul in 2011. GPEA conducts diverse campaigns
to address global climate change crisis, promote
energy transition, and protect the environment of
the East Asian region.

Greenpeace has conducted a variety of campaigns
over the past 47 years with the support of the
citizens to protect the environment and move the
society toward a sustainable future. *Be an Activist
for a Good Life ABC* is a compressed form of the
existing Greenpeace training programs for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Basic Campaign
Training and Non-Violent Direction Action Training.
For this event, they reduced the original program
into a short 3-hour program for public citizens.
This program is intended to provide the citizens
an arena where they could discuss the diverse
conditions required for a better life: how we can
strategically approach unjustifiable problems and
resolve them; how we can make changes in a
peaceful way; and how we can draw the attention
and support of the public at large.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has commissioned
the rapper Ignito to write a new song, and *Tipping
Point M/V* is the music video of the song titled
Tipping Point. Climate change is the most serious
global environmental crisis that humans face at
present. The average temperature of the Earth has
risen more than 1°C already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If the human race fails to limit the
increase of global average temperature to 1.5°C
until the end of this century, as agreed upon in
the Paris Agreement 2015, the glaciers will rapidly
decrease, and natural disasters such as extreme
heat wave or severe cold, draught, flood, or
typhoon will increase and the human life could
face a catastrophic end. However, humans still
have hope of preventing such disastrous climate
change. The video work convincingly conveys
the message of Ignito's new song *Tipping Point*
that describes the gravity and complexity of
climate change problems. *Tipping Point M/V* is
exhibited at SEOULLO MEDIA CANVAS.



정택용, 그린피스
제공

Courtesy of Jung
Taekyong and
Greenpeace

1982년 생. 서울에서 활동.

〈티핑포인트〉, 2018, 랩/힙합, 작사: 이그니토,
작곡: 레이디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뉴 노멀〉, 2018, 랩/힙합, 작사: 이그니토, 형거노마,
작곡: 레이디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인하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공부한 이그니토는 솔로 앨범 〈Demolish〉를 발표하며 래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문학적인 가사를 기반으로 특유의 중저음 목소리와 엇박자의 플로우를 구사하는 랩을 선보이며 한국 힙합 음악산 안에서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였다. 발표한 앨범으로는 〈Demolish〉(2006), 〈Black〉(2011), 〈Gaia〉(2017) 등이 있다.

기후변화는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글로벌 환경 위기이다.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후 이미 1°C 이상 상승했다. 이번 세기말까지 최종 상승폭을 1.5°C로 막지 못하면 병화가 급격히 감소하고, 가뭄, 홍수, 폭우,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증가하며, 해수면이 상승하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등 우리 삶에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는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좋은 삶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하고, 이는 경제산업구조, 교통시스템, 에너지시스템 등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한다. 이 두 곡의 작품은 기후변화와 이를 맞이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랩과 힙합이라는 음악의 형식을 빌어 이야기한 것이다.

〈티핑포인트〉는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참여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뮤직비디오로 제작되었으며 비엔날레 기간 동안 서울로미디어캔버스에서 전시된다. 더불어, 공연 〈기후변화 힙합 토크 콘서트 - 티핑포인트〉를 통해 관객과 기후변화에 대해 소통하고자 한다.



이그니토 프로필,
김성훈 사진
Ignito Profile.
Photo by Kim
Seong Hoon

b. 1982. Lives and works in Seoul.

Tipping point, 2018. Rap/Hip hop. Lyrics: Ignito.
Composition: Radix.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New Normal, 2018. Rap/Hip hop. Lyrics: Ignito,
Hunger Noma. Composition: Radix.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Ignito, who received a BA and an MA in philosophy from Inha University, debuted as a rapper with his solo album *Demolish*. He has pioneered his own path in the Korean hip-hop music scene by developing his rap with his unique baritone and a rhythmical flow composed with a lot of syncopations. Selected albums are *Demolish* (2006), *Black* (2011), and *Gaia* (2017).

Climate change is the most serious global environmental crisis. The average temperature of the earth has risen by more than 1°C since industrialization. Unless we prevent the final temperature increase from reaching 1.5°C, the volume of glaciers will rapidly decrease, increasing the extent of natural disasters, including famine, floods, torrential rain, and typhoon. The sea level will continue to rise, and eco-diversity will decrease, ultimately driving human life into catastrophe. However, the world cannot effectively respond to this climate crisis. For a good life, we first need to respond properly to climate change and make fundamental changes in the economic structure, transportation system, and energy system of society. Through the musical structure of rap and hip-hop, Ignito's two songs describe the way we need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The music video of *Tipping Point* is produced by the collaboration of Greenpeace East Asia Seoul Office, participant artists of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During the Biennale, it is exhibited at SEOULLO MEDIA CANVAS. Additionally, the performance *Climate Change Hip-hop Talk Concert - Tipping Point* will communicate the issues of climate change to the audience.

리카이청 1985년 생. 척왕남 1983년 생.
리호윙미셸 1983년 생. 빅키두 1990년 생. 홍콩에서 활동.

〈나를 아카이브하기 위한 가이드〉, 2018, 온라인 검색 엔진, 설치, 여러 개의 싱글 채널 비디오, 가변 크기,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나를 아카이브하기 위한 가이드(광고)〉, 2018, 싱글 채널 비디오, 컬러, 스테레오, 1분 14초, 16:9

2017년에 설립된 아트 콜렉티브인 인민의 아카이브(AOP: Archive of the People)는 2014년에 선보인 리카이청의 프로젝트 오픈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시작되었다. 이들의 작업은 VT 아트살롱(타이페이, 2017), 오사게 갤러리(홍콩, 2017), 플로팅 프로젝트(홍콩, 2016) 등에서 선보였다.

〈나를 아카이브하기 위한 가이드〉는 작가들이 창조한 아카이브 자료들과 관련된 역사와 공공의 기억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식들을 제시한다. 이 프로젝트는 예술 관련 자료들이 공공 기관에서 분류되고 확산되면서 예술가들을 무력화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여러 위계적 설정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기존의 온라인 아카이브와 검색 장치에 대해 인민의 아카이브는 예술이란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창조적 힘이며 기존의 예술 아카이브에 개입하는 전복적 형식이라고 말한다. 〈나를 아카이브하기 위한 가이드〉는 새롭게 개발된 예술(가) 검색 장치(<https://archive.me.art/>), 인터넷 상에서 보여지는 예술가와 그들의 작업을 유머러스하게 조명하는 영상, 그리고 작가들이 복잡한 기관들과의 관계적 네트워크 안에서 자신들을 아카이브 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교육 패키지로 이루어져 있다.

〈나를 아카이브하기 위한 가이드(광고)〉는 서울로미디어캔버스에서 전시된다.



〈나를 아카이브하기 위한 가이드(예술 아카이브 키트)〉, 작가 제공
A Guide to Archive Me (Art Archive Kit).
Courtesy of the artist

Kai Chung Lee b. 1985. Wing Nam Cheuk b. 1983.
Ho Wing Michelle Lee b. 1983. Vicky Do b. 1990.
Live and work in Hong Kong.

A Guide to Archive Me, 2018. Online searching engine, installation, multiple single-channel videos. Dimension variable.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A Guide to Archive Me (The Commercial), 2018. Single-channel video, color, stereo. 1 min. 14 sec., 16:9

Archive of the People (AOP) is an art collective initiated in 2017. This initiative originates from the Kai Chung Lee's project called open archives initiated in 2014. AOP's work has been featured in international venues including VT Artsalon, Taipei, 2017; Osage Gallery, Hong Kong, 2017; Floating Projects, Hong Kong, 2016.

A Guide to Archive Me suggests different approaches to understanding history and public memory in relation to archival materials created by artists. The project explores the categorization and dispersion of the artist materials in public institutes, which makes artists powerless. In response to existing online archives and search engines based on various hierarchical settings, AOP states art as a bottom-up creative force and subversive form of engaging art archives. The project comprises of a newly developed Art(ist) Searching engine (<https://archive.me.art/>), a series of moving images that elucidates the representation of artists and their material on internet with a sense of humor, a teaching pack that demonstrates how artists can archive themselves in relation to the complex network of organizations and institutes.

A Guide to Archive Me (The Commercial) is exhibited at SEOULLO MEDIA CANVAS.

2017년 결성. 유라시아에서 활동.

〈유라시안 스텝스 – 첫 번째 이동〉, 2018,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청소년 프로젝트 ‘SEED’ 제작 리트발트 빨강 파랑 의자, 인쇄물, 돌페인팅, 온라인 플랫폼(www.unmappingeur.asia), 가변 크기, 작가 제공,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NEDxPO2018 (네덜란드 올림픽 문화 프로그램)의 지원, 카스코 아트 인스티튜트: 커먼스를 위한 실천 커미션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언매핑 유라시아는 유라시아를 가로질러 놓여있는 기존의 영토적 경계와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구별에 의문을 던지고 새로운 연계와 공동체를 향해 길을 만들어 나가는 초지역 문화 프로젝트이다. ‘카스코 아트 인스티튜트: 커먼스를 위한 실천’에서 시발하여 여러 파트너와 더불어 장기간 지속될 이 프로젝트는, 유라시아를 가로지르는 물리적인 힘과 더불어 유라시아 내의 여러 다른 운동들, 기관, 기반시설, 자원, 문화 등에 대한 연구와 경험과 방향성, 그리고 예측을 나누고자 한다.

〈유라시안 스텝스 – 첫 번째 이동〉은 언매핑 유라시아의 첫 번째 이동(위트레흐트부터 아테네를 거쳐 서울로의 여정)에 대한 일종의 보고전이다. 이동에 사용된 참조물과 공동작업, 기록의 일부 등을 재구성하여, 온라인 플랫폼(www.unmappingeur.asia)과 전시에 선보임으로써 관객에게 언매핑 유라시아의 움직임과 위치짓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다.

언매핑 유라시아의 첫 번째 이동 〈유라시안 스텝스 – 첫 번째 이동〉은 더치 컬처재단 협력,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NEDxPO2018 (네덜란드 올림픽 문화 프로그램)의 지원 및 더치 아트 인스티튜트와의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졌다.



종림 스님과 대화 중 촬영, 작가 제공

Taken during the conversation with the Monk Jongrim. Courtesy of artist

Founded in 2017. Based in Eurasia.

Eurasian Steps – The First Movement, 2018. Rietveld's Red and Blue Chairs made by SmileGate Hope Studio SEED team, printed matters, stones, online platform (www.unmappingeur.asia). Dimensions variable. Courtesy of the artist. Commissioned by Casco Art Institute: Working for the Commons &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With the support of NEDxPO2018 (the Dutch cultural program for the Winter Olympics 2018) of the Netherlands Embassy in South Korea.

Unmapping Eurasia is a trans-regional cultural project through which artists raise questions on the territorial borders and the socio-political and cultural division across the Eurasian region to create new forms of relationships and communities. Initiated by “Casco Art Institute: Working for the Commons,” Unmapping Eurasia is a long-term project that has been and will be collaborating with diverse partners. The purpose of the project is to research the physical powers imposed across the Eurasian region, activities, organizations, social infrastructures, resources, and culture, and to share the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experiences, future directions, and potential predictions about the regional situations with others.

Eurasian Steps – The First Movement is a kind of report presentation on Unmapping Eurasia's first journey (from Utrecht through Athens to Seoul). They restructure the references of their project, co-works, and records and present them on an online platform (www.unmappingeur.asia) and in the exhibition, so that the audiences can experience the ways in which Unmapping Eurasia moves, locates, and maps.

Unmapping Eurasia's first journey, *Eurasian Steps – The First Movement*, was supported by DutchCulture (cente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sponsored by NEDxPO2018 (the Dutch cultural program for the Winter Olympics 2018) of the Netherlands Embassy in South Korea and developed in collaboration with the Dutch Art Institute.

1976년 생. 서울에서 활동.

〈한국인을 관두는 법〉, 2018, 2채널 영상, 66분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안건형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송영상과에서 다큐멘터리를 전공했다. 논픽션을 기반으로 실험적인 영화들을 제작하고 있다. 주요작으로는 〈이로 인해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다〉(2014, 63분), 〈동굴 밖으로〉(2011, 92분), 〈고양이가 있었다〉(2008, 115분) 등이 있다.

〈한국인을 관두는 법〉은 ‘태극기 집회’라는 한국식 민족주의 현상을 다루는데, 그 역사적 연원을 따지면서 동시대 한국인의 삶을 묘사한다. 이는 특정 집단이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면, 예외적이라고 간주되는 그 집단 내의 사건은 사실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것이고, 따라서 그 집단 전체의 지표가 된다는 작가의 믿음에 기인한다. 작가는 변방에서의 삶을 다루어 왔다. 변방이란 고유한 지리적 특성에 중심부의 역사가 덧쓰이는 장소다. 그리고 이런 지리적, 지역적 특성과 역사서술의 관계는 영상 매체에서의 이미지와 서사 간의 관계의 메타포가 된다.

b. 1976. Lives and works in Seoul.

How to stop being Korean, 2018. Dual channel digital video. 66 min.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Kearn-Hyung Ahn majored in documentary film at the School of Film, TV & Multimedia of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He mainly produces non-fiction experimental films. Selected films include *With This Thou Wilt Not Perish* (2014, 64 min), *Out of the Cave* (2011, 92 min), and *House of the Freshness* (2008, 115 min).

How to stop being Korean deals with the phenomenon of Korean nationalism represented by the “Taeggeukgi (Korean flag) Rally.” By tracing back the historical roots of this phenomenon, the work portrays the contemporary lives of Korean people. The artist thinks that if a specific group shares common history within itself, any incident that is presumed to be exceptional within the group is, in fact, not an exceptional incident but a representative one that, thus, becomes an indication of the whole group. The artist has also dealt with the lives of the periphery. The periphery is a space in which its own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re covered by the histories of the cent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geographical and regional traits and historiography is a metaphor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image and narrative in the medium of film.



작가 제공

Courtesy of the artist

김동찬 1982년 생. 용인에서 활동.
 민성홍 1972년 생. 안산에서 활동.
 송민규 1981년 생. 서울에서 활동.
 최진요 1982년 생. 서울에서 활동.
 하석준 1971년 생. 서울에서 활동.
 황경현 1990년 생. 서울에서 활동.

〈니에트! 니에트! 니에트!〉, 2018,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보물섬 프로젝트는 김동찬, 민성홍, 송민규, 최진요, 하석준, 황경현 6명의 작가들이 [의기투합 + 길항]의 에너지로 진행된 콜렉티브이다. 2016년 경기창작센터 기획전 〈보물섬〉 프로젝트를 통해서 길항적 다원성이 있는 콜렉티브가 작가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군체'로서의 작가적 삶이 어떻게 개별적이 되는가를 보여주었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에서 보여질 〈니에트! 니에트! 니에트!〉는 보물섬 콜렉티브 여섯 명의 작가들의 '관계'가 비정형의 형태를 유지하며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실천적 프로젝트이다.

김동찬의 설치 〈단독 드리블〉은 작가가 화물 자전거에 누군가가 좋아하는 비디오 게임기를 싣고 작업실을 출발해 약 150km 거리를 이동해 전시가 열리는 미술관에 주차하는 조각작품이다. 민성홍의 설치 〈안테나 새〉는 '안테나' 라는 상징적 오브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환경 내에서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과 정체성을 표현한다. 송민규의 회화 〈어둠의 속도〉는 낮보다 환한 밤의 풍경이다.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시작된 작업은 현 시대의 생명서판이다. 하석준의 미디어 설치 〈종교는 믿는 것, 기술은 이해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는 것이 마치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여지는 동시대 이데올로기의 극한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최진요의 〈글을 쓰는 사람〉은 만화 연재 작업이다. 작가는 사회화의 과정에서 개인이 맞닥뜨리는 불가항력과, 그에 대한 순응을 이야기한다. 황경현의 회화설치 〈평m²〉은 계획도시의 조감경을 인간의 최소 주거면적인 3.3평의 크기에 그려낸 그림이다. 작업은 전시장 바닥에 위치하여, 도시 풍경을 관조하도록 한다.

Dongchan Kim b. 1982. Lives and works in Yongin.
 Seonghong Min b. 1972. Lives and works in Ansan.
 Mingyu Song b. 1981. Lives and works in Seoul.
 Jinyo Choi b. 1982. Lives and works in Seoul.
 Seokjun HA b. 1971. Lives and works in Seoul.
 Gyunghyun Hwang b. 1990. Lives and works in Seoul.

Nyet! Nyet! Nyet!, 2018.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Treasure Island was a project that emerged from the energies of the six artists in [collaboration + contention]. The collective consists of the artists Dongchan Kim, Seonghong Min, Mingyu Song, Jinyo Choi, Seokjun HA, and Gyunghyun Hwang. In the *Treasure Island* project, the artists presented how the collective with contentious plurality operates and influences individual artists, and how the artistic life as a group turns to that of an individual. *Nyet! Nyet! Nyet!*, shown in the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is a performative project that demonstrates the ways in which the "relationship" of the six artists transforms itself and the six individuals, while maintaining its informal shape.

Dongchan Kim's installation work *Dribble* consists of the artist transporting someone's favorite video game machine on a freight-bicycle. Conceived as a sculpture piece, Kim rides the bicycle from his studio and travels approximately 150 km and finally parks at the Museum where the exhibition is held. Seonghong Min's installation *Antennae bird* conveys the invisible influences and identities within our social environment through the symbolic object of "antennae." In his painting *Speed of Darkness*, Mingyu Song illustrates a night scene even brighter than a scene of life at daytime. He worked based on the notion that everything re-starts in the darkness—in this sense, the work represents the genesis of the life of our times. Seokjun HA's media installation *Religion is believing, technology is understanding* represents the extreme situation in which the contemporary ideology that learning new technologies is analogous to accepting a religion becomes dominant. Jinyo Choi's *The Man Who Writes* is a series of cartoons in which the artist describes the irresistible force of a society that individuals confront in the process of socialization and the processes by which they conform to this power. Gyunghyun Hwang's *Squaremeter* is a painting installation that illustrates an aerial view of a planned city within the minimum area of residence, 3.3 pyeong. The work is presented on the floor of the exhibition space so that the audiences can survey the cityscape.

1975년 생. 서울에서 활동.

〈소시오프리컨시〉, 2018, 사운드 설치, 가변 크기,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류한길은 소리 자체와 소리의 내재적 요소로부터 확장되는 여러 가지 허구적 가능성들을 생각하며 작업을 하고 있다. 김태용, 로 위애와 함께 A.Typist를 결성하였고 아시아 즉흥 음악 그룹인 FEN(Far East Network)의 멤버로 활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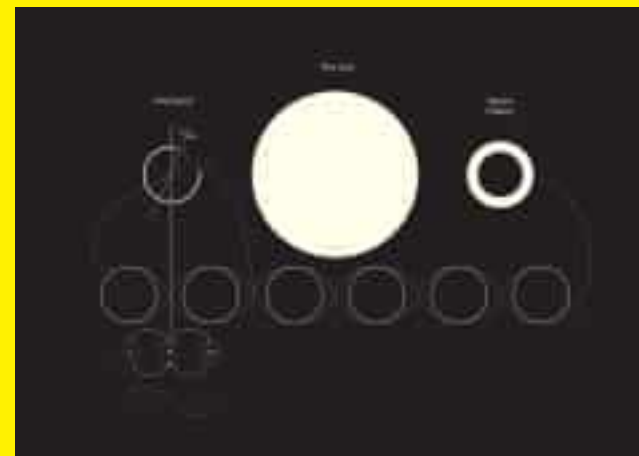
〈소시오프리컨시〉는 류한길이 고안한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주파수 조직체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이다. 곰팡이는 비록 뇌가 없지만 군집을 형성하면 어떤 의지를 통해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우리가 인간 중심적 시선을 건너내면 인간 없이 지속되는 세계를 생각할 수 있고 인간 없는 세계의 모든 구성물들은 고유의 사회성을 가질 것이다. 이 문제는 자연뿐만 아니라 인공물에 대한 통제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우리는 기술을 통제하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다고 믿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다. 마치 우리가 전기를 통제하고 있지만 그것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는 이유와 같다. 류한길은 이러한 인간 인식의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해 마법이나 유사 과학적인 방법론을 적용시켜 〈소시오프리컨시〉의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이 과정을 통해 류한길은 기술적 진보와 과학적 합리주의가 일방향으로 뚫어버린 인간 중심적인 세계에 대한 허구적 대안을 상상한다.

b. 1975. Lives and works in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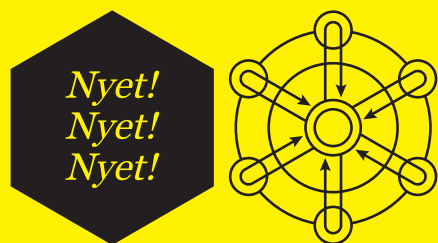
SocioFrequency, 2018. Sound installation.
 Dimensions variable.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Ryu Hankil works based on his interest in diverse fictional possibilities that are drawn and extended from sound itself and elements inherent to sound. He set up the collective A.Typist with Kim Taeyong and lo wie, and works as a member of FEN (Far East Network), an Asian improvisation music group.

SocioFrequency is an algorithm created by Ryu; it generates a self-operating frequency organism. A cluster of mold, even without a brain, tends to spread by a certain kind of inherent will of the organic material. Once we get out of the human-oriented viewpoint, as such, we can imagine a sustainable world, without human beings, where all the elements of the world would have their own unique sociality. This can also be similarly applied to human control over artificial products. Human beings believe that they control technologies and use them. Ironically, however, we hardly know the real nature of artificial commodities. For example, we control electricity, but we do not know why it exists. Ryu made *Sociofrequency* by applying the methods of magick and pseudo-science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human cognition. Through this work and its working processes, the artist imagines a fictional alternative to the human-oriented world, which has been unilaterally crushed by technological progress and scientific rationalism.



작가 제공
 Courtesy of the
 artist



〈니에트! 니에트! 니에트!〉 로고,
 보물섬 콜렉티브
Nyet! Nyet! Nyet! Logo,
Treasure Island Collective

1970년 생. 서울에서 활동.

〈신용〉, 2018, 다양한 재료, 다양한 크기, 양아치,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양아치는 〈가리왕, Tree Man, 孔雀夫人 Sings〉(강원비엔날레, 강릉, 2018),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 윌리-닐리 버전〉(다시세운 프로젝트, 서울, 2016), 〈When Two Galaxies Merge〉(아틀리에 에르메스, 서울, 2017), 〈Black Hole × White Hole〉(2013–2018)(부산비엔날레, 2016), 〈바다 소금 극장〉(〈미묘한 삼각관계〉 전시,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2015), 〈Sweet and sour plums will be more than enough to relieve your thirst〉(메트로폴리타나 갤러리, 산티아고, 2014) 등의 작품을 공개하였으며, 현재 현대카드×제주도, 가파도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제로원 크리에이티브 네트워크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다.

〈신용〉은 약속된 사람들 간에 아닌, 불특정 다수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차례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작가는 지금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호혜적이거나 공리적인 이타주의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와 공동체라는 공동재(common-pool resources)를 사용하면서도 개인에게도 이로운 이타주의, 즉 진화된 형태의 ‘어떤’ 이타주의인 ‘신용’을 관람자와 함께 이야기하며, 고려해 보기를 권하고자 한다. 양아치는 〈신용〉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대화를 통해 삶의 과정이 기능적으로 치부되고 물인격적인 상황에 놓인 이 시대의 사람들이 미디어 현실을 기반으로 다가를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상할 계기를 마련한다.

b. 1970. Lives and works in Seoul.

Credit, 2018. Various materials. Various sizes. Yangachi.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Yangachi is known for works like *Tree Man* (Gangwon Biennale, Gangneung, 2018), *Paik/Abe Video Synthesizer, Willy-Nilly Version* (The Dasi (Again) Sewoon Project, Seoul, 2016), *When Two Galaxies Merge* (Atelier Hermès, Seoul, 2017), *Black Hole × White Hole* (2013–2018) (Busan Biennale, 2016), *Sea Salt Theater (The Subtle Triangle*,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2015), and *Sweet and sour plums will be more than enough to relieve your thirst* (Galeria Metropolitana, Santiago, 2014). He is currently participating in the projects of the Hyundai Card × Jeju Island, Gapado AiR (Artist-in-Residence), ZERO1NE Creative Network Platform.

Credit consists of several periods of projects, not among acquaintances but among unspecified mass audiences. The artist thinks that limitations to reciprocal or utilitarian altruism cannot be helped in today's society. The project encourages the audiences to have a discussion on a possible society or community in which its members share common-pool-resources and individuals can simultaneously receive benefits—in other words, a “certain” advanced form of altruism, or credit. Yangachi established a conversational situation to provide the audience with an opportunity to determine the ways in which the present specifically harbors living processes that are regarded as merely functional and inhumane and to imagine a media-based future.



작가 제공
Courtesy of the
artist

조지은 1975년 생. 양철모 1977년 생. 서울, 경기도에서 활동.

〈오백 명의 남자와 게임 그리고 경품: 면봉 한 봉지, 냅킨 한 봉지, 볼펜 한 자루, 설탕 1 kg짜리 한 봉지, 액자, 소금 1kg 한 봉지, 감자 한 봉지〉, 2018, 단채널 영상(사운드), 7분 40초, 4개의 라이트 패널, 가변 크기,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믹스라이스(조지은, 양철모)는 ‘이주’라는 상황이 만들어낸 여러 흔적과 과정, 경로, 결과, 기억들에 대해 탐구해온 팀이다. 현재는 식물의 이동과 진화, 식민의 흔적과 더불어 이주 주변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상황과 맥락에 대해 사진과 영상, 만화를 통해 작업하고 있다. 주요 참여 전시로는 〈코스모폴리스-컬렉티브 인텔리전스(Cosmopolis-Collective Intelligence)〉(파리, 2017), 제 12회 샤르자 비엔날레 〈The Past, the Present, the Possible〉(샤르자, 2015), 〈nnnc! & mixrice〉(아틀리에 에르메스, 서울, 2013), 제 7회 아시아 퍼시픽 트리에날레(브리즈번, 2012) 등이 있다.

〈오백 명의 남자와 게임 그리고 경품: 면봉 한 봉지, 냅킨 한 봉지, 볼펜 한 자루, 설탕 1 kg짜리 한 봉지, 액자, 소금 1kg 한 봉지, 감자 한 봉지〉는 1998년도에 마석에서 방글라데시 ‘공동체가 스스로 만든 첫 축제’에 대한 이야기이다. 500여 명의 남성들이 단돈 10만원으로 이 축제를 준비했다. ‘1분’이란 게임을 하며 울고 웃으며 보낸 시간과 이야기를 믹스라이스는 마치 한편의 우화처럼 풀어낸다. 믹스라이스는 모든 것이 과잉된 세계에서 우리에게 매우 일상적이고 존재감 없는 면봉 한 봉지, 종이 배 같은 물건들이 어떻게 공동체에게 별처럼 반짝이는 사물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진다. 이야기는 한 이주민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흘러나온 것이며 가까운 미래에 또 어디론가 흘러 가길 기대한다.



작가 제공
Courtesy of the
artist

1977년 생. 서울에서 활동.

〈23:59:60〉, 2015, 2018, 설치, 실크에 프린트,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제작지원
〈23:59:60〉, 2015, 2018, 이미지 슬라이드, 2분 39초,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제작지원

구민자는 일상적 행동과 그에서 기인하는 의문에서 시작되는 사적인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사진, 영상, 설치, 드로잉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작업하고 있다. 홍익대학교 회화과와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후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전문사 과정을 졸업했다. 쌈지스페이스 스튜디오 프로그램과 바르셀로나 앙가르 레지던시, 뉴욕의 ISCP 등 레지던시에 참여했다. 2010년에는 송은미술대상 우수상을 수상했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벨기에 겐트에 위치한 HISK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주요 개인전으로 2009년 〈Identical Times〉(스페이스 크로프트, 서울, 2009), 〈대서양 태평양 상사〉(무어 스트리트 마켓, 뉴욕, 2011), 〈경복: Inside the Belly of Monstro〉(Citadellaan 7, 겐트, 2018) 등이 있고, 〈타이페이 비엔날레〉(타이페이 시립미술관, 2008), 〈VIDEO: VIDE&O〉(아르코 미술관, 서울, 2009), 〈세탁기장식장〉(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서울, 2012), 〈젊은 모색 2013〉(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3) 등 그룹 전시에 초청 전시되었다. 2018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과 SBS 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올해의 작가상〉의 후원작가 네 명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2015년 6월 30일 23시 59분 59초와 7월 1일 0시 0분 0초(UTC 기준) 사이에 “23:59:60”으로 표기될 수 있는 1초의 윤초(閏秒, leap second)가 더해졌다. 윤초가 더해지거나 빠지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며, 지구의 공전 속도에 따르는 태양시와 원자의 진동 단위로 계산되는 표준화된 원자시의 사이에 생기는 시간 차이를 좁히기 위한 것이다. 1970년대 도입된 이래로 대체로 3~4년에 한 번씩 1초가 더해지곤 했으며, 동시에 더해지지만 각 지역 표준 시간대 별로 그 시간은 다르다. 예를 들어 스페인의 경우는 7월 1일 00:59:59와 01:00:00사이에, 브라질의 경우라면 6월 30일 20:59:59와 21:00:00사이에 윤초가 더해졌다. 이 작업의 아이디어는 지구적 차원의 24개 표준 시간대에서 동시에 윤초가 더해지는 그 시간을 촬영함으로써 그 1초라는 “창조된 시간[時覺] 영역”을 포착해보기 위한 것이었다. 여러 방법을 통해 알게 되고 작가에게 참여를 부탁 받은 각 지역의 참여자들은 자신이 있는 장소의 그 시간에, 1초의 노출(셔터 스피드)로 두고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들과 함께 주로나 GPS위치 등의 정보들을 작가에게 사진 원본 데이터와 함께 보냈고, 참여자들이 보낸 사진들은 원본에 비례하는 크기로 천에 인쇄 되어 69개의 깃발로 미술관 곳곳에 설치된다.

〈23:59:60〉의 사진들은 서울로미디어캔버스에서도 이미지 슬라이드의 방식으로 상영된다.



UTC+8 베이징,
레이니아 호
UTC+8 Beijing,
Rania Ho

b. 1977. Lives and works in Seoul.

23:59:60, 2015, 2018. Installation, printed on silk.
With the support of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23:59:60, 2015, 2018. Image Slide. 2 min. 39 sec.
With the support of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Minja Gu's work is based on personal performances that observe and question daily behaviors, which in turn are projected through various media including photography, video, installation, and drawing. She majored in painting at Hongik University and philosophy at Yonsei University and received a master's degree in Fine Arts from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he participated in the SSamzie Space studio program (Seoul), the Hangar Residency for artists (Barcelona), the International Studio & Curatorial Program (ISCP, NYC), and the HISK program (Ghent, 2015–2016). She received the award of excellence in the Songeun Art Award in 2010. Selected solo exhibitions are *Identical Times* (SPACE CROFT, Seoul, 2009), *Atlantic-Pacific co.* (Moore Street Market, New York, 2011), and *Inside the Belly of Monstro* (Citadellaan 7, Ghent, 2018). Gu has also participated in numerous group exhibitions, including the *Taipei Biennale* (Taipei Fine Arts Museum, 2008), *VIDEO: VIDE&O* (Arko Art Center, Seoul, 2009), *A Cabinet in the Washing Machine* (Seodaemun-gu Recycling Center, Seoul, 2012), and *New Visions New Voices 2013*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2013). In 2018, Gu was selected as one of the four sponsored artists for the Korea Artist Prize, an annual award and exhibition co-organized by MMCA and SBS Foundation.

Between June 30, 2015 23:59:59 and July 1 00:00:00 (UTC standard), a leap second marked as 23:59:60 was added. A leap second is added or reduced in order to narrow the gap between the solar time, which follows the orbital velocity of the earth, and the atomic time, which is calculated by the vibration of atoms. Since the leap second was first implemented in the 1970s, 1 second has been added on average every 3-4 years. As the leap second is added simultaneously worldwide, the time of addition is different from region to region. For example, in Spain, the leap second was added between 00:59:59 and 01:00:00 on July 1, and in Brazil, between 20:59:59 and 21:00:00 on June 30. The idea of this work is to capture the “created time dimension” of that specific one second, by photographing the moment of the addition of the leap second in 24 different time zones. The participants in each region, whom the artist got in touch with via diverse routes, took a photograph with 1 second shutter speed all at the same time in their respective locations. The original photo data and information of the place where the photo was captured, such as the address or GPS coordinates, were then sent to the artist. The photos taken by the participants are printed on fabric, in proportion to their original file size, and installed as 69 flags throughout the museum.

The photos of the work 23:59:60 are also shown at SEOULLO MEDIA CANVAS.

김월식 1969년 생. 광동열 1976년 생. 박영균 1979년 생.
이아람 1986년 생. 경기도와 서울에서 활동.

〈반야용선〉, 2018, 창원 시장볼, 지동신, 가네쉬도상
작품에 사용된 폐지를, 60인치 모니터 5개

김월식은 고도의 압축 성장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을 함께 한 커뮤니티의 전체주의적 목적성을 경계하며, 발전과 성장의 동력이자 조력자로서의 개인의 가치에 주목하는 작업을 해왔다.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에서는 예술보다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삶에서 발생하는 의미들을 존중하며 이를 공유하고 나누는 프로젝트인 〈무늬만 커뮤니티〉를 진행하였고 그 외 생활문화재생산지던시 〈인게시장 프로젝트〉, 중증 장애인과의 협업극 〈총체적 난 국〉, 동시대 아시아 예술가들의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 〈cafe in asia〉와 시흥시의 〈모두를 위한 대안적 질문 A3 레지던시〉를 기획하였다. 현재 다사리 청년 문화기획학교의 교장으로 활동 중이다.

〈반야용선〉은 김월식과 '무늬만 커뮤니티'가 지난 10년간 공동체의 현장에서 다양한 실천적 작업을 통하여 관계했던 '개인'을 오마주하는 작업이다. 2010년 안양에서 시작한 폐지를 수거하는 노인들과의 작업은 노인들의 삶의 느낌을 문화와 예술적 가치로 번역하는 시도였고, 이후 몇 년을 거쳐서 매점볼(매점부처)과 시장볼(부처), 지동신 등의 작업으로 확장되었다. 108명의 폐지 수거하는 노인들과 640명의 시장상인, 10명의 무당들과 109명의 네팔인들이 기증한 폐지와 소원들이 결집되어 만들어진 '신'의 도상들은 다시 해체되어 수레바퀴가 구르듯 '반야용선'의 모습으로 다시 제작된다. '개인'의 다양한 삶을 지배했던 욕망과 이기심, 자긍심과 반성, 고민과 실천으로 투영된 성찰의 오늘과, 더욱 더 견고하게 살아갈 내일을 위한 증명으로서의 '반야용선'은 열심히 삶을 꾸리며 살아온 '개인'을 위한 기념비이다.



Wolsik Kim b. 1969. Dongyeal Kwak b. 1976.
Younggyun Park b. 1979. Ahram Lee b. 1986.
Live and work in Gyeonggi-do and Seoul.

Dragon Boat of Wisdom, 2018. Budda and God's
images made by waste paper and wishes
donated by the public, 5 monitors

In his artistic practices, Wol Sik KIM warns against the totalitarian aim of the social community of South Korea throughout national industrialization, while illuminating the value of individuals who had been the driving force and supporters of the nation's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growth. The project titled *Seems Like Community*, created for the Anyang Public Art Project, explored and shared the concept that individuals' lives are more creative and independent than art. He curated the Everyday Life Art and Culture Regeneration Residency called *In-Kye Market Project*, a collaboration theater with the people of severe disabilities called *Total Difficulties. A Play*, research on the community of contemporary Asian artists known as *café in asia*, and Siheung city's *Alternative Questions for All A3 Residency*. He is currently the president of the Dasari School of Youth Cultural Curation.

Dragon Boat of Wisdom is an homage to the "individuals" to whom Wol Sik KIM and Seems Like Community have related over the past ten years through their diverse engaging practices within the communities. The collaboration with the elderlies who collected discarded paper was an attempt to interpret the aged people's emotions and senses and transform them into artistic and cultural value. Afterwards, this project had been expanded to the works of *Snack Bar Buddha*, *Market Buddha*, and *Jidongsin*. The discarded papers donated by the 108 paper-collecting elderlies, 640 sales people in the market, 10 mediums, and 109 Nepalese created the icons, and the icons contain the wishes of all of these people. The artist collective deconstructed these icons and reconstructed them in the form of a "Dragon Boat" that looks like a rolling cart. *Dragon Boat of Wisdom* is a representation that reflects the desires, selfishness, and pride that have dominated "individual" lives. The work is also a consideration of these issues and an experiment to create alternatives. It is not only a formal presentation of the human will for a down-to-earth life for the future, but also a memorial of the "individuals" who have made their living under harsh circumstances.

작가 제공
Courtesy of the
artist

탁영환 1969년 생. 한국, 일본, 중국, 대만에서 활동.
이경남 1959년 생. 서울에서 활동.

〈전기양은 꿈을 꾸는가 1〉, 2018, 비디오, 사운드,
디지털 콤포지션, 2분, 작가 제공,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전기양은 꿈을 꾸는가 2〉, 2018, 비디오,
디지털 콤포지션, 1분 30초, 작가 제공,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미디어 아티스트 탁영환은 일본 무사시노미술대학에서 실험영상과 실험애니메이션을 전공했다. 일본문부과학성 주관 〈아트메구리〉, 소니의 〈SIGHT〉 등의 해외 초청전을 비롯하여, 아트디렉터로 국제에미상 노미네이트, 디지털아트로 아시아 디지털아트어워드 금상, 특별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다. 현재도 혁신적인 애니메이션과 미디어아트로 전방위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종이미술가이자 명상치유전문가인 이경남은 마음의 경계 없이 단지 종이를 접고 비워내는 작업 이후 펼쳐지는 형상에서, 부분은 이미 전체에 숨겨진 질서이며, 창조하는 의식과 마음 너머 절대의식은 다르지 않음을 재발견하였다. 또한 생명 있는 존재는 누구나 예술가라는 자유가 확연히 다가왔다. 오늘도 전체의식과 연결된 지금 여기의 예술성을 확인하며 전신과 교육을 통해 여러 사람들과 삶을 바꾸는 창조적 치유방식을 공유하고 있다.

〈전기양은 꿈을 꾸는가〉는 텍스트와 이미지로 이루어진 실험적인 영상이다. 어쩌면 광고영상, 어쩌면 정보전달용 광고 사인물 같아 보이는 이 영상 설치 작품은 인공지능(A.I.)이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될 근 미래에 대해 많은 대중이 공감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나눠보고자 하는 질문형 작품이다. 작가가 던지는 화두는 우리에게 다가올 근 미래가 미디어에서 흔하게 예상하듯 편협한 시각의 그것이 아니라, 정성 들어 직조(織造)하듯, 인류가 신중하게 선택하게 만들어가는 결과물이라고 얘기한다.

〈전기양은 꿈을 꾸는가 1〉은 서울로미디어캔버스에도 전시된다.



Tak Young Hwan b. 1969. Works in South Korea,
Japan, China, and Taiwan.
Lee Kyung Nam b. 1959. Lives and works in Seoul.

Do Electric Sheep Dream 1, 2018. Video, sound,
digital composition. 2 min. Courtesy of the artist.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Do Electric Sheep Dream 2, 2018. Video, digital
composition. 1 min. 30 sec. Courtesy of the artist.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Media artist Tak Young Hwan majored in experimental film and animation at Musashino Art University, Japan. He was invited to the exhibitions titled *Art Meguri* (hos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and *SIGHT* (hosted by SONY). Tak was nominated for the International Emmy Award in art direction. Selected awards include the gold prize and special prize of the Asia Digital Art Award for digital art. He is currently working multi-dimensionally in the fields of animation and media art. Lee Kyung Nam is a paper artist and meditation therapist. By emptying the mind through the repetitive acts of folding and cutting out papers, Lee rediscovered in the images that unfold in the end, that the fragments represent an order inherently hidden in the whole, that the perception of creative practice and the absolute mind beyond the practice are scarcely different. Furthermore, she realized that every living being is an artist at liberty. While confirming the artistic nature linked to the collective consciousness, Lee currently shares creative therapeutic methods that help change the lives of diverse people through exhibitions and educative programs.

Do Electric Sheep Dream is an experimental video comprised of images and text. It looks like a commercial advertisement video or a juxtaposition of informational sign images. This video installation makes an interrogation into the state of human lives in the near future as artificial intelligence continues to permeate our daily lives, and attempts to make this an opportunity to share diverse ideas with the audience. The artists do not simply represent the message that our near future will be a technology-based one but communicate the idea that the diverse elements carefully selected by society ultimately fabricate the world.

Do Electric Sheep Dream 1 is also exhibited at SEOULLO MEDIA CANVAS.

작가 제공
Courtesy of
the artist

1977년 생. 서울에서 활동.

〈FUTURE SHOP〉, 2018, 혼합 재료, 가변 크기,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배남우는 미국 로드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에서 디지털+미디어로 석사학위 취득 후(2013),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센터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및 국제교류 매니저로 일했다(2014~2015).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5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큐레이토리얼 팀장(2016~2017), 10회 청주공예비엔날레 교육 팀장(2017)으로 일했고, 2018년 현재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 융복합 문화공유 플랫폼 M3 프로젝트 매니저로 재직 중이다.

〈FUTURE SHOP〉은 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초연결사회에 존재할 법한 (상상된) 팝업스토어 프로젝트며, 시스템 교란 프로젝트다. 개인이 순수하게 개인으로 남을 수 있는 것,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내 컴퓨터로 무엇을 보고 저장했는지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 개인이 개인의 익명성을 지키며 덩어리처럼 움직이는 단체의 물결에서 홀로 자유로운 개인으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런 삶이 그리 가깝지도 않고 그렇다고 멀지도 않은 미래의 좋은 삶이라 생각하며,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팝업스토어를 상상해 보는 타임머신 같은 공간이다.

b. 1977. Lives and works in Seoul.

FUTURE SHOP, 2018,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Namwoo Bae received an MFA in Digital Media in Design at the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2013). He was the manager of the international project at the Gyeonggi Creation Center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2014~2015), supervising the artist residency program. Bae also worked as the curatorial manager of the 5th Anyang Public Art Project (Anyang Foundation for Culture and Arts, 2016~2017) and the educational manager of the 10th Cheongju Craft Biennale (2017). He is currently the project manager of M3 of Gyeonggi Sangsang Campus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 multidisciplinary cultural platform.

FUTURE SHOP envisions the near future, where automated mass surveillance fueled by AI is so prevalent that people are accustomed to dealing with it. The goal of this project is to create a conceptual shop in the Seoul Museum of Art, which shows possible props challenging machines, such as camouflage beauty items, mind control gadgets, robot pets, stealth clothing, etc. The shop could be a time machine, which brings people to the near future and lets them experience what they need to undergo in daily life. People have implicitly agreed to share our privacy to giant tech companies by believing that technology will make our lives better. Unfortunately, it seems like the opposite is true based on what has happened and based on what happens.

최성일 1984년 생. 런던과 베를린에서 활동.

리케 글라저 1988년 생. 런던에서 활동.

〈데이터 쿠키〉, 2018, 혼합 재료, 가변 크기,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최성일은 소재와 생산 공정을 연구하여 가능성을 탐구하는 디자이너이다. 그는 대체 공정을 통해 생활에 쓸 수 있는 오브제를 만드는 것에 집중한다. 그는 디자인된 오브제가 그 소재와 공정을 둘러싼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매체라 믿는다. 2015년부터 스튜디오 일리오(studio ilio)를 공동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스튜디오 일리오는 독창적인 기능과 미(美)는 창의적인 소재와 공정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한다. 그들의 창조적인 생산 방식과 오브제 그리고 실험은 공예와 산업의 사이를 오가며 가구와 설치, 조각을 넘나든다. 리케 글라저는 디자인을 현대의 현상을 조명하고 다루는 도구라고 생각한다.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사회적인 상호 작용을 끌어내기 위해, 그리고 교육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에 목적을 두고 다양한 방법과 결과물을 디자인하여 만든다. 2015년부터 그녀는 커먼 이니셔티브(Common Initiative)라는 세 명의 디자이너를 포함한 콜렉티브를 결성하였다. 이 그룹은 디자인이 활성화된 저널리즘의 역할을 통해 각종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선보이는 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뉴스피드 알고리즘은 우리가 보는 메인 페이지 개인창의 콘텐츠를 식별하고 우선 순위를 매겨 보여준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우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행한 상호작용에 의거해 데이터를 분석하여 상품과 포스트의 중요도를 결정한다. 데이터를 통한 예측 분석(predictive analytics)은 미래의 불확실한 이벤트를 예측하는 고급 분석(advance analytics)의 한 갈래이다. 우리는 이러한 특징이 점쟁이(fortune telling)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점이라는 조금은 두리뭉실한 예측이 네트워크가 우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의 성향을 넘어 미래에 할 것 같은 선택을 예측한다는 점과 유사하여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구체화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점을 보는 것의 기초적인 장난과 같은 포춘 쿠키(fortune cookie)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디자인: 조예진
Design by Yejin Cho



작가 제공
Courtesy of the
artist

(Seongil Choi ·
Rike Glaser)

3—2—1

Seongil Choi b. 1984. Lives and works in London and Berlin.
Rike Glaser b. 1988. Lives and works in London.

Data Cookie, 2018.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Seongil Choi is a designer who investigates materials and processes behind production,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way daily items are made through alternate routing. He believes that the designed object is the best medium to convey any stories surrounding the final item, including the material and the entire process behind its construction. Choi co-established studio ilio in 2015. Since its opening, the studio's designers work with the philosophy that the original beauty and function of an object are born from the materials and working processes. Their creative production method, the objects produced, and experiments applied freely cross the line between craftwork and industrial design, and between furniture and installation or sculpture. Rike Glaser is interested in using design as a tool to reflect on contemporary phenomena, for public engagement and social interaction and exploring new methods for education. Since 2015, she is a part of the Common Initiative, a collective of four designers. They ask if design can function as a form of “activated journalism” to unpick and present new ways of understanding contemporary phenomena.

We encounter personalisation on our daily app, website pages. Such as, Facebook's news feed algorithm, that ranks and sorts posts on your stream. These algorithms rely on user interaction data to establish a hierarchy of products, or posts, based on popularity. Which also function in response to user's past activity, and of course, have been tweaked and altered over time by the designers and programers aiming to analyse and predict the user needs. This Predictive analytics is the branch of the advanced analytics which is used to make predictions about unknown future events. Is this a new type of fortune telling? The fortune cookie is an iconic product playing on future prediction. Project *Data Cookie* is a twist on the traditional fortune cookie, translating its meaning into our digital age.

(에바/프랑코 마테스)

3—2—2

(Eva and
Franco Mattes)

1976년 생. 뉴욕에서 활동.

〈BEFNOED〉, 2016, 비디오, 스크린, 주문 제작 벽 받침대, 각종 케이블, 가변 크기, 작가 제공

아티스트 듀오인 에바/프랑코 마테스는 현대 네트워크 사회의 조건에 대응하고 이를 해부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한다. 이들은 온라인 상의 윤리와 정치에 블랙 유머로 접근한다.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SFMOMA), 시카고 MCA(2018 예정), 모리 아트 뮤지엄(도쿄, 2018 예정), 요코하마트리엔날레(요코하마, 2017), 시드니비엔날레(시드니, 2016), 화이트채플 갤러리(런던, 2016), 중국미술관(베이징, 2008), 뉴뮤지엄(뉴욕, 2005), 베니스비엔날레(베니스, 2001) 등에서 열린 전시에 참가했다.

작품 〈BEFNOED〉(By Everyone For No One Every Day, 매일 모두에 의한, 아무도 위하지 않는)를 위해 듀오는 익명의 작업자들에게 안내서를 주고 다양한 행위를 하며 스스로를 촬영하게 하였다. 작업자들은 크라우드소싱 서비스를 통해 고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 그들의 동기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 여러 개의 모니터들은 서로 기대서 설치되거나, 바닥에서 몇 피트 공중으로 띄워져 있는 등 흔치 않은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이 비디오를 보려면 관람자들은 어쩔 수 없이 어색하고 괴상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관람자들이 공간에서 퍼포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스스로 대상이 되어야 하는 대가가 따른다.

b. 1976. Live and work in New York.

BEFNOED, 2016. Video, screen, custom wall bracket, various cables. Dimensions variable. Courtesy of the artist

Eva and Franco Mattes are an artist duo who continually make work, which responds to and dissects our contemporary networked condition, always approaching the ethics and politics of life online with a darkly humorous edge. Exhibition highlights include SFMOMA, forthcoming; MCA, Chicago, 2018; Mori Art Museum, Tokyo, 2018; Yokohama Triennale, Yokohama, 2017; Biennale of Sydney, Sydney, 2016; Whitechapel Gallery, London, 2016; National Art Museum of China, Beijing, 2008; The New Museum, New York, 2005; and the Venice Biennale, Venice, 2001.

For *BEFNOED* — “By Everyone For No One Every Day” — the artists provide instructions for anonymous workers to film themselves performing various acts. Because they are hired through crowdsourcing services, we do not know who or where they are, or even their motivations. The monitors are installed in atypical positions: mounted against one another, or situated a few feet above ground. In order to watch the video, viewers are forced into a series of physically awkward and bizarre positions, in a sense taking on the role of performers in the space. The ability to watch people who are paid to perform and entertain us, comes at the price of becoming subjects themselves.



작가 제공
Courtesy of the
artist

1979년 생. 토론토에서 활동.

〈네일 아트 뮤지엄〉, 2014, 비디오, 6분, 작가 및
패리 내디미 갤러리 제공.

토론토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제레미 베일리는 자신을 스스로 유명 뉴미디어 아티스트(Famous New Media Artist)라고 칭한다. 시카고현대미술관(시카고, 2018), 화이트채플 갤러리(런던, 2018), 트랜스미디어레(베를린, 2012), 뮤지엄카르티에(비엔나, 2013) 등에서 열린 전시에 참가하였고, 최근 팩트(FACT, 리버풀), 터너 컨템포러리(영국 마르게이트), 뉴뮤지엄(뉴욕), 캐롤 플레처(런던) 등에서 커미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네일 아트 뮤지엄〉에서 ‘유명 뉴미디어 아티스트’인 제레미 베일리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작가는 자신의 손톱에 부착된 미술관 좌대(‘미술관에서 가장 파워풀한 오브제’) 위에 가상의 전시를 기획, 개최한다. 비디오 영상에서 베일리는 익명의 인물로 등장하여, 디지털 사생활의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이 시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다. 이 작업은 명성과 사생활, 개인적 표현과 차용의 문제와 같이 인터넷 시대에 흔한 갈등의 문제를 유쾌하게 탐구하면서, 미술관이 이러한 변증법적 문제에 쥐고 있는 권력을 강조하고 있다.

b. 1979. Lives and works in Toronto.

Nail Art Museum, 2014. Video. 6 min. Courtesy of the artist and Pari Nadimi Gallery.

Jeremy Bailey is a Toronto-based self-proclaimed Famous New Media Artist. Previous exhibitions have taken place at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Chicago, Chicago, 2018; Whitechapel Gallery, London, 2018; Transmediale, Berlin, 2012; and MuseumsQuartier Wien, Vienna, 2013. Recent commissions include projects for FACT in Liverpool, Turner Contemporary in Margate UK, the New Museum in New York and Carroll Fletcher in London.

In Nail Art Museum Famous New Media Artist Jeremy Bailey demonstrates new software that allows him to curate and host virtual exhibitions on museum plinths attached to his fingernails “the most powerful objects in the museum.” In the video Bailey appears anonymously, expressing concern about revealing his identity in the wake of an increasing number of digital privacy concerns. The work playfully examines common tensions inherent to our internet age, fame versus privacy, personal expression versus appropriation, while highlighting the power museums have traditionally held in these dialectics.



작가 제공
Courtesy of the
artist

아람 바틀 1972년 생. 나자 부텐도르프 1984년 생.
베를린에서 활동.

〈포스트-스노든 네일〉, 2016, 네일 아트, 손톱에 붙인
다섯 개의 마이크로 SD 카드, 총 128 GB 용량,
디지털 콘텐츠, 작가 제공

아람 바틀은 인터넷, 문화, 현실 사이의 상호 작용을 표현하는 작업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그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커뮤니케이션 채널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고민한다. 바틀은 인간이 미디어로 무엇을 하는가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미디어가 인간을 대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의 작업에서는 공공과 개인, 온라인과 오프라인, 테크놀로지에 대한 갈망과 일상적 삶 사이의 긴장이 핵심을 이룬다. 공공 영역으로 침투하는 작업과 설치 작업은 디지털 세계를 가끔은 놀람도록 물질적으로 나타내며, 실재와 비물질성에 대한 우리의 관념에 도전한다. 바틀은 뉴욕현대미술관(MoMA, 2011),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2017), 베니스비엔날레(2017) 등에 참가하였고, 수 많은 국제 워크숍과 강연,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나자 부텐도르프는 다학제적인 시각 예술가로, 인간의 몸을 인공 지능으로 확장하는 것, 사변적인 외계 시나리오, 포스트휴먼적인 장신구(장착 기기)에 대해 전문적으로 탐색한다. 부텐도르프는 사이보그 e.V. 베를린의 창립 멤버이고, ‘체외배양’(explants)이라는 용어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부텐도르프는 국립할레미술대학교 부르그기비헨슈타인에서 시각 예술 학위를 받았다(2006–2012).

〈포스트-스노든 네일〉은 아람 바틀과 나자 부텐도르프의 협업 작품으로, 2016년 나자의 네일 아트 레지던시 기간에 제작한 것이다. 〈포스트-스노든 네일〉은 마이크로 SD 카드 다섯 개가 한 세트를 이루는 것으로, 한 쪽 손 다섯 개 손톱에 부착되어 있다. 카드마다 각기 다른 데이터가 들어 있고, 이것은 SD-카드-USB 어댑터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데이터가 담긴 각각의 손톱은 직접 컴퓨터의 USB 포트(혹은 휴대폰)에 연결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연결 케이블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Aram Bartholl b. 1972. Nadja Buttendorf b. 1984.
Live and work in Berlin.

Post Snowden Nails, 2016. Nailart, five micro SD cards glued to finger nails, total capacity 128 GB, curated digital content. Courtesy of the artist

Aram Bartholl's work creates an interplay between internet, culture and reality. How do our taken-for-granted communication channels influence us? Bartholl asks not just what humans are doing with media, but what media is doing with humans. Tensions between public and private, online and offline, techno-lust and everyday life are at the core of his work, and his public interventions and installations, often entailing surprisingly physical manifestations of the digital world, challenge our concepts of reality and incorporeality. Bartholl has exhibited at the MoMA, New York, 2011; Skulptur Projekte Münster, Münster, 2017; and Venice Biennale, Venice, 2017; as well as conducting countless workshops, talks and performances internationally. Nadja Buttendorf is a transdisciplinary visual artist who specialized in questions of cybernetic enhancements of the human body, alien speculative scenarios and posthuman jewellery. She is a founding member of the Cyborgs e.V. Berlin and is known to have coined the term “Explants.” Nadja studied from 2006–2012 at the Burg Giebichenstein,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Halle. She holds a diploma degree in visual arts.

Post Snowden Nails is a collaboration project of Aram Bartholl and Nadja Buttendorf, which was done during Nadja's Nail Art Residency in 2016. *Post Snowden Nails* is a set of five micro SD cards glued to the fingernails of one hand. Each card contains a different set of data, which can be accessed with the help of a SD-card-USB adapter. Each data fingernail can be plugged directly into a computer USB port (or phone), in some cases an extension cable might be useful.

작가 제공
Courtesy of the
artist

〈비밀정보교환소〉, 2010—현재 진행 중, 공공 개입,
USB 키, 테플론 테이프, 시멘트, 가변 크기,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비밀정보교환소〉는 공공 공간에서 P2P 방식으로 파일을 공유하는 익명의 오프라인 네트워크다. USB 드라이브가 벽이나 건물 외벽, 도로 경계석 등에 삽입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공공 공간에서 여기에 접근할 수 있다. 누구나 여기에 파일을 넣을 수도 있고 그 안에 있는 파일을 찾을 수도 있다. 좋아하는 파일이나 데이터를 공유하고 싶다면, 노트북을 벽, 집의 외벽, 기둥에 연결하면 된다. 각각의 드라이브는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readme.txt 외에 아무 것도 들어 있지 않은 채 설치되어 있다. 〈비밀정보교환소〉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 〈비밀정보교환소〉는 2층 우측 전시장 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Dead Drops, 2010—ongoing. Public intervention,
USB keys, teflon tape, cement. Dimensions
variable.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Dead Drops is an anonymous, offline, peer to peer file-sharing network in public space. USB flash drives are embedded into walls, buildings and curbs accessible to anybody in public space. Everyone is invited to drop or find files on a dead drop. Plug your laptop to a wall, house or pole to share your favorite files and data. Each dead drop is installed empty except for a readme.txt file explaining the project. *Dead Drops* is open to participation.

☆ *Dead Drops* is installed on a wall in the second floor exhibition space.



〈비밀정보교환소〉, 작가 제공
Dead Drops. Courtesy of
the artist

1981년 생. 미국에서 활동.

〈Brb〉, 2018, 셀카봉, 비디오 블로거 마이크와 조명,
아이폰과 망 케이블, 가변 크기,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에디 바겐넥트의 작품은 표현과 기술 사이에 발생하는 긴장을 탐구하면서, 개념적인 작업을 해킹 및 조각의 형식과 결합시키고자 한다. 바겐넥트는 뉴욕대학교에서 인터랙티브 텔레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 뮤지엄카르티에(비엔나, 2013), 라 가이테 뤼리크(파리), 이스탄불 모던(이스탄불), 화이트채플 갤러리(런던, 2016), MU(에인트호번, 2016)에서 열린 전시에 참가했다.

이 작업은 앞서 선보였던 작품인 〈비대칭적 사랑〉을 연상시키는데, 이는 기능의 이중성을 다룬다. 타인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이 권력의 위계를 정한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의 디지털 인프라의 반영이다. 이러한 점에서 감시 체계는 자본주의와 닮아 있다. 이 작품은 바로크 양식을 대표하는 상들리에를 흉내 낸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객들에게 익숙한 어떤 것으로 인지하게끔 하고, 그리하여 자신들을 지켜보는 카메라와 마이크의 세부를 지나치게 만들고자 한다.

b. 1981. Lives and works in the US.

Brb, 2018. Selfie sticks, vlogger mics and lights with iphones and network cables. Dimensions Variable.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Addie Wagenknecht's work explores the tension between expression and technology. She seeks to blend conceptual work with forms of hacking and sculpture. She has a Masters degree from the Interactive Telecommunications Program at New York University. Previous exhibitions have taken place at MuseumsQuartier Wien, Vienna, 2013; La Gaîté Lyrique, Paris; the Istanbul Modern, Istanbul; Whitechapel Gallery, London, 2016; and the MU, Eindhoven, 2016.

The work calls on the prior hanging piece, *Asymmetric Love*, which plays with the duality of function. It is a reflection of our current digital infrastructure, as the ability and knowledge to monitor others is defining the hierarchy of power; in this way surveillance is like capitalism. The work mimics an iconic baroque chandelier. It attempts to be perceived as something familiar in memory by the audience so that the details of the microphones and cameras gazing onto them are overlooked.



〈비대칭적 사랑〉, 2013, 작가 제공

Asymmetric Love, 2013.
Courtesy of the artist

마르샤 샤겐 1991년 생. 레온 바우 1991년 생.
로테르담에서 활동.

〈반(反)감시 코트 타입 II〉, 2017, 혼합 직물 및 매체,
작가 제공

프로젝트 커버는 네덜란드 디자이너 마르샤 샤겐과
레온 바우가 선보이는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의
제목은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전세계 공용어로 고안된
에스페란토어로 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이들은
정치적, 문화적 차이를 떠나 소통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 프로젝트 커버는 원치 않게 일상적 사물이 추적되는
것에 대항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힘을 부여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다.

〈반(反)감시 코트 타입 II〉는 사생활을 보호하는
코트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면서 우리가 가진 데이터의 안전을 보장한다.
양면으로 뒤집어 입을 수 있는 이 남녀 공용 코트를
착용함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사생활을 멋지게 보호할 수
있다. 금속을 함유한 섬유를 여러 층으로 겹쳐 만든
이 코트는 착용이 가능한 페러데이 케이지(Faraday
cage, 전자기장을 차단하는 구조물)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거나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시그널을
차단한다. 외부 세계와 연결되고 싶다면, 검은색
주머니에 연결을 원하는 기기를 넣으면 된다. 결정은
당신의 문제다.

Marcha Schagen b. 1991. Leon Baauw b. 1991.
Lives and works in Rotterdam.

The Anti-Surveillance Coat Type II, 2017. Mixed
fabrics and materials. Courtesy of the artists

Project KOVR (pronounced cover) is a project by
Dutch designers Marcha Schagen and Leon Baauw.
The project's name comes from Esperanto, created
to be an easy-to-learn, universal language. Its goal
is to put aside political and cultural differences
and enhance communication transparency. Project
KOVr is an ongoing project aimed at giving the
individual the power to weapon itself against the
unwanted tracing of everyday objects.

The Anti-Surveillance Coat Type II is a privacy
protection coat, which is made so that your data
is safe while allowing you to be "disconnected."
Protect yourself and your privacy in style with
this unisex coat, which can be worn inside-out.
By using multiple layers of metalliferous fabrics
it creates a wearable Faraday cage, blocking
every incoming and outgoing signal. Want to stay
connected? The black pockets allow you to still be
reachable with your device of choice. You decide.



수잔 바이어스 사진
Photo by Suzanne Wijers

1982년 생. 프로비던스에서 활동.

〈브레인 버거〉, 2013, 2채널 디지털 비디오,
여러 전자 장치, 44분 23초, 작가 제공

에드 브라운은 2013년 로드 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에서 디지털+미디어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브라운은 스스로를 조각가로 생각하지만 작품에 따라
다양한 재료와 제작 프로세스를 적용한다. 전통적인
매체도 사용하지만 여기에 더하여 발견된 오브제,
디지털 비디오, 오디오, 사진, 인터랙티브 매체, 전자 기기
등을 작품에 활용한다. 종종 유머를 통해 관객들이 작품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여 미국 문화의 모순 및 대중
매체에서 다루는 주제들의 허상을 드러내고, 환멸로 인해
발생하는 만족감, 우울감, 정신적 현존을 느끼게 한다.

〈브레인 버거〉에서 작가는 정신력으로 바비큐에 불을
붙이고 햄버거를 조리하여 식사를 한다. 이것은 마텔
마인드플렉스(Mattel™ Mindflex™)라는 보드게임 EEG
헤드셋을 해킹하고 데이터 패킷을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노트북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노트북에서는
헤드셋을 통해 기록된 뇌파를 읽어낸 그래픽을 보여준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30초 동안 데이터 패킷에 담긴
'명상'의 요소가 어떤 한계점을 지나길 기다리며 듣는다.
그리고 이 작용은 목탄 덩어리를 속에 묻혀 있는
세 개의 전기 성냥에 불이 붙도록 전류를 흘려 보내는
트랜지스터를 작동시킨다.

b. 1982. Lives and works in Providence.

Brain Burger, 2013. Two-channel digital video,
various electronic artifacts. 44 min. 23 sec.
Courtesy of the artist

Ed Brown received his Master of Fine Arts degree
in Digital + Media from RISD in 2013. Though he
considers himself a sculptor, Ed's materials and
processes vary according to what each piece
requires. He has worked with traditional media,
found objects, digital video and audio, photography,
interactive media, electronics, and many more.
Ed's work often uses humor to help the viewer gain
entry into his work in order to reveal contradictions
in American culture, deflate themes in popular
media, and to feel the satisfaction, depression, and
presence of mind that results from disillusionment.

In the piece *Brain Burger* the artist successfully
lights a barbecue grill with his mind. He then cooks
a hamburger and eats it. This was accomplished
by hacking a Mattel™ Mindflex™ board game
EEG headset and feeding the data packet into a
microcontroller and a laptop. The laptop provides
a graphic readout of the brain wave frequencies
recorded by the headset. The microcontroller
listens for the "meditation" value in the data packet
to pass a certain threshold for 30 seconds. This
event trips the transistors which send electrical
currents to three electric matches buried in the
charcoal briquettes causing them to ignite.



작가 제공
Courtesy of the
artist

1982년 생.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

〈임종 지킴이 로봇〉, 2018, 혼합 매체,
15 × 15 × 13 inches,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덴 첸은 디자이너 겸 엔지니어로, 작업 프로토타입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면서 사용자 인터랙션에 새롭게 접근하는 방법을 탐구한다. 코네티컷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로드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에서 석사 학위, MIT에서 MAS를 취득했다. 8년 여 동안 디자이너로 활동한 후 현재 컬처 로보틱스의 수석 엔지니어를 맡고 있다.

마지막 순간의 병원(Last Moment Hospital)은 병원 같은 환경에 설치된 인터랙티브 설치로, 이 곳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마지막 통과 의례를 거친다. 이 빈 방에는 병원 침대 옆에 일종의 의료 기기인 마지막 순간의 로봇(Last Moment Robot)이 놓여 있다. 이 로봇은 패딩 된 팔로 환자를 어루만지는 의료 기기이며, 죽어가는 환자를 안내하고 위로하는 맞춤형 기록 장치이기도 하다. 죽음의 과정은 인간이 삶에서 가장 나약해지는 순간일 것이다. 마지막 순간, 인간은 타인과의 연결 관계를 확인하려고 한다. 이 설치 작업에서는 인간의 자리를 로봇이 대체하면서, 인간성이 부재하는 친밀성의 질적인 문제에 의문을 제기한다.

☆ 〈임종 지킴이 로봇〉을 체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작품 위치에 붙은 공지 사항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b. 1982. Lives and works in San Francisco.

End of Life Care Machine, 2018. Mixed media.
15 × 15 × 13 inches.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Dan Chen is a designer and engineer. He communicates his ideas through working prototypes, investigating new ways of approaching user interactions. He has several degrees including a MAS from MIT, an MFA in digital media from RISD and a BFA in communication design from UConn. He has over 8 years of design experience and now works at Culture Robotics as senior engineer.

Last Moment Hospital is an interactive installation inside a hospital-like environment, where people go for their final rite of passage. In this empty room the Last Moment Robot is by the hospital bed. The robot is constructed as a medical device with a padded caressing arm, and a customized recording device designed to guide and comfort the dying patient. The process of dying is probably the most vulnerable moment of a human life, where one seeks the assurance of human connection. In this installation, human presence is replaced by a robot, questioning the quality of intimacy without humanity.

☆ For people who would like to experience the *End of Life Care Machine*, please refer to the notice near the art piece.



작가 제공
Courtesy of the
artist

1981년 생. 브루클린에서 활동.

〈온라인 쇼핑 센터〉, 2016, 비디오, 11분, 작가 제공

샘 라빈은 아티스트 겸 교육자로, 데이터, 감시, 경찰, 자연 언어 프로세싱, 자동화 등을 주제로 다룬다. 그의 작품은 링컨 센터,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SFMOMA), 파이오니어 워크스, DIS,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뉴뮤지엄, 스미소니언 미술관 등에서 전시되었고, 『뉴요커』, 『워싱턴포스트』, 『가디언』, 『마더보드』, 『와이어드』, 『아틀랜틱』 등에 소개되었다.

약 일주일 간 샘 라빈은 뇌파 측정도(EEG: electroencephalogram) 기기를 이용하여 온라인 쇼핑을 생각하거나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 자신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측정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작가는 자신이 쇼핑에 대해 생각할지, 죽음에 대해 생각할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자신의 컴퓨터를 훈련시켰다. 이후 뇌파 측정도 기기를 장착한 채 잠자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했고, 그 사이 측정기는 컴퓨터와 소통하면서 그의 정신 상태를 분석하고 그를 대신하여 웹사이트를 검색하며 인터넷을 유영한다. 작가의 뇌파에서 병적인 상태가 감지되면 기기는 죽음과 관련된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그가 상업적인 것에 관한 꿈을 꾸다고 감지되면 컴퓨터는 그를 대신하여 aliexpress.com이나 amazon.com 등의 사이트에서 쇼핑을 하며 임의로 물건을 선택해 장바구니에 담는다.

b. 1981. Lives and works in Brooklyn.

Online Shopping Center, 2016. Video. 11 min.
Courtesy of the artist

Sam Lavigne is an artist and educator whose work deals with data, surveillance, cops,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nd automation. He has exhibited work at Lincoln Center, SFMOMA, Pioneer Works, DIS, Ars Electronica, The New Museum, the Smithsonian American Art Museum, and his work has been covered in *the New Yorker*, *the Washington Post*, *the Guardian*, *Motherboard*, *Wired*, *the Atlantic*, and more.

Over the course of a week Sam Lavigne used a consumer-grade EEG machine to record his brain activity while shopping online and thinking about his mortality. With this data, he trained his computer to predict whether he is thinking about shopping or about death. He films himself sleeping while wearing the EEG machine. The machine communicates with his computer, interprets his mental state, and then browses websites on his behalf. If his mental state is morbid, it visits websites related to death. If the computer believes he is dreaming about commerce, it goes shopping for him, selecting items at random from aliexpress.com and amazon.com.



작가 제공
Courtesy of the
artist

1979년 생. 버클리와 시칠리아에서 활동.

〈브러시 스트로크〉, 2012–2018, CNC 커팅한 알루미늄에 UV 프린트, 가변 크기,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 후원.

엘리사 지아디나 파파의 작업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와 테크놀로지의 관계 속에서 젠더, 섹슈얼리티, 노동의 문제를 탐구한다. 뉴욕현대미술관(뉴욕, 2013), 휘트니미술관(뉴욕, 2017), 제 16회 로마콰드리엔날레(로마, 2016), 제 54회 베니스비엔날레의 비공식 인터넷 파빌리온(2011), 라이좀(rhizome.org, 2016), 전자예술관(바젤, 2011) 등에서 전시와 영상을 상영했다. 파파는 로드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UC 버클리어서 미디어 필름 스터디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브러시 스트로크〉는 앞면에 흰색과 회색의 그리드가 프린트된 평평한 미니멀리즘적인 조각 연작이다. 특정 각도에서 보거나 사진으로 촬영하면 조각들은 가장 보편적인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인 포토샵에서 지우는 붓자국으로 인지된다. 이 붓자국들은 조각들이 설치된 공간을 삭제한다. 이 공간에 조각들은 오브제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단순히 디지털 이미지로 존재하는가? 이러한 구분이 필요하기는 한가?

b. 1979. Lives and works in Berkeley and Sicily.

Brush Stroke, 2012–2018. UV print on CNC cut aluminium. Dimensions variable.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With the support of Italian Cultural Institute in Seoul.

Elisa Giardina Papa's work investigates gender, sexuality, and labor in relation to neoliberal capitalism and technology. Her work has been exhibited and screened at MoMA, New York, 2013; Whitney Museum, New York, 2017; XVI Quadriennale di Roma, Rome, 2016; Unofficial Internet Pavilion of 54th Venice Biennial, Venice, 2011; rhizome.org, 2016; Haus für elektronische Künste, Basel, 2011; and more. She is currently pursuing a PhD in media and film studies at UC Berkeley and received an MFA from RISD.

Brush Stroke is a series of flat, minimalist sculptures printed with a white and grey grid on the front side. Seen and photographed from a specific point of view, they are perceived as deleting brush strokes from Adobe Photoshop, one of the most popular image editing applications. These brush strokes erase the space in which they are installed. Do these sculptures exist as objects in space, or merely as digital images? Is this distinction even necessary?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



작가 제공
Courtesy of the artist

1981년 생. 베를린에서 활동.

〈CV Dazzle〉, 2010–2018, 혼합 매체, 가변 크기, 작가 제공
〈프라이버시 생각하기〉, 2016–2018, 커스텀 사이니지에 그래픽 프린트, 가변 크기, 작가 제공
〈프라이버시 기프트 숍〉, 2013–진행 중, 전자 상거래 플랫폼, <https://privacygiftshop.com>, 작가 제공

미국의 작가이자 연구자인 아담 하비는 점차 강화되는 감시의 세계를 향한 전략적인 디자인 프로젝트를 개발한다. 하비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공학과 포토저널리즘을 전공하고 뉴욕대학교에서 인터랙티브 텔레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졸업했다.

〈CV Dazzle〉은 컴퓨터 비전으로부터 모습을 감추는 일종의 변장이다. 대담한 패턴닝을 활용하여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이 타깃으로 예상한 모습을 파괴하는 것이다. 〈프라이버시 생각하기〉는 슬로건과 포스터를 활용하는 연작으로, 자극적이면서도 교육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이 작업은 넘쳐나는 데이터 취함의 시대에 새롭게 출몰하는 사안들에 관한 의식을 일깨운다. 〈프라이버시 기프트 숍〉은 프라이버시 프로파간다와 반(反)-감시적 작품을 위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이 매장은 개념적인 프로젝트이면서 동시에 기능적인 기프트숍으로서 맞춤형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을 판매한다. 현재 판매하는 반-감시적 제품은 〈스카이라프트(SkyLift)〉이다. 이것은 기능적 위치 확인 패러디 장치로, 휴대폰을 속여 현 위치가 가상적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게 만든다.

b. 1981. Lives and works in Berlin.

CV Dazzle, 2010–2018.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Courtesy of the artist
Think Privacy, 2016–2018. Graphic prints and custom signage. Dimensions variable. Courtesy of the artist
Privacy Gift Shop, 2013–ongoing. E-commerce platform. <https://privacygiftshop.com> Courtesy of the artist

Adam Harvey is an American artist and researcher who develops tactical design projects for a world of increasing surveillance. He is a graduate of the Interactive Telecommunications Program at NYU, and he previously studied engineering and photojournalism at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In 2010 Harvey developed *CV Dazzle*, a type of camouflage from computer vision that uses bold patterning to break face detection algorithms. He then developed the *Privacy Gift Shop* in 2013 as an e-commerce platform to help normalize these types of counter-surveillance ideas and push back against surveillance capitalism. In 2016 Harvey launched a series of privacy propaganda posters, called *Think Privacy*, on the *Privacy Gift Shop* to raise awareness about privacy in an era of exuberant data collection.

Most recently he has developed a Wi-Fi geolocation spoofing device, *SkyLift*, that can trick phones into virtually appearing anywhere in the connected world. The summer 2018 edition of *SkyLift* is called "Data Pools" and is designed to relocate smartphones to the private pool locations of the 12 biggest CEOs in tech.



〈스카이라프트(SkyLift)〉,
작가 제공
SkyLift. Courtesy of the artist

1985년 생. 캘리포니아에서 활동.

〈데이터 마스크(시리즈)〉, 2013–2015, 3D 프린트 나일론, 거울, 안면 인식 및 탐지 알고리즘, 유전 알고리즘, 18 × 26 cm, 작가 제공

스텔링 크리스핀은 인간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가는 테크노-유기성(techno-organism)의 관계를 탐구한다. 크리스핀에게 기술은 '기술적 타자'(Technological Other), 즉 모든 기계와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글로벌 슈퍼-유기물을 의미하기도 한다. 작가는 기술을 의도적으로 잘못 사용하거나 엔지니어링을 역으로 수행하면서 형상이 없는 것에 형상을 부여한다. 그는 기술적 타자에 의해 변형된 인간의 의식, 그리고 미래에 관해 존재하는 모순적 서사를 통해 현재를 그려나간다.

〈데이터 마스크〉는 역 엔지니어링 안면 인식 및 탐지 알고리즘으로 제작되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진화하는 시스템이 인간과 같은 얼굴을 제작하도록 유도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렇게 생성된 얼굴들은 마스크, 즉 기계의 눈으로 본 인간의 그림자로 3D 프린팅되었다. 이것은 기계와 감시 국가가 인간의 정체성을 바라보는 방식을 드러내고, 보이지 않는 힘의 구조를 가시화한다. 〈데이터 마스크〉는 기계의 알고리즘적인 영적 세계에서 고집어내 우리의 물질적 삶으로 들어온 애니미즘적 신의 존재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미래에 관해 우리에게 경고하기도 한다. 〈데이터-마스크〉는 저항의 행동이자 시(詩)이면서 시민적 불복종을 위한 행동이고, 기술로 뒤덮여가는 지구촌 시민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샤머니즘적 의식(儀式) 행위이기도 하다.

b. 1985. Lives and works in California.

Data-Masks (series), 2013–2015. 3D printed nylon, mirror, facial recognition and detection algorithms, genetic algorithms. 18 × 26 cm. Courtesy of the artist

Sterling Crispin explore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growing techno-organism as it relates to humans. By technology he also means the “Technological Other”, a global super-organism of all machines and software. He misuses or reverse-engineers this technology to give form to the formless. He depicts our consciousness transformed by the Technological Other and the conflicting narratives that exist about the future and thus the present.

Data-Masks are masks created by reverse engineering facial recognition and detection algorithms. These algorithms were used to guide an evolving system toward the production of human-like faces. These evolved faces were 3D printed as masks, shadows of humans seen by the machine. This exposes the way the machine and the surveillance state view human identity and makes the invisible power structures visible. *Data-Masks* are animistic deities brought out of the algorithmic-spirit-world of the machine and into our material world, ready to tell us their secrets or warn us of the future. *Data-Masks* are for acts of protest, poetry, civil disobedience, and shamanistic ritual by the citizens of our global village as it becomes blanketed by techno-sphere.



작가 제공
Courtesy of the artist

1991년 생. 서울에서 활동.

〈홈비디오 #43, 미디어시티 나들이(2056, 9)〉, 2018, 다양한 크기의 조각군, 1200 × 900 × 285 cm,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최하늘은 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했다. 산수문화(서울, 2018)와 합정지구(서울, 2017)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주요 그룹 전시로는 〈취미관〉(취미가, 서울, 2017), 〈2X2〉(시청각, 서울, 2017), 〈로터스 랜드〉(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17), 〈디셈버〉(시청각, 서울, 2016) 등이 있다.

최하늘은 아이들이 촉각에 대한 욕망이 풍부하다는 점과, 미술관에서는 그 누구도 절대 작품을 만질 수 없다는 규칙을 대조하면서 미술관의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작동하는 미적 감상에 의문을 갖는다. 이러한 의문점에서 출발하여 작가는 무엇이든 만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터치스크린’적 본능을 오히려 막는 실내 조각 놀이터를 제시한다. 작가는 누구나 언제든지 만질 수 있는 조각들로 이루어진 이 공간이,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부모들의 휴식을 담당하는 조각 공원으로 기능하길 염원한다.

b. 1991. Lives and works in Seoul.

Home-video #43, A picnic to Mediacity (2056, 9), 2018. Various sizes of sculptures. 1200 × 900 × 285 cm.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Choi Haneyl received a BFA in sculptur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n MFA from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He held solo exhibitions at sansumunhwa (Seoul, 2018) and HAPJUNGJIGU (Seoul, 2017). Selected group exhibitions are *TasteView* (Tastehouse, Seoul, 2017), *2X2* (Audio Visual Pavilion, Seoul, 2017), *Lotus Land* (Asia Culture Center, Gwangju, 2017), and *December* (Audio Visual Pavilion, Seoul, 2016).

Choi Haneyl poses a question on the conflicts in the aesthetic experiences of family members visiting museums by making a contrast between children's strong tactile desires and the museums' ban on touching any artworks. Based on this query, the artist presents an interior sculpture playground that does not prohibit a child's desire to touch, or the “touch screen” instinct. Artist hopes that this space will function as both a playground for children and a resting area for parents.



작가 제공
Courtesy of the artist

2012년 설립. 서울에서 활동.

〈위드오피스〉, 2018, 책상, 의자, 오피스 집기, 재봉틀 등,
가변 크기, 작가 제공,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위드굿즈〉, 2018, 시계, 반질고리, 접시, 가변 크기,
작가 제공,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000간[공공공간]은 2011년 서울 창신동에서 활동을 시작한 예술, 디자인 단체로, 지역기반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오며 사회적 기업의 형태가 되었다. 2014년 창신동 지역의 산업적 문제를 해결하는 제로웨이스트 디자인 제품 개발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소상공인들과 협력하며 봉제 생산 기반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으며, 다양한 기업들과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회공헌),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현대자동차와 함께한 H-village프로젝트가 있으며, 전시로는 <씨실과 날실로>(서울시립미술관, 2018)와 <새공공 디자인>(문화역 284, 서울, 2017)이 있으며, 대표 신원예는 2017년에는 까르띠에 여성 창업 어워드(Cartier Women's Initiative Award)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었다.

000간은 동대문 인근 지역을 거점으로 '지속가능한 디자인', '제로웨이스트 디자인' 등을 지역의 소상공인과 여러 기업, 단체들과의 협업 관계를 확장하며 실천해 왔다. 우리 삶의 필수요소인 '의·식·주'에서 의복 혹은 생활용품의 영역에서 생산, 소비와 폐기까지 우리가 지향해야하는 '좋은 삶, 좋은 물건, 좋은 일거리(생산)'에 대해 고민하며 그 고민들을 다양한 협력관계 안에서 변주해 왔다. 비엔날레 기간 동안 팝업 오피스에서는 단순히 완성된 물건이 진열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물건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다양한 관계와 협력의 과정들이 일어나는지 그 활발한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이 임시 오피스는 다양한 노마드 크리에이터들이 활용하는 코워킹 공간이자 일시적인 공동체로서 '좋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축적해 간다. 비엔날레의 팝업 오피스는 000간 활동의 다양한 발산성을 보여주는 계기로서, 의·식·주(반질고리, 접시, 시계)관련 굿즈 모듈을 기획하고 양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특별 프로젝트 또한 진행한다.



000간 창신
오피스, 작가 제공
Office of Zero
Space, located
in Changsin-
dong. Courtesy
of the artist

Founded in 2012. Works in Seoul.

With Office, 2018. Desks, chairs, office stuffs,
sewing machines. Dimensions variable. Courtesy
of the artist.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Withgoods, 2018. Clock, sewing box, ceramic
plate. Dimensions variable. Courtesy of the artist.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Zero Space began as an art and design group established in Changsin-dong, Seoul in 2011, and turned into a social enterprise as the group completed diverse regionally based projects. In 2014, they developed various projects in collaboration with people of small businesses throughout the region, especially to improve the regional industry through the development of zero-waste design items, which led to the creation of a network of sewing factories. Additionally, they have engineered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CSV (Creating Shared Value) projects with diverse corporations. Selected projects and exhibitions include the H-village (collaboration with Hyundai Motor Company) and *with weft, weft warp* (Seoul Museum of Art, 2018) and *New Public Design* (Culture Station Seoul 284, Seoul, 2017). Shin Yunye, the representative of the group, was shortlisted on the Asia Pacific Region sector of the Cartier Women's Initiative Award.

Zero Space, based in the Dongdaemun area, has practiced “sustainable design” and “zero waste” through a variety of collaboration projects with people of small businesses throughout the region,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expanding the boundarie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art and design. Among the essential human conditions of clothing, food, and housing, Zero Space focuses on clothing and daily items. The group examines the processes from production to consumption and how human beings lead a “good life, secure good objects, and maintain good work (production),” while exploring various related issues in their collaboration projects. During the biennale, Zero Space sets up a pop-up office, in which they not only present completed products but also demonstrate how many different collaborative relationships are created during the production process of a single item. This temporary office also functions as a co-working space for nomadic creators and as a temporary community, which collects stories about a “good life.” The pop-up office of this biennale provides an opportunity to showcase the power of dissemination stemming from collaborative activities. Zero Space also hosts a special project to demonstrate the planning process and mass production of goods pertaining to daily life (e.g. sewing boxes, plates, and watches).

2015년 결성.

이병재 1982년 생. 이윤호 1983년 생. 서울에서 활동.

〈낮잠 특급〉, 2018, 혼합 재료, (w) 5 × (d) 2 × (h) 2.3 m,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2015년 서울 을지로에 만들어진 신도시는 미술/디자인, 음악을 하는 이병재와 사진가 이윤호가 운영하는 팀이자 공간이다. 공간은 기본적으로 바(bar)로 운영되며, 공연, 상영회, 파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있다. 신도시 공간 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이외에도 전시나 기획, 디자인 등 다양한 활동과 프로젝트들을 통해 외연을 넓혀 가고 있다. 2016년에는 자체 콘텐츠를 생산하는 SDS 프로덕션(SDS Production)을 설립해 음악가, 디자이너, 미술가, 만화가 등과 협업하여 음반, 출판물, 영상물을 기획, 제작하고 있다.

낮잠은 지친 마음에 활기를 가져다 주고 생산성과 통찰력을 증가시켜 준다고 한다. 동시에 일상 속 게으름이나 휴식을 빙자한 일탈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 신도시는 비엔날레에서 잠시나마 한낮의 수면을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휴식 기구를 제작한다. 이 기구는 설정된 공간 안에서 체험자를 달래주고 어르면서, 성인을 위한 요람(Cradle)과 같은 역할을 한다. '낮잠 특급'이라 명명된 이 작업은 놀이기구를 표방한 '탈 것'의 형태를 토대로 다양한 시청각 장치들과 결합 되고 개조 된다. 시청각 장치들은 협업의 과정을 통해 음악은 '자장가', 그래픽은 '모빌'을 모티브로 치환되어 출력된다. 신도시는 그간 물리적 공간을 운영하면서 협업자들과 함께 다양한 가능성이 생산되는 일종의 플랫폼이자 워크스테이션으로서의 '장소'를 작동시켜왔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일시적으로 작동하는 이 기구는, 이번 전시를 통해 '개인'과 그에 따른 '도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변주된다.



Founded in 2015.

Lee Byoung Jae b. 1982. lee yun ho b. 1983.
Live and work in Seoul.

Snooze Express, 2018. Mixed media.
(w) 5 × (d) 2 × (h) 2.3 m.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Lee Byoung Jae, an artist, designer, and musician, and lee yun ho, a photographer, established seendosi, based in Euljiro of Seoul, in 2015. It is the name of the artistic team and indicates a space, too. The space takes the form of a bar where the team holds diverse events, including music concerts, film screenings, and parties. In addition to the space-based activities, seendosi curates, holds exhibitions, and carries out design projects, expanding the boundaries of their practices. In 2016, they established SDS Production, which develops its own content and has produced records and published books and videos in collaboration with musicians, designers, visual artists, and cartoonists.

Taking a nap is known to refresh the tired mind and improve productivity and insight. On the other hand, it is a time to escape reality in the name of laziness or rest. For this biennale, seendosi produces an instrument to experience rest, even to sleep during the day. This instrument functions as a cradle for adults within a designated space, calming and soothing the tired bodies and minds of the audience. *Snooze Express* was designed based on the structure of a toy-like “vehicle,” but combining it with diverse audio-visual devices, created through collaborations with other practitioners, can remodel its form; sound emerges as a “lullaby” and graphic images revolve, mimicking a “mobile.” In its physical space, the seendosi team has operated a “space” that functions as a platform and a workstation for a variety of collaborative projects full of potentiality. In the extended context, *Snooze Express*, a temporary instrument, demonstrates another framework for a collaboration project, focusing on the meanings of “individual” and “instrument.”

작가 제공

Courtesy of the
artist

1974년 생. 서울과 베를린에서 활동.

〈목걸이로 측정된 10년 간의 바이오매스 [1523그루의 나무 / 나의열대우림농장 2008 - 2018] _ 서울 버전〉, 2018, 1523개의 목걸이 설치, 가변 크기, 작가 제공,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망고-02, 2018년 5월 19일 [나무의 돌레를 재는 법], 2018, 포토그램, 진열 케이스 내 20 × 20 cm, 작가 제공,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몰입의 규칙 / 아보카도, 카카오, 치코, 코코넛, 달란단, 두왓, 구아바, 구아바노, 칼라만시, 카마공, 카소이, 랑카, 라왕, 마코파, 마호가니, 망고, 몰라베, 나라, 포멜로, 산톨, 티크〉, 2018, 비디오, 1분 31초, 작가 제공,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디르크 플라이쉬만은 프랑크푸르트 슈테델슐레 시립미술대학을 졸업했다. 플라이쉬만은 〈숭고. 세상의 떨림(Sublime. The Tremors of the World)〉(종피두센터 메츠, 스톡홀름, 2016), 〈삶 그 자체(Life Itself)〉(스톡홀름 현대미술관, 2016), 〈도가도 비상도〉(광주디자인비엔날레, 2011), 〈미래의 기억들〉(리움미술관, 서울, 2010), 〈쾌락의 교환가치〉(부산시립미술관, 2005), 〈랑데부(Rendez-vous)〉(리움현대미술관, 2004), 마니페스타 4(프랑크푸르트, 2002) 등 수많은 전시에 참가했다.



〈나의열대우림농장〉의 아카이브 이미지, 작가 제공

Archive Image of *myforestfarm*.
 Courtesy of the artist

〈목걸이로 측정된 10년 간의 바이오매스 [1523그루의 나무 / 나의열대우림농장 2008-2018] _ 서울 버전〉은 2008년부터 계속 진행중인 플라이쉬만의 장기 프로젝트 〈나의열대우림농장〉(www.myforestfarm.com)의 일부로, 생태(기후변화)와 글로벌화(배출권 거래제) 분야를 주제로 한다. 전시 작업은 열대우림농장 내 나무의 성장을 통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감소를 확인하고, 입증하고, 수치화하는 과학적 방법에 대한 미학적 접근을 제안한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의해 만들어진 금융 수단(예: 탄소 배출권)에 대한 확장으로 대안적인 미시 경제의 모델을 보여주고자 한다.

〈몰입의 규칙〉은 디르크 플라이쉬만의 〈나의열대우림농장〉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8년 이후 필리핀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 종의 이름들을 읽어내는 기호학적 작품이다. 영상 내 나무의 기표들은 관람객에게 나무를 읽는 과정을 경험하게 한다. 관람객들은 지속적으로 응시하고, 기억과 상상력을 동원하여야만 움직이는 글자를 읽을 수 있다. 이는 통상적으로 광고판에 등장하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한 대안적 인식을 일깨운다. 글자들이 서로 겹쳐지는 동영상이 작업은 숲에서 자라는 나무의 유기적 성장에 대한 비유로 작용한다. 〈몰입의 규칙〉은 서울로미디어캔버스에 전시된다.

b. 1974. Lives and works in Seoul and Berlin

A Decade of Biomass Measured with Necklaces [1523 Trees / myforestfarm 2008 - 2018] _ Seoul Version, 2018. Installation with 1523 necklaces. Dimensions variable. Courtesy of the artist.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Mango - 02 as at 19 May 2018 [How to Capture the Circumference of a Tree], 2018. Photogram. 20 × 20 cm in a display case. Courtesy of the artist.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The Rules of Absorption / AVOCADO, CACAO, CHICO, COCONUT, DALANDAN, DUHAT, GUAVA, GUYABANO, KALAMANSI, KAMAGONG, KASOY, LANGKA, LAUAN, MACOPA, MAHOGANY, MANGO, MOLAVE, NARRA, POMELO, SANTOL, TEAK, 2018. Video. 1 min. 31 sec. Courtesy of the artist.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Dirk Fleischmann studied at Städelsschule, Staatliche Hochschule für Bildende Künste, Frankfurt a.M. in Germany. He has participated in numerous international exhibitions notably *Sublime. The Tremors of the World* (Centre Pompidou-Metz, 2016), *Life Itself* (Moderna Museet, Stockholm, 2016), *Design is Design is Not Design* (Gwangju Design Biennale, 2011), *Memories of The Future* (Leeum Museum, Seoul, 2010), *Exchange Value of Pleasure* (Museum of Modern Art, Busan, 2005), *Rendez-vous* (Musée d'Art Contemporain de Lyon, 2004), and MANIFESTA 4 (Frankfurt a.M., 2002) among others.

A Decade of Biomass Measured with Necklaces [1523 Trees / myforestfarm 2008 - 2018] _ Seoul Version is part of Fleischmann's long-term research project *myforestfarm* (since 2008, www.myforestfarm.com), which operates within the field of ecology (climate change) and globalization (emissions trading schemes). The exhibited works suggest aesthetic approaches to scientific methods regarding the challenge to identify, validate, verify and quantify the growth of trees in a forest and the resulting carbon dioxide captured from the atmosphere. The project demonstrates alternative micro-economic models as an expansion to the existing financial instruments (e.g. Carbon Credits) implemented by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The Rules of Absorption is a semiotic art work that suggests a delayed reading of the names of the tree species that have been growing in the Philippines since 2008 as part of Dirk Fleischmann's *myforestfarm* project. The signifiers of the trees become a processual experience for the beholder. The appearance of the animated letters require a durational engagement of the viewer. The words may only be constructed in the mind of the viewer involving memory and imagination. It creates an alternate percept to the usual way how text and images are perceived on public billboards. The animated overlapping of the letters becomes a metaphor for the organic growth of a tree in a forest. *The Rules of Absorption* is exhibited at SEOULLO MEDIA CANVAS.

2013년 결성. 서울에서 활동.

〈Open Research Station〉, 2018, 웹 기반 리서치 플랫폼, 가변 크기,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미팅룸(meetingroom)은 큐레이터, 작품보존가, 연구자로 구성된 비영리 연구 단체다. 전시기획, 아트 아카이브, 작품보존, 미술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과 정보를 공유하는 동명의 웹 플랫폼 '미팅룸(meetingroom.co.kr)'과 시각예술연구를 위한 온라인 리서치 플랫폼 '인덱스룸(indexroom.co.kr)'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 연구, 교육, 출판 등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미팅룸은 비엔날레 기간 동안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질문을 토대로, 'meetingroom,' 'indexroom,' 'FAQ'로 구성된 〈Open Research Station〉을 운영한다. 'FAQ'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오픈 리서치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미팅룸의 중장기 리서치 프로젝트로 '사전리서치/분석 및 해설/출판'의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FAQ'는 미술계 현장에서 일어나는 창작, 전시, 감상, 유통, 연구 활동 등 각 영역에 대한 참여자의 궁금증을 취합,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봄으로써 참여형 리서치와 협업의 가능성을 실험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첫 단계인 사전리서치를 진행한다.



Founded in 2013. Lives and works in Seoul.

Open Research Station, 2018. Web-based research platform. Dimensions variable.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meetingroom is a non-profit organization, comprised of curators, art conservators, and researchers. The organization operates two websites: a web platform of its own name (meetingroom.co.kr) in which people can share information on curation, art archives, art conservation, and the art market, and an online research platform (indexroom.co.kr) for the research of visual art. It performs diverse online and offline activities, including exhibitions, research, education, and publications.

For this biennale, meetingroom raises the question on "how people share knowledge and information on online platforms in the digital media environment," and operates the *Open Research Station*, which consists of a "meetingroom," an "indexroom," and "FAQ." Using a web application, the "FAQ" is the meetingroom's mid- to long-term research project examining the potential of open research. The project proceeds in three steps: pre-research, analysis and commentaries, and publication. "FAQ" experiments with participatory research and potential collaborations by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participants' questions on creation, exhibition, appreciation, distribution, and research in the field of art, and by listening to the comments or opinions of experts. In this exhibition, meetingroom advances pre-research, the first step of the process.

미팅룸 로고, 작가 제공
meetingroom Logo.
Courtesy of the artist

2017년 결성. 지구에서 활동.

〈SEEWITH〉, 2018, 비디오 스트리밍, 가변 크기,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SEAWEED〉, 2018, 싱글 채널 비디오, 가변 크기,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씨위드는 예술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네트워크 플랫폼이다. 국내외의 예술가와 문화 콘텐츠 생산자들이 함께하며, 일과 놀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다. 씨위드 활동의 중심인 독립 문화예술 잡지 『씨위드 저널』은 2017년 창간되었고, 지금까지 총 세 번의 국·영문판 잡지와 웹진을 발간했다. 이에 더해 씨위드는 네트워킹 파티·협업프로젝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일종의 놀이 노동, 플레이버(play+labor)의 장을 마련하며, 지역이나 영역에 구분 없이 재미와 의미를 추구하는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온/오프라인 공간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씨위드는 두 가지의 작품을 통해 예측불가하고 유동적인 씨위드를 보여준다. 한 작품은 제주도의 씨위드 공간을 보여주는 영상 스트리밍이고, 또 다른 작품은 씨위드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수의 생산자가 생각하는 좋은 삶에 대한 인터뷰로 구성된 영상이다. 씨위드는 예술가들의 자발적이고 유연한 콜렉티브로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그들의 활동을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소개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2018년 6월에 발행된 『씨위드 저널』 3호 『지구백과』를 기점으로 400명 이상의 잠재적 생산자 네트워크를 갖는 공동체가 되었다. 이번 비엔날레에서 씨위드가 보여주는 협력을 통한 창의적 행동의 방식은 우리에게 '좋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삶의 방식을 제시할 것이다.

Founded in 2017. Lives and works on the Earth.

SEEWITH, 2018. Video streaming. Dimensions variable.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SEAWEED, 2018. Single-channel video. Dimensions variable.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SEAWEED, a global network platform based on art, collaborates with local and international artists and cultural content producers to experiment with projects that cross the border between work and play. In 2017, SEAWEED published the independent art and culture magazine *SEAWEED Journal*, which is the focus of their activities—so far, they have published three editions in Korean and English, both online and printed versions. In addition, SEAWEED opened a space called playbor (a combination of play and labor) through diverse practices, such as networking parties and collaboration projects, ultimately aiming to create online and offline spaces where artists of all regions and genres can freely pursue enjoyable and meaningful projects.

SEAWEED presents two artworks to demonstrate the unpredictable and flexible characteristics of the collective. One is a streaming video that shows the SEAWEED space on Jeju Island, and the other is a video work of interviews with numerous producers who are linked with SEAWEED through a network. In the video, the interviewees talk about their thoughts on a good life. The members of SEAWEED have worked in the form of a voluntary and flexible collective, mainly attempting to introduce their practices and share them with online and offline audiences. The publication of the third edition of *SEAWEED Journal* (June 2018) on the topic of the "Earth Encyclopedia" was the point at which the collective became an established community that joins over 400 potential creators. In this biennale, SEAWEED presents the various approaches to creative practices through collaborations between networked people, which suggest a path to a "good life."



작가 제공
Courtesy of the
artist

(윤원화, 윤지원)

3—9

(Wonhwa Yoon,
Jeewon Yoon)

윤원화 1981년 생. 윤지원 1985년 생. 서울에서 활동.

〈부드러운 지점들〉, 2018, 말과 이미지가 일시적으로 점유하는 공간, 가변 크기,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윤원화는 시각문화 연구자로 주로 동시대 서울의 전시 공간에서 보이는 것들에 관해 글을 쓴다. 아카이브 전시 〈다음 문장을 읽으시오〉(일민미술관, 서울, 2014)를 공동 기획했고, 저서로 『1002번째 밤: 2010년대 서울의 미술들』(2016), 『문서는 시간을 재/생산할 수 있는가』(2017)가 있다. 윤지원은 미술가로 주로 전시 공간에 위치하는 작업을 만든다. 〈여덟 작업, 작가 소장〉(시청각, 서울, 2017)을 기획했고, 최근 참여한 전시로 〈나, 박정희, 병커〉(SeMA 병커, 서울, 2017), 〈달은, 차고, 이지러진다〉(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6)가 있다.

〈부드러운 지점들〉은 지난 십여 년간 서울을 중심으로 이합집산을 반복해온 젊은 미술가들의 사회와 그 조건을 바라보는 여러 시점들의 교차점이다. 원래 그것은 현실과 환상, 내일, 동료와 도적을 구별할 수 없는 곳, 오래된 꿈에 사로잡힌 사막에 붙여진 이름이다. 윤원화와 윤지원은 각각 연구자와 미술가로서 발 밑이 부드럽고 밤새 지형이 뒤바뀌는 그런 시공간을 통과해 왔다. 각자의 궤적으로부터, 윤원화는 자신이 목격한 ‘부드러운 지점들’ 내부의 반복되는 목소리들을 채집하여 텍스트 아카이브 〈미술가 사회〉와 토크 프로그램 〈정령, 도적, 방울〉을 구성한다. 윤지원은 자신이 발 디딘 ‘부드러운 지점들’의 역사적 유래를 역추적하여 동시대 이미지 환경의 근간을 더듬어 보는 싱글 채널 비디오 〈무제(세계)〉를 제작 상영한다.

Wonhwa Yoon b. 1981. Jeewon Yoon b.1985. Live and work in Seoul.

Soft Places, 2018. Space temporarily occupied by words and images. Dimensions variable.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Wonhwa Yoon is an independent researcher and art writer in Seoul. She co-curated *Human Scale* (Ilmin Museum of Art, Seoul, 2014) and published *On the Thousand and Second Night: Visual Arts in Seoul after 2009* (2016) and *Can Documents Re/Produce the Time?* (2017). Jeewon Yoon is an artist and filmmaker. He curated *8 Works, Collections of the Artists* (Audio Visual Pavilion, Seoul, 2017) and recently participated in *I, Park Chung-hee, and Bunker* (SeMA Bunker, Seoul, 2017) and *As the Moon Waxes and Wanes* (MMCA, Gwacheon, 2016).

Soft Places represents an intersection of young artists' diverse points of view on their own society and working conditions. These young artists in Seoul have exercised grouping and ungrouping over the past ten years to help themselves. The name “Soft Places” originated from a dreamy story of desert where you cannot distinguish reality from illusion, yesterday from tomorrow, or a companion from a thief. Wonhwa Yoon and Jeewon Yoon, as researcher and artist respectively, have crossed such soft space-times where your feet sink deep and the landscape transforms overnight. From the past trajectories of each one, Wonhwa Yoon composes the text archive *Artists Society* and the talk program *Spirits, Robbers, and Bell* by capturing and collecting the echoing voices inside these disoriented times; Jeewon Yoon presents a single channel video *Untitled (World)* while attempting to trace a beginning of this unfathomable image-mediated environment.



작가 제공
Courtesy of the
artist

(디스플레이 디스트리뷰트
(쿤치, 리드인 공동 편집))

2013년 결성. 홍콩에서 활동.

『카탈로그』, 2018, 텍스트, 인쇄물, 선반, 복사기, 마이크, 담화, 비디오 프로젝션, 오디오, 다양한 지역의 군사체와 포자, 이벤트, 불확정성, 가변 크기, 작가 제공,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홍콩특별행정구 민정사무국 예술발전기금 후원작.
『카탈로그』〈표지〉, 2018, 싱글 채널로 편집된 3 채널 비디오, 컬러, 스테레오 사운드, 10분,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디스플레이 디스트리뷰트는 홍콩 구룡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주제 연구팀, 배급 서비스, 전시 공간, 때로는 판매 매장으로 기능하는 콜렉티브이다. ‘세계의 공장’에서 뻗어 나온 항구 지역인 주강 델타는 이들의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수행자이자 프로세서로 등장한다. 거대한 글로벌 트렌드를 담고 있는 이 마이크로 세계는 ‘로-엔드 글로벌화(low-end globalization)’의 급변하는 패턴을 바라보는 입장에 놓여 있기도 하다. 디스플레이 디스트리뷰트는 임시변통적인 조정, 급변하는 사회적, 물질적 풍경을 보여주는 다양한 마이크로/매크로 인터랙션들을 기록하면서 이러한 흐름과 균열을 찾는 협력적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네트워크화된 생산 형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한다. 최근 활동으로는 작가가 운영하는 배급 서비스 〈경량 물류(LIGHT LOGISTICS)〉, 시적인 연구이자 아카이브 유닛인 〈산자이 서정시(The Shanzhai Lyric)〉, 감춰진 페미니즘 내러티브와 과잉 공급망을 내용으로 하는 이동형 라디오 프로그램 〈위도우 라디오 칭(Widow Radio Ching)〉 등이 있다.

『카탈로그』는 디스플레이 디스트리뷰트의 출판 프로그램으로,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독자와 저자(생산자)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비판적 실천을 탐구한다. 쿤치(Kunci, 요그야카르타)와 리드-인(Read-in, 위트레흐트)이 공동으로 편집한 제 3호에서는 일련의 독서 행위들로 내용을 구성하고, 협력적 출판을 리얼-타임 이벤트 형식으로 바라보면서 이를 통해 프린트 형태의 구축(건축) 방식을 실험한다. 여기에는 ‘제목 페이지’, ‘본문’, ‘인덱스’와 같은 요소들을 구성하는 작업들이 포함된다. 이것은 자료 저장, 편집, 번역, 지식 교류의 과정 속에 일종의 수행적 차원을 결합하는 것과 같다. 『카탈로그』는 출판 행위를 위한 만남의 장소, 도서관 그리고 편집 사무실로 기능할 현장을 펼친다.

『카탈로그』〈표지〉는 서울로미디어캔버스에서 전시된다.



3—10 (Display Distribute (co-edited
with Kunci and Read-in))

est. 2013. Lives and works in Hong Kong.

『CATALOGUE』, 2018. Text, printed matter, shelving, photocopy machine, microphone, speech recognition, video projection, audio, mycelia spores of various provenance, activities and events, indeterminacy. Dimensions variable. Courtesy of the artist.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and supported by the Arts Development Fund of the Home Affairs Bureau,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CATALOGUE』COVER, 2018. Three-channel video formatted for single screen, color, stereo sound. 10 min.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Display Distribute is a thematic inquiry, distribution service, now and again exhibition space and sometimes shop based out of Kowloon, Hong Kong. A port region extending out of “the world’s factory”—the Pearl River Delta is seen as both a facilitator and processor, a microcosm of broader global trends that also bears witness to the capricious circulation patterns of “low-end globalization.” Documenting the ad-hoc arrangements and various micro and macro interactions that are rapidly transforming the social and material landscape, Display Distribute undertakes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s that trace these flows and fissures in order to investigate new possibilities for networked forms of production. Recently, these activities have included artist-run distribution service *LIGHT LOGISTICS*, poetic research and archival unit *The Shanzhai Lyric*, and a peripatetic radio programme of hidden feminist narratives along the supply chain known as *Widow Radio Ching*.

『CATALOGUE』is a publishing programme by Display Distribute examining critical practices amidst a network of readers and producers from East and Southeast Asia. The third edition, co-edited with Kunci (Yogyakarta) and Read-in (Utrecht), consists of a series of reading activities experimenting with the architectures of print by way of collaborative enactments of publishing as real-time event. These include embodying elements such as “title page,” “body content” and “index”—lending a performative dimension to processes of stockpiling, editing, translating and knowledge exchange. 『CATALOGUE』unfolds at a station on-site that will serve as a gathering point, library and editorial bureau for publishing acts.

The 『CATALOGUE』COVER is exhibited at SEOULLO MEDIA CANVAS.

작가 제공
Courtesy of the
artist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 무중력지대 양천)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2012년 설립. 서울에서 활동.
무중력지대 양천 2018년 설립. 서울에서 활동.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 낯장들〉, 2018, 텍스트, 인쇄물, 가변 크기,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 얼굴들〉, 2018, 다채널 비디오, 가변 크기,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2018 청년독립선언〉, 2018, 텍스트, 캡션, 종이, 가변크기,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독립단체이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교육, 일자리, 주거, 의료, 노후, 사회안전망 등)을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대한민국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도래할 미래 사회의 정치, 경제, 분배 체계의 급격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걸맞은 사회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무중력지대 양천은 서울시에서 마련한 청년공간으로, 청년들을 구속하는 사회의 중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이다. 무중력지대 양천은 파편화되어 존재하는 청년들이 협력하고, 커뮤니티를 이루어 자신이 당면한 문제뿐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무중력지대 양천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대입-취업-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노멀’의 삶 속에 갇힌 독립이 아닌, 청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삶의 질서에 기초한 독립을 추구하는 좋은 삶을 논의한다. 또한 논의를 위한 도구로 그러한 독립을 가능케 하는 물질적·시간적 조건들을 탐구한다. 자치로서의 독립을 추구하거나 이미 그러한 독립의 상태에 도달한 청년들을 만나 그들 각자가 정한 독립의 조건들을 살펴보고 ‘노멀’의 삶에 배태된 독립의 개념과 조건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여러 청년들과 함께 새로운 독립, 즉 자치로서의 독립을 쟁취하고 이를 보장받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상기 내용을 담은 가이드북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를 제작하고 비엔날레 기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진행한다.



작가 제공
Courtesy of the artist

3—11 (Welfare State Youth Network · Youthzone Yangcheon)

WSYN Founded in 2012. Works in Seoul.
Youthzone Yangcheon Founded in 2018. Works in Seoul.

Doing Fine – pieces, 2018. Text, printed matter. Dimensions variable.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Doing Fine – features, 2018. Multi-channel video. Dimensions variable.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2018 Young People's Declaration of Independence, 2018. Text, caption, paper. Dimensions variable.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Welfare State Youth Network, an independent youth organization of and for the young people who are preparing for a better future, looks at social issues (e.g. education, employment, housing, health service, aging, and the social security net) from the young generation's perspective and seeks specific solutions. As members of the future Korean society with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they continue to monitor the rapid changes in the politics, economy, and system of distribution of the near future, and aim to find social alternatives. Youthzone Yangcheon is a space for the youth provided by the City of Seoul. It is a shared space where the young can freely work without being pressured by the society's norms. Youthzone Yangcheon strives to become a platform that supports youth to come together and collaborate, to create a community of their own to experience solving their personal problems as well as social problems.

In this project, the the Welfare State Youth Network·Youthzone Yangcheon discusses a good independent life that is not confined to the “norm” of a society, which requires an individual to conform to a single pattern for life—get a university degree, get a job, marry, and raise children; rather, their independent lives would follow patterns that individuals create for themselves. In addition, the network members investigate the material and temporal conditions that enable the ideal state of independence. They meet young people who pursue independence as an autonomous life or those who have achieved that form of independence in order to examine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an independent life. Along with young people of diverse backgrounds, who feel tired of the existing notion of independence and conditions for such a life that have been imposed by the “norm” of this society, the members, then, inquire into the means that would guarantee an independent life as one with autonomy. They published a guidebook titled *Doing Fine* based on their pre-research, and hold five discussion sessions during the biennale.

(크리티컬 아트 앙상블)

1987년 결성. 미국에서 활동.

〈환경 트리야제(triage): 민주주의와 죽음의 정치(necropolitics) 내에서의 실험〉, 2018, 혼합 매체, 가변 설치, 작가 제공,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1987년 결성된 크리티컬 아트 앙상블은 아티스트 콜렉티브이다. 이들은 컴퓨터 그래픽, 웹디자인, 웹웨어(wetware: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인간 두뇌), 필름/비디오, 텍스트 아트, 북 아트, 퍼포먼스 등의 다양한 매체를 다루면서 예술, 테크놀로지, 정치적 행동주의, 비판적 이론의 교점에 관해 고민한다. 크리티컬 아트 앙상블은 지난 30년 이상 정보통신 테크놀로지, 바이오 테크놀로지, 생태 시스템을 둘러싼 문제들을 연구하는 작업을 선보여왔다.

크리티컬 아트 앙상블은 〈환경 트리야제(triage): 민주주의와 죽음의 정치(necropolitics) 내에서의 실험〉을 통해 인류세(Anthropocene)라는 죽음의 구조가 만들어내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선택들 중에 하나를 관객들이 직면하는 상황을 만든다. 수역 생태 환경 개선을 위한 자원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 그렇다면 생태계와 우리 사회를 위한 최대의 생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은 무엇일까? 가장 오염된 수역을 개선해야 할까? 아니면 이미 오염된 수역은 포기하고 가장 건강한 수역을 보존하는데 집중해야 할까? 아니면 보존하는 전략을 버리고 상하수도의 여과 및 재생 시스템의 기술적 개선에 집중해야 할까? 역사적으로 가장 네크로폴리티컬한 미술 작품 중에 하나였던 한스 하케의 1970년 작 〈모마 폴〉(MOMA Poll, 뉴욕근대미술관, 뉴욕)을 돌이켜 보면서, 크리티컬 아트 앙상블은 관객에게 서울과 인근 지역의 수역 생태에 대해서 어떤 개선 전략이 적용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며 투표를 제안한다. 전시 말미에 수자원과 관련한 환경 트리야제에 대해 관객이 어떠한 합의를 만들어내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확인하고자 한다(그러한 것이 존재한다면).



3—12 (Critical Art Ensemble (CAE))

Founded 1987. Lives and works in the US.

Environmental Triage: An Experiment in Democracy and Necropolitics, 2018. Mixed media. Installation variable. Courtesy of the artist.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Founded in 1987, CAE is an award-winning collective of artists of various specializations—including computer graphics and web design, wetware, film/video, photography, text art, book art, and performance—dedicated to exploring the intersections between art, technology, political activism, and critical theory. For more than three decades CAE has produced and exhibited work that examines questions surround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bio-technologies, and ecological systems.

In *Environmental Triage: An Experiment in Democracy and Necropolitics*, CAE directly confronts its viewers with one of the many excruciatingly difficult choices in the organization of death in the Anthropocene. Given that resources for remediation of large bodies of water are limited, and the cost can be extremely high, what is the best strategy to do the most good and distribute the greatest ecological justice for the wild and for society? Do we focus on that which is most ill, or do we cut our losses and opt to preserve those bodies of water that are the healthiest? Or should we abandon any preservationist strategy, and transform the pollution problem into a technical problem (solutionism), and focus on public waterworks with better filtering and recycling systems? Harkening back to one of the great necropolitical art works, Hans Haacke's 1970 *MOMA Poll* at the Museum of Modern Art in New York, CAE asks the attending public to vote on what should be done about water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region. By the end of the exhibition, we should have a compelling visualization of the level of consensus that exists locally of how triage in the wild, as it relates to water resources, should be organized (if at all).

한강 및 주요지천 수질환경
본 지도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にあります.

Water Quality of Han River and Main Tributaries.
Seoul Metropolitan City owns the copyright.

두산 바록 1979년 생. 암스테르담에서 활동.
모노스콥 2004년 활동 시작.

〈전시 도서관〉, 2018, 각종 오브제, 비디오,
디지털 액자, 금속, 목재, 6.5 × 5.5 × 2.4 m,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두산 바록은 아방가르드 미디어 연구를 위한 플랫폼인
모노스콥의 창립 편집자이다. 그는 로테르담에 있는
피에트 츠바르트 인스티튜트를 졸업했다. 〈일본
미디어아트 페스티벌〉(교토, 2018), 〈일본 뉴 미디어아트
페스티벌〉(도쿄, 2014), 〈문화로서의 데이터〉(오픈
데이터 인스티튜트, 런던, 2012–2013), 〈인쇄 오류〉(쥘
드 팜, 파리, 2012–2014), 〈예외적 조작〉(텐트,
로테르담, 2012), 〈엔터 비엔날레 5〉(국립기술도서관,
프라하, 2011) 등의 전시에 참여했다.

모노스콥은 예술과 미디어, 인문학 연구를 위한
플랫폼이다. <https://monoskop.org>

〈전시 도서관〉은 카탈로그라는 매체를 새롭게 상상한다.
카탈로그는 자신이 기술하는 작품과 배경의 배치 및
과정을 상상하게 하는 비유의 역할을 하며, 시공간을 통해
전시를 전달한다. 이번 작품을 통해 예술가와 디자이너,
큐레이터와 시인, 연구자들은 상상의 전시 카탈로그를
만들게 된다. 예술에서 잠재적인 것과 불가능한 것을 모두
탐색하면서,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전시 도서관은 또한
“전시들의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설치는
방문객들의 모임과 토론 프로그램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디자인되었다.

Dušan Barok b. 1979. Lives and works in
Amsterdam.
Monoskop est. 2004.

Exhibition Library, 2018. Variable objects,
video, digital frames, metal, wood.
6.5 × 5.5 × 2.4 m.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Dušan Barok is founding editor of the platform
for avant-garde media studies, Monoskop.org.
He graduated from the Piet Zwart Institute,
Rotterdam. Selected exhibitions include
Japan Media Arts Festival, Kyoto, 2018; *Japan
New Media Arts Festival*, Tokyo, 2014; *Data as
Culture*, Open Data Institute, London, 2012–
2013; *Erreur d'impression*, Jeu de Paume,
Paris, 2012–2014; *Exception Handling*, TENT,
Rotterdam, 2012; and *Enter Biennale 5*,
National Technical Library, Prague, 2011.

Monoskop is a platform for the studies of the
arts, media and humanities. <https://monoskop.org>

Exhibition Library reimagines the medium of art
catalogue. Catalogues carry exhibitions through
time and space, figuring as tropes for imagining
arrangements and the course of works and
settings they describe. For this work, artists,
designers, curators, poets and researchers created
catalogues of imaginary exhibitions. Exploring
both the potential and impossibility in art, the
resulting exhibition library also serves as a “library
of exhibitions.” The installation is available to
visitors, designed as a platform for gatherings and
discussions.

Monoskop.org

1989년 밴쿠버에서 결성.

〈죽은 시간 없이 살라〉, 2018, 조롱, 우회와 도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애드버스터즈는 현재 세계 질서에 변화를 불러
일으키려는 행동주의적 저술가, 미술가, 디자이너, 음악가,
철학자, 시인, 펄크족들이 모인 국제적 콜렉티브이다.
이들은 『애드버스터즈(Adbusters)』라는 매거진을
격월간으로 발간하고, 웹사이트(adbusters.org)와
행동주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abillionpeople.org)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애드버스터즈는 자신들의 행동주의 정신을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에 불어넣고자 한다.
이들의 작품과 시각적 밈들은 중앙 부스에 전시되고,
전시 공간 곳곳에 또 서울 시내 이곳 저곳에서 흩뿌려진다.
오늘날 이 세계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의 삶을 이끄는 논조(톤)와 분위기는 무엇일까?
우리가 일을 하고, 물건을 구매하고, 잠을 자고, 죽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러한 힘은 누가 조정하고
통제하는가? 애드버스터즈는 현재 우리가 가진 일반적
관점에 새롭게 도전하면서 중대한 문제들을 제기한다.

Founded in Vancouver in 1989.

Live Without Dead Time, 2018. Spoofs,
detournements and provocations.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Adbusters is an international collective of
activist writers, artists, designers, musicians,
philosophers, poets and punks trying to
catalyze a transformation of the current world
order. They publish a bimonthly magazine
called *Adbusters*, run a website at adbusters.org
and an activist community at abillionpeople.org.

Adbusters attempts to infuse the Adbusters’
activist spirit into the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Their artworks and visual memes are
displayed in the central booth, but are also
peppered throughout the space and selected
areas of the city of Seoul. What does it mean
to be alive in today’s world? What are the tones &
ambiances that drive our lives? What makes us
work and buy and sleep and die? And who controls
these forces? Adbusters challenges our current
perspective and casts some crucial questions.



작가 제공
Courtesy of the
artist

(서울로미디어캔버스)

(SEOULLO MEDIA CANVAS)

서울로미디어캔버스는 서울시가 조성한 문화 공간으로 미디어아트와 독립영화와 같은 다양한 형식의 영상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올해 비엔날레는 '좋은 삶'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영상콘텐츠를 서울로미디어캔버스 공간을 통해 소개합니다.

주소

서울시 중구 만리재로 215,
서울로 7017 북측광장 우리은행 중림동지점

문의

02-2133-2712

작품 목록

탁영환·이경남, <전기양은 꿈을 꾸는가 1>, 2018, 비디오, 사운드, 디지털 콤포지션, 2분,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3-1 참고)

이그니토 +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티핑포인트 뮤직비디오>, 2018, 사운드, 영상, 애니메이션,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1-14-7 참고)

디스플레이 디스트리뷰트 (쿤치, 리드인 공동 편집), 『카탈로그』 <표지>, 2018, 싱글 채널로 편집된 3 채널 비디오, 컬러, 스테레오 사운드, 10분,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3-10 참고)

디르크 플라이쉬만, <몰입의 규칙 / 아보카도, 카카오, 치코, 코코넛, 달란단, 두왓, 구아바, 구아바노, 칼라만시, 카마공, 카소이, 랑카, 라왕, 마코파, 마호가니, 망고, 몰라베, 나라, 포멜로, 산톨, 티크>, 2018, 비디오, 1분 31초,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3-6 참고)

이소영, <너의영역>, 2014/2015, 싱글 채널 HD 비디오, 컬러, 5분 (1-4/3-15 참고)

리슨투데이시티, <내성천>, 2012, 영상, 5분 7초 (1-12 참고)

구민자, <23:59:60>, 2015, 2018, 이미지 슬라이드, 2분 39초,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제작지원 (2-8/3-16 참고)

인민의 아카이브, <나를 아카이브하기 위한 가이드(광고)>, 2018, 싱글 채널 비디오, 컬러, 스테레오, 1분 14초, 16:9 (2-1 참고)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공식 트레일러 박연주, <좋은 삶>, 2018, 싱글 채널 비디오, 1분,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커미션

SEOULLO MEDIA CANVAS is a cultural space created by the City of Seoul, providing various forms of video content such as media art and independent film. This year's Biennale will present diverse video works that aim to disseminate the value of "good life" via SEOULLO MEDIA CANVAS space.

Address

215, Mallijae-ro, Jung-gu, Seoul, Korea
SEOULLO 7017 North Plaza Woori bank
Jungnim office

Contact

+82-2-2133-2712

Artwork List

Tak Young Hwan · Lee Kyung Nam, *Do Electric Sheep Dream 1*, 2018. Video, sound, digital composition. 2 min.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See 3-1)

Ignito + Greenpeace East Asia Seoul Office, *Tipping Point M/V*, 2018. Sound, video, animation.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See 1-14-7)

Display Distribute (co-edited with Kunci and Read-in), *『CATALOGUE』 COVER*, 2018. Three-channel video formatted for single screen, color, stereo sound. 10 min.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See 3-10)

Dirk Fleischmann, *The Rules of Absorption / AVOCADO, CACAO, CHICO, COCONUT, DALANDAN, DUHAT, GUAVA, GUYABANO, KALAMANSI, KAMAGONG, KASOY, LANGKA, LAUAN, MACOPA, MAHOGANY, MANGO, MOLAVE, NARRA, POMELO, SANTOL, TEAK*, 2018. Video. 1 min. 31 sec. Commissio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See 3-6)

Soyung Lee, *Your Territory*, 2014/2015. Single channel HD video, color. 5 min. (See 1-4/3-15)

Listen to the City, *Naeseong River*, 2012. Video. 5 min. 7 sec. (See 1-12)

Minja Gu, *23:59:60*, 2015, 2018. Image Slide. 2 min. 39 sec. With the support of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See 2-8/3-16)

Archive of the People, *A Guide to Archive Me (The Commercial)*, 2018. Single channel video, color, stereo. 1 min. 14 sec. 16:9 (See 2-1)

The Official Trailer of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Yeounjoo Park, *Eu Zên*, 2018. Single channel video. 1 min. Commissoined by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좋은 삶)
(Eu Zên)

(첫 번째)
(The First)

(피어 나는 인간)
(F-l-o-u-r-i-s-h-i-n-g Life)

프로그램 (아고라 - 사는 법(강연))

<p>9/27(목) 14:00-16:00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층 아고라 박형준/케이트 라워스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진화: 공유인간의 부활> 강연</p>
<p>10/2(화) 10:00-12:00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층 아고라 박형준/미셸 보웬스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진화: 공유인간의 부활> 강연</p>
<p>10/6(토) 11:00-11:30, 13:00-13:30, 15:30-16:00, 16:15-16:45, 18:00-18:30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층 아고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무중력지대 양천 <청년 독립의 재구성: '자치적' 독립과 그를 위한 조건들> 게릴라 토론회 1</p>
<p>10/6(토) 14:00-15:30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층 아고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무중력지대 양천 <청년 독립의 재구성: '자치적' 독립과 그를 위한 조건들> 홍기빈 강연 + 프로젝트 소개</p>
<p>10/14(일) 14:00-15:00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층 아고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무중력지대 양천 <청년 독립의 재구성: '자치적' 독립과 그를 위한 조건들> 청년 독립생활자 7분 마이크 스피치</p>
<p>10/14(일) 15:30-18:00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층 아고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무중력지대 양천 <청년 독립의 재구성: '자치적' 독립과 그를 위한 조건들> 데이빗 커티스 강연</p>
<p>11/1(목) 10:00-12:00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층 아고라 박형준/리처드 윌킨슨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진화: 공유인간의 부활> 강연</p>
<p>11/6(화) 14:00-17:00(예정)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층 아고라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좋은 삶을 만드는 활동가 되기 ABC> 시민 참여 프로그램</p>
<p>11/10(토) (시간 미정)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층 아고라 박형준/홍기빈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진화: 공유인간의 부활> 강연</p>

프로그램 (아고라 - 행하는 법(공연))

<p>9/5(수) 오프닝, 10/19(금) 19:00-20:30(예정)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층 아고라 이그니토,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기후변화 힙합 토크 콘서트 -티핑포인트> 공연, 토크</p>
<p>9/12(수), 9/13(목), 9/14(금), 9/15(토) 16:00-16:40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층 아고라 고연옥 & 잣 프로젝트 <우린 적당히 말했다> 연극</p>
<p>9/19(수), 9/20(목), 9/21(금) 15:00-15:20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옥상 포함 서소문본관 전체 허윤경 <은근어디든> 퍼포먼스</p>
<p>10/3(수), 10/4(목), 10/5(금) 11:00-19:00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층 아고라 포함 서소문본관 전체 장애여성공감 극단 <춤추는 허리> <마침, 좋은 삶> 퍼포먼스</p>
<p>10/24(수) 14:00-16:00 삼청동 일대 10/27(토) 10:00-12:00 익선동 일대 은정태 <길은 뚫린 골목_공간구획의 논리와 경험> 퍼포먼스</p>
<p>11/8(목), 11/9(금) 16:00-16:20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층 아고라 노경애 <움직이는 표준> 퍼포먼스</p>

☆ 위의 모든 프로그램은 예약이나 정확한 일정 확인을 위해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웹사이트 (<http://mediacityseoul.kr>)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아고라 - 노는 법(연계 프로그램))

6/30(토) 13:00~18:00 백남준 기념관 출발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도착 언매핑 유라시아 〈유라시아 스텝스 - 첫 번째 이동〉 - 걷는 전시
7/13(금) 14:00~16:00, 10/13(토) 13:00~14:30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층 작가 작품 설치 장소 리슨투더시티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 워크숍
7/26(목) 19:00~20:00, 9/6(목) 18:00~20:00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사무동 1층 회의실 크리티컬 아트 앙상블 〈환경 트리아제(triage): 민주주의와 죽음의 정치(necropolitics) 내에서의 실험〉 강연, 토론회
7/26(목) 19:30, 8/5(일) 하루 종일, 8/16(목) 19:30, 8/23(목) 19:30, 8/30(목) 19:30 동대문옥상낙원DRP kook+ 〈건축학교〉 워크숍
9/7(금) 15:00-19:00, 10/6(토) 14:00-18:00, 10/27(토) 15:00-18:00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층 작가 작품 설치 장소 윤원화, 윤지원 〈정령, 도적, 방울〉 강연, 토크, 워크숍
9/7(금) 18:30~19:30, 10/10(수) 17:30~19:30, 11/17(토) 14:00~16:00 (1)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2층 작가 작품 설치 장소, (2)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층 아고라, (3)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제2 강의실 인민의 아카이브 (1) 〈나를 아카이브하기 위한 가이드〉 팝-업 워크숍 (2) 〈나를 아카이브하기 위한 가이드〉 워크숍 (3) 〈나를 아카이브하기 위한 가이드〉 아키비스트와의 대화
9/7(금) 16:00~19:00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층 아고라 〈모두의 인공지능〉 참여작가 중 10인/팀 〈모두의 인공지능 1〉 아티스트 토크, 토론회
9/8(토) 10:00~13:00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제3 강의실 진 코건 〈ml4a Workshop I : tensorflow.js를 활용한 기계학습 디자인〉 워크숍

9/8(토) 11:00~11:45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층 아고라 애드버스터즈 미디어 재단(페드로 이노우에) 〈돈 말고 오직 사랑을 위하여〉 토크
9/8(토) 14:00~16:00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층 작가 작품 설치 장소 두산 바록(모노스콧) 〈모노스콧의 〈전시 도서관〉에 대하여〉 토크
9/8(토) 14:00~16:30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제2 강의실 애드버스터즈 미디어 재단(페드로 이노우에) 〈밈 전쟁〉 워크숍
9/8(토) 14:00~17:00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제3 강의실 진 코건 〈ml4a Workshop II : 인공지능경망과 클라우드 GPU를 활용한 창작〉 워크숍
9/8, 9/15, 10/13, 10/20, 10/27, 11/3, 11/10, 11/17(토) 14:00~17:00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층 전시장 내외 하석준(보물섬컬렉티브) 〈인공지능 협업을 원하는 예술가를 위한 머신 러닝 이해하기〉 강연, 퍼포먼스
9/9(일) 16:00-17:00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층 아고라 팩토리 콜렉티브 〈마이라곤 1: 낱말의 여러 세계〉 렉처 퍼포먼스
9/11(화) 17:30~19:30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층 아고라 두산 바록(모노스콧)과 게스트 〈카탈로그 잇!〉 토론회
9/13(목), 17:00-20:00 9/20, 9/27, 10/4, 10/11, 10/18(목) 16:00-19:00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층 우측 로비 작가 작품 설치 장소 kook+ 〈영토 해킹 라운드테이블〉 토크
9/15(토) 10:00~19:00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층 작가 작품 설치 장소 디스플레이 디스트리뷰트(쿤치, 리드인 공동 편집) 『카탈로그』〈전문〉, 관객 참여 프로그램

프로그램 (아고라 - 노는 법(연계 프로그램))

9/16(일) 14:00~16:00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층 작가 작품 설치 장소 또는 서소문본관 근처 디스플레이 디스트리뷰트(쿤치, 리드인 공동 편집) 『카탈로그』〈제2장: 끝을 놓방 바차 독서 그룹〉, 관객 참여 프로그램
9/19(수) 17:00~19:30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층 작가 작품 설치 장소 시작 후 이동 디스플레이 디스트리뷰트(쿤치, 리드인 공동 편집) 『카탈로그』〈제3장: 포자, 포자, 산발적으로 피어나는 포자〉, 관객 참여 프로그램
9/27(목) 19:30~21:30 RAT School of Art 디스플레이 디스트리뷰트(쿤치, 리드인 공동 편집) 『카탈로그』〈번역: 오염된 언어들〉, 관객 참여 프로그램
9/29(토) 10:30~13:00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층 아고라 디스플레이 디스트리뷰트(쿤치, 리드인 공동 편집) 『카탈로그』〈제5장: 유형 책장〉, 관객 참여 프로그램
9/29(토) 13:00~18:00 (5시간, 상시 오픈) FACTORY 2 팩토리 콜렉티브 〈다종의 군과 함께 먹기, 살기〉 관객 참여 프로그램
9/29(토) 14:30~18:30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층 작가 작품 설치 장소 집합 후 이동 디스플레이 디스트리뷰트(쿤치, 리드인 공동 편집) 『카탈로그』〈부록: 지식의 편향화〉, 관객 참여 프로그램
10/16(화) 14:00~15:00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층 아고라 디릭 플라이쉬만 아티스트 토크
10/20(토) 17:00~18:30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층 작가 작품 설치 장소 김현탁 〈자전거 <i>By Cycle</i> 〉 렉처 퍼포먼스
10/27(토) 15:00~16:00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층 아고라 정지훈, 모두의연구소(김승일) 〈미래 기술환경〉 토론회

10/27(토) 16:00~17:00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층 아고라 정지훈, 최승준, 민세희 〈모두의 인공지능 II〉 토론회
11/2(금) 14:00~19:00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층 아고라 모노스콧/조아나 씨카우 〈예술 카탈로그의 해부학〉 워크숍
11월 중 (일정 미정)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층 아고라 박형준/000간 〈도시와 커먼스〉 강연, 토론회
3회 예정 (일정 미정)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2층 작가 작품 설치 장소 양아치 〈신용〉 관객 참여 프로그램
화-금 상시 운영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층 작가 작품 설치 장소 000간 〈위드굿즈〉 관객 참여 프로그램
☆ 위의 모든 프로그램은 예약이나 정확한 일정 확인을 위해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웹사이트 (http://mediacityseoul.kr)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Program (Agora – How to Live (Lecture))

9/27 (Thu) 14:00-16:00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1F Agora Hyeng Joon Park/Kate Raworth <i>The Evolution of Homo Economicus: the Resurrection of Commoners</i> , Lecture
10/2 (Tue) 10:00-12:00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1F Agora Hyeng Joon Park/Michel Bauwens <i>The Evolution of Homo Economicus: the Resurrection of Commoners</i> , Lecture
10/6 (Sat) 11:00-11:30, 13:00-13:30, 15:30-16:00, 16:15-16:45, 18:00-18:30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1F Agora Welfare State Youth Network·Youthzone Yangcheon <i>Restructuring the independence of the young people: “autonomous” independence and its conditions</i> , Guerrilla Round Table, Part 1 Debate
10/6 (Sat) 14:00-15:30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1F Agora Welfare State Youth Network·Youthzone Yangcheon <i>Restructuring the independence of the young people: “autonomous” independence and its conditions</i> , Lecture (Speaker: Gibin Hong) and Project Introduction
10/14 (Sun) 14:00-15:00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1F Agora Welfare State Youth Network·Youthzone Yangcheon <i>Restructuring the independence of the young people: “autonomous” independence and its conditions</i> , The independent people's 7 minutes speech
10/14 (Sun) 15:30-18:00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1F Agora Welfare State Youth Network·Youthzone Yangcheon <i>Restructuring the independence of the young people: “autonomous” independence and its conditions</i> , Lecture (Speaker: David Curtis)
11/1 (Thu) 10:00-12:00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1F Agora Hyeng Joon Park/Richard G. Wilkinson <i>The Evolution of Homo Economicus: the Resurrection of Commoners</i> , Lecture

11/6 (Tue) 14:00-17:00 (planned)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1F Agora Greenpeace East Asia Seoul Office <i>Be an Activist for a Good Life ABC</i> , Public Participation Program
11/10 (Sat) (time TBA)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1F Agora Hyeng Joon Park/Gibin Hong <i>The Evolution of Homo Economicus: the Resurrection of Commoners</i> , Lecture
11/17 (Sat) 11:00-11:30, 13:00-13:30, 15:30-16:00, 16:15-16:45, 18:00-18:30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1F Agora Welfare State Youth Network·Youthzone Yangcheon <i>Restructuring the independence of the young people: “autonomous” independence and its conditions</i> , Guerrilla Round Table, Part 2 Debate

At all times (When the Agora is empty)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1F Agora Welfare State Youth Network·Youthzone Yangcheon <i>Restructuring the independence of the young people: “autonomous” independence and its conditions</i> , Guerrilla Round Table, Extra Round debate
--

Program (Agora – How to Act (Performance))

9/5 (Wed) Opening, 10/19 (Fri) 19:00-20:30 (planned)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1F Agora Ignito, Greenpeace East Asia Seoul Office <i>Hip Hop Talk Concert on Climate Change - Tipping Point</i> , Concert, Talk
9/12 (Wed), 9/13 (Thu), 9/14 (Fri), 9/15 (Sat) 16:00-16:40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1F Agora Yeon Ock Ko and JAT Project <i>We talked briefly</i> , Play
9/19 (Wed), 9/20 (Thu), 9/21 (Fri) 15:00-15:20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including the Building Rooftop Yunkyung Hur <i>Implicitly Anywhere</i> , Performance
10/3 (Wed), 10/4 (Thu), 10/5 (Fri) 11:00-19:00 Seoul Musue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including the 1F Agora Women with Disabilities Empathy, Disable Women's Theatre Group <Dancing Waist> <i>In the end, a good life</i> , Performance
10/24 (Wed) 14:00-16:00 Samcheongdong Area 10/27 (Sat) 10:00-12:00 Ikseondong Area Jungtae Eun <i>The Way is inter-opened Alley_The Logic and Experience of Space</i> , Performance
11/8 (Thu), 11/9 (Fri) 16:00-16:20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1F Agora Kyung Ae RO <i>Shifting standard</i> , Performance

☆ Please refer to the Seoul Mediacity Biennale website (<http://mediacityseoul.kr>) for reservation and exact schedule.

Program (Agora – How to Play (Artist Program))

6/30 (Sat) 13:00–18:00
From Nam June Paik Memorial House to Seoul Museum of Art
Unmapping Eurasia
Eurasian Steps – The First Movement - Walking Exhibition

7/13 (Fri) 14:00–16:00, 10/13 (Sat) 13:00–14:30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1F, Artist's Artwork Installation Location
Listen to the City
No One Left Behind, Workshop

7/26 (Thu) 19:00–20:00, 9/6 (Thu) 18:00–20:00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Office Building 1F Meeting Room
Critical Art Ensemble
Environmental Triage: An Experiment in Democracy and Necropolitics, Lecture, Debate

7/26 (Thu) 19:30, 8/5 (Sun) all day, 8/16 (Thu) 19:30, 8/23 (Thu) 19:30, 8/30 (Thu) 19:30
Dongdaemun Rooftop Paradise
kook+
House ALIVE Project, Workshop

9/7 (Fri) 15:00–19:00, 10/6 (Sat) 14:00–18:00, 10/27 (Sat) 15:00–18:00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3F, Artist's Artwork Installation Location
Wonhwa Yoon, Jeewon Yoon
Spirits, Robbers, and Bells, Lecture, Talk, Workshop

9/7 (Fri) 18:30–19:30, 10/10 (Wed) 17:30–19:30, 11/17 (Sat) 14:00–16:00
(1)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2F, Artist's Artwork Installation Location, (2)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1F Agora, (3)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Lecture Room 2
Archive of the People
(1) *A Guide to Archive Me*, Pop-up Workshop
(2) *A Guide to Archive Me*, Workshop
(3) *A Guide to Archive Me*, Conversation with Archivist

9/7 (Fri) 16:00–19:00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1F Agora
10 participating Artists of A.I., *entriely on us* Project
A.I., *entriely on us I*, Artist's Talk, Debate

9/8 (Sat) 10:00–13:00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Lecture Room 3
Gene Kogan
ml4a Workshop: Machine Learning & Art, Workshop

9/8 (Sat) 11:00–11:45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1F Agora
Adbusters Media Foundation (Pedro Inoue)
Never for Money Always for Love, Talk

9/8 (Sat) 14:00–16:00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3F, Artist's Artwork Installation Location
Dušan Barok (Monoskop)
About Monoskop & Exhibition Library, Talk

9/8 (Sat) 14:00–16:30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Lecture Room 2
Adbusters Media Foundation (Pedro Inoue)
Meme Wars, Workshop

9/8 (Sat) 14:00–17:00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Lecture Room 3
Gene Kogan
ml4a Workshop: A.I intersects & Future, Workshop

9/8, 9/15, 10/13, 10/20, 10/27, 11/3, 11/10, 11/17 (Sat) 14:00–17:00
Inside and outside the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3F Exhibition Space
Seokjun HA (Treasure Island Collective)
Understanding Machine Learning for Artists Who Want to Co-operate with AI, Lecture, Performance

9/9 (Sun) 16:00-17:00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1F Agora
factory collective
Myriagon 1: Word Worlds, Lecture Performance

9/11 (Tue) 17:30–19:30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1F Agora
Dušan Barok (Monoskop) and guests
Catalog it!, Debate

9/13 (Thu) 17:00-20:00
9/20, 9/27, 10/4, 10/11, 10/18 (Thu) 16:00-19:00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1F Lobby Right Wing, Artist's Artwork Installation Location
kook+
Hacking Territory Round Table, Talk

9/15 (Sat) 10:00–19:00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3F, Artist's Artwork Installation Location
Display Distribute (co-edited with Kunci and Read-in)
**CATALOGUE* Front Matters*, Public Participation Program

Program (Agora – How to Play (Artist Program))

9/16 (Sun) 14:00–16:00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3F, Artist's Artwork Installation Location or near Seosomun Main Building
Display Distribute (co-edited with Kunci and Read-in)

**CATALOGUE* Chapter 2: Klub Numpang Baca Reading Group*, Public Participation Program

9/19 (Wed) 17:00–19:30
Begins from the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3F, Artist's Artwork Installation Location
Display Distribute (co-edited with Kunci and Read-in)
**CATALOGUE* Chapter 3: Spore, Spore, Sporadic*, Public Participation Program

9/27 (Thu) 19:30–21:30
RAT School of Art
Display Distribute (co-edited with Kunci and Read-in)
**CATALOGUE* Translation (Contaminating Languages)*, Public Participation Program

9/29 (Sat) 10:30–13:00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1F Agora
Display Distribute (co-edited with Kunci and Read-in)
**CATALOGUE* Chapter 5: Haunted Bookshelves*, Public Participation Program

9/29 (Sat) 13:00–18:00 (During 5 hours, at all times)
FACTORY 2
factory collective
Eating and living with various bacteria, Public Participation Program

9/29 (Sat) 14:30–18:30
Meet at the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3F, Artist's Artwork Installation Location
Display Distribute (co-edited with Kunci and Read-in)
**CATALOGUE* End Matters: Lateralizing Knowledges*, Public Participation Program

10/16 (Tue) 14:00–15:00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1F Agora
Dirk Fleischmann
Artist's Talk

10/20 (Sat) 17:00–18:30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1F, Artist's Artwork Installation Location
Hyun Tak Kim
By Cycle, Lecture Performance

10/27 (Sat) 15:00–16:00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1F Agora
Jihoon Jeong, MODULABS (Seungil Kim)
Advanced Technology, Debate

10/27 (Sat) 16:00–17:00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1F Agora
Jihoon Jeong, Seung Joon Choi, Sey Min A.I., *entriely on us II*, Debate

11/2 (Fri) 14:00–19:00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1F Agora
Monoskop/Joana Chicau
The anatomies of an art catalogue, Workshop

In November (schedule TBA)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1F Agora
Hyeng Joon Park/Zero Space
City and Commons, Lecture, Debate

3 times planned (schedule TBA)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2F, Artist's Artwork Installation Location
Yangachi
Credit, Public Participation Program

Tue–Fri at all times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3F, Artist's Artwork Installation Location
Zero Space
Withgoods, Public Participation Program

☆ Please refer to the Seoul Mediacity Biennale website (<http://mediacityseoul.kr>) for reservation and exact schedule.

서울시립미술관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Seoul Museum of Art	Seoul Mediacity Biennale 2018
서울시립미술관 관장 직무대리 유병홍	디렉토리얼 컬렉티브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임경용 (더북소사이어티 대표) 김장언 (독립 큐레이터) 김남수 (무용평론가)	Acting Director of Seoul Museum of Art Yu Byung Hong	Directorial Collective Gibin Hong (Director, Global Political Economy Institute) Kyung Yong Lim (Director, The Book Society) Jang Un Kim (Independent Curator) Nam Soo Kim (Dance Critic)
학예연구부장 백기영		Director of Curatorial Bureau Ki Young Peik	
전시과장 고원석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김시습, 배예임, 조우리	Head of Exhibition Division Wonseok Koh	
교육홍보과장 유수기	코디네이터 김관희, 김민경, 나기현, 박주원, 손경민, 채승미	Head of Education & PR Division Sugi Yoo	Assistant Curators Si-seup Kim, Yeim Bae, Woori Cho
수집연구과장 홍승주	그래픽디자인/트레일러 박연주 이유정 (도움)	Head of Collection & Research Division Seungju Hong	Coordinators Kani Kim, Minkyung Kim, Kihyun Na, Juwon Park, Kyungmin Son, Seungmi Chae
큐레이터 전소록, 권진, 윤민화	공간디자인 조재원 (공일스튜디오)	Curators Solok Jeon, Jin Kwon, Minhwa Yun	Graphic Design/Trailer Yeounjoo Park Youjeong Lee (Assistant)
코디네이터 남원정, 장해림	공간제작시공 디자인본		
경영지원부장 유병홍	사진영상 스튜디오 수직수평 (유용지 + 홍철기)	Coordinators Wonjung (Grace) Nam, Haerim Jang	Exhibition Design Jaewon Cho (0_1studio)
총무과장 황차호	웹프로그래밍 홍진환	Director of Management Bureau Yu Byung Hong	Exhibition Construction design BOURNE
	편집 강유미	Head of Administration Division Cha Ho Hwang	Photograph and Video studio SUJIKSUPYUNG (Yoo Yongji + Hong Cheolki)
	번역 김술하, 김정혜		Web Programming Jinhwon Hong
	영어 감수 다이애나 M. 린턴		Editor Yumi Kang
	자막제작/번역 투미너스		Translators Solha Kim, Jeong Hye Kim
	전시운영 (주)시월		English Proofreading Diana M. Linton
	장비/테크니션 멀티텍		Subtitle/Subtitle Translators 2MEANUS
	운송 동부아트 주식회사		Exhibition Management Siwall Inc.
	보험 에이스손해보험		Technical Team/Technician Multitech
	인쇄 금강인쇄(주)		Shipping DONGBU ART CO., LTD.
			Insurance CHUBB
			Print KumKang Printing Co., Ltd

주최/주관
Hosted/Organized by



협력
Co-operation



후원
Supported by



Kingdom of the Netherlands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creative industries fund NL

홍콩특별행정구
민정사무국
예술발전기금

협찬
Sponsored by



미디어파트너
Media Partner

My Art Guides®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관람시간
화-금: 10AM-8PM (매주 월요일 휴관)

토·일·공휴일
하절기(3-10월): 10AM-7PM
동절기(11-2월): 10AM-6PM
☆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바랍니다.

뮤지엄나이트 운영
7PM-10PM
매월 둘째 수요일, 마지막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

오디오가이드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도슨팅 어플 사용

도슨트 설명
전시 기간 중 매일 두 차례 진행됩니다.
운영 시간: 1PM, 3PM
(설명 시작 장소: 전시장 1층 입구, 소요 시간: 60분 내외)

관람료 무료

오시는 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1번 출구(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방면)
2호선: 시청역 10번, 11번, 12번 출구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나 광화문역 6번 출구
버스
파랑(간선)버스: 172, 472, 600, 602, 603
'광화문'이나 '시청앞' 정류장에서 내려서 걸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주소
우편번호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61(서소문동)

대표번호
02-2124-8800(ARS)

웹사이트
http://mediacityseoul.kr

이메일
2018mcs@gmail.com

서울로미디어캔버스

관람시간
주중·주말 6PM-11PM

주소
우편번호 04508
서울시 중구 만리재로 215
서울로 7017 북측광장 우리은행 중림동지점

대표번호
02-2133-2712

Seoul Museum of Art
Seosomun Main Building

Opening Hours
Tuesday-Friday 10AM-8PM (Closed every Monday)

Saturday, Sunday, National Holidays
Summer Season (March-October): 10AM-7PM
Winter Season (November-February): 10AM-6PM
☆ Last admission for the museum is 1 hour prior to the closing time.

Museum Night
7PM-10PM
Every Month Second Wednesday, Last Wednesday (Culture Day)

Audio Guide
Use the Seoul Museum of Art Docent Application

Guided Tours
There are guided tours two times a day.
1PM, 3PM
(Starting point: 1F entrance; approx. time: 60 min.)

Admission Free

Way to
by Subway
Line 1: Exit 1, City Hall Station (Seosomun Building of the Seoul City Hall)
Line 2: Exit 10, 11 or 12, City Hall Station
Line 5: Exit 5, Seodaemun Station, or Exit 6, Gwanghwamun Station

by Bus
Blue Bus: Nos. 172, 472, 600, 602, 603
Gwanghwamun or City Hall bus stop plus a short walk

Address
Zip Code 04515
61, Deoksugung-gil, Jung-gu, Seoul, Korea (Seosomun-dong)

Main Phone Number
+82-2-2124-8800

Website
http://mediacityseoul.kr

Email
2018mcs@gmail.com

SEOULLO MEDIA CANVAS

Opening Hours
Weekday·Weekend 6PM-11PM

Address
Zip Code 04508
215, Mallijae-ro, Jung-gu, Seoul, Korea
SEOULLO 7017 North Plaza Woori bank Jungnim office

Main Phone Number
+82-2-2133-2712